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학 석사학위논문

중국 산둥성 지파시의 노인부양방식 및
노인부양기대에 대한 연구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왕신월(王新月)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재 중국 노인들의 노후부양 기대와 부양방식을 통해 개혁개방 이후의 산업화, 도시화가 가져온 중국 노후 보장체계의 변화의 단면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의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속에서 중국 노인들의 가족부양 방식과 기대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화, 도시화의 변화로 인한 인구구성, 경제구조,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노인 부양방식과 기대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고찰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중국 산둥성내에서 산업화, 도시화의 수준이 다른 네 개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노후 부양 기대와 방식을 파악하고, 아울러 거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파악과 고찰을 통해 노인들의 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노인의 노후 부양 방식과 기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고찰과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혁 개방으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 정도에 따라 지역적 특성이 다르게 형성되었다. 그 지역적 특성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구성에서 도시화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상주인구수와 젊은 층의 상주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농촌에서는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가 주요 구성을 이루는 반면, 오히려 도시화가 진척된 지역에서 자녀 동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농촌의 젊은 인구층이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농촌에서도 핵가족화가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경제 구조에서, 농업에만 기반한 농촌지역은 소득이 낮고 산

업구조가 단순한 반면, 도시화가 진척된 지역일수록 소득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에서 2차산업과 3차산업이 발달되는 양상을 보였다. 산업화로 인한 경제구조의 발달은 마을공동체의 수입의 증대를 가져와 지역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이용되었다. 따라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척된 지역일수록 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진 양상을 드러내었다.

셋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양로보험제도가 먼저 시행된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노후 복지의 안정성을 보여주었으며, 마을공동체가 존재하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는 돌봄에 있어서 공동체적 성향을 좀 더 보여주었다. 따라서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노인들의 독립성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다음, 개혁개방으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는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노인들의 노후 부양 기대와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었다. 개혁개방 이전의 사회복지체계는 국가-단위 중심의 복지체계를 통해 노인들의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된 반면에 그러나 국가 전반적인 빈곤에 처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노인의 보장을 미약한 수준에 적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의 복지체계는 사적 부담이 확대되면서, 개인적 특성에 따라 노후부양 기대와 방식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은 지역적 특성과 결합하면서 그 차이가 좀 더 두드러지는 양상을 드러내었다.

첫째, 상주 인구수가 적고 젊은층이 부족한 농촌지역은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부부의 가구가 많았다. 이들은 가족부양을 선호하는 양상을 드러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신체적 돌봄을 하는 자기부양이 주된 노후부양 방식을 이루었다. 자녀들과 동거하거나 혹은 별거하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는 자녀들의 비중이 높은 도시지역에서는 자기부양의 선호가 높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자기부양 방식을 취했으며, 시설부양을 선호하고 시설에서 거주하는 비중도 농촌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자원은 부양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제적 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자기부양을 선호하였고, 실질적으로도 자기부양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의 도시지역 거주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자녀로부터 경제적 부양과 더불어 신체적 부양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상 경제적 자원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가족부양의 선호가 높았지만, 경제적 부양과 신체적 부양 모두 자기부양 방식에 의존했다.

셋째, 도-농간 사회보험 수혜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양로보험이 취약하여 사실상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반면, 도시 지역의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풍요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혜택을 더 누리고 있었다. 따라서 농촌의 노인들은 자녀 부양의 기대가 높은 반면, 도시 노인들은 자기 부양과 시설 부양의 기대가 높았다. 또한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가족부양의 기대와 가족 공동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반면, 도시 노인들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가 진행되어 독립성과 자기부양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고찰과 분석을 통해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가족부양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에 인구구성, 경제구조, 사회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달라진 개인 및 지역의 특성이 노인들의 노후부양 기대와 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산업화, 도시화 부양방식 부양기대 경제적 부양 신체적 돌봄

학 번 : 2013-23775

목 차

| | |
|--------------------------------------|----|
| 제1장 서론 | 1 |
| 1. 문제제기 | 1 |
|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4 |
| 2.1 도시화의 개념 및 중국의 도시화의 특징 | 4 |
| 2.1.1 도시화의 개념과 도시화 수준 | 4 |
| 2.1.2 중국의 도시화 과정 및 특성 | 5 |
| 2.2 노후부양 기대와 부양방식에 대한 개념 | 8 |
| 2.2.1 노후부양 기대 | 8 |
| 2.2.2 노후부양 방식 | 8 |
| 2.2.2.1 노인부양 분야 | 9 |
| 2.2.2.2 노인부양 주체 | 11 |
| 2.2.3 노후부양 기대와 부양방식의 차이 | 12 |
| 2.3. 도시화와 노인 부양에 대한 선행 연구 | 13 |
| 2.3.1 도시화와 노인의 지위 | 13 |
| 2.3.2 한국의 도시화에 따른 노인 부양기대와 부양방식 .. | 16 |
| 2.3.2.1 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 | 17 |
| 2.3.2.2 도시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 18 |
| 2.3.2.3 가치관의 변화 | 20 |
| 2.3.3 중국의 도시화에 따른 노인 부양기대와 부양방식 .. | 22 |
| 2.3.3.1 개혁개방 이전의 노인부양 방식 | 22 |

| | |
|--------------------------------------|-----------|
| 2.3.3.2 개혁개방 이후 부양방식과 기대의 변화 | 25 |
| 3. 연구 분석틀과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 27 |
| 3.1 연구 분석틀 | 27 |
| 3.2 연구방법 | 29 |
| 3.3 연구지역의 선택 | 30 |
| 3.4 연구대상 | 31 |
| 제2장 조사 지역의 지역특성 | 33 |
| 1. 조사지역의 인구구성 | 33 |
| 2. 조사지역의 경제구조 | 37 |
| 3. 조사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 43 |
| 4. 소결 | 51 |
| 제3장 노인 부양방식과 기대의 변화 | 52 |
| 1. 개혁개방 전후 중국 부양방식의 변화 | 52 |
| 2. 부양방식의 변화 양상과 요인 | 60 |
| 2.1 인구구성에 따른 변화 | 60 |
| 2.1.1 인구구성의 변화 | 60 |
| 2.1.2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노인 부양기대와 방식 | 65 |
| 2.2 경제구조에 따른 변화 | 71 |
| 2.2.1 경제구조의 변화 | 71 |
| 2.2.2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부양기대와 방식 | 74 |

| | |
|--------------------------------|---------|
| 2.2.2.1 경제적 소득에 따른 변화 | 74 |
| 2.2.2.2 지역 경제적 특성에 따른 변화 | 78 |
| 2.3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변화 | 86 |
| 2.3.1 사회문화적 변화 | 86 |
| 2.3.1.1 제도적인 차이 | 86 |
| 2.3.1.2 생활 방식의 차이 | 89 |
| 2.3.2 노인부양 기대와 방식의 변화 | 91 |
| 2.3.2.1 양로보험제도 차이에 따른 변화 | 92 |
| 2.3.2.2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른 변화 | 96 |
| 2.3.2.3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변화 | 99 |
| 제4장 결론 | 109 |
| 1. 연구결과 | 109 |
| 2. 연구의 함의 및 한계 | 113 |
| 참고문헌 | 116 |
| Abstract | 133 |

표 목 차

| | |
|--|----|
| <표 1-1>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 32 |
| <표 2-1> 조사지역의 인구구성 특징 | 33 |
| <표 2-2> 조사지역의 가구형태 특징 | 35 |
| <표 2-3> 조사지역의 산업구조 | 38 |
| <표 2-4> 중국의 고용구조 | 39 |
| <표 2-5> 조사지역의 소득분포 및 직업분포 | 40 |
| <표 2-6> 조사지역의 마을공동체의 경제상황 | 42 |
| <표 2-7> 농촌지역의 주택상황 | 43 |
| <표 2-8> D도시의 주택상황 | 45 |
| <표 2-9> 농촌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 45 |
| <표 2-10> D도시의 사회문화적 특성 | 50 |
| <표 3-1> 자본유입의 추세(1979 - 2001) | 72 |
| <표 3-2> 지파시 산업별 생산액 구성(1980-2013) | 73 |
| <표 3-3> 지파시 비사영 단위 직원 평균 연금(1980-2013) | 74 |
| <표 3-4> 지파시 1인당 수입 및 지출(1983-2013) | 74 |

그 립 목 차

| | |
|---|----|
| <그림 1> 한국 노인 가구형태 변화 | 18 |
| <그림 2> 한국 노부모 부양 책임의식 변화 | 21 |
| <그림 3> 연구의 분석틀 | 29 |
| <그림 4> 지파시내 도시지역 60세 이상 인구의 수입원 | 59 |
| <그림 5> 지파시내 농촌지역 60세 이상 인구의 수입원 | 59 |
| <그림 6> 지파시의 가구당 평균인구수 추이(1983-2013) | 61 |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1세기 들어 인구 고령화는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중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000년 11월 실시된 중국의 제5차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1.3억 명으로 전체인구의 13.2%를 차지하고,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8,811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6.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국이 고령화 사회에 정식으로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2010년 실시된 전국 제6차 인구조사 기록에 따르면, 중국 내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78억 명으로 제5차 인구조사 결과보다 늘어났고,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8.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년 전보다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1% 증가하였다. 앞선 인구조사의 통계를 바탕으로 예측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60세 이상 노인은 매년 평균 860만 명이 증가하여 1.78억 명에서 2.21억 명이 되어서 전체인구 중 16%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체 노인인구가 1억 명을 넘는 나라다.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중국의 고령화 현상은 향후 다양한 사회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인구규모 자체가 거대한 탓에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주로 노인부양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과 동시에 연로한 노인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1949년 신중국 수립 이후 60여 년간의 중국사회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개혁·개방이다. 1978년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이후 30여 년 동안 중국은 사회주의의 토대 위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고도의 성장을 거듭해왔다. 세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정치경제적 위상이 커지면서 부의 재분배를 위한 중국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사회보장시스템의 발전과정은 서구를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의 발전과정과 상이하며, 다른 동아시아국의 복지모델과도 상이한 중국 고유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복지체제 발전에 있어서 일정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의 동아시아 복지모델은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제력 중심으로 복지보다 성장을, 공적 재분배보다는 사적 재분배를 강조한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의 틀 안에서 중국을 분류할 수 없는 특수성은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독특한 정치경제적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는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른 도시화 과정을 겪어오는 과정에서 사회보장체계 또한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노후부양에 대한 이해는 신중국 성립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 발전했던 개혁·개방 이전의 노후부양방식과 개혁·개방 이후의 노후부양방식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중국 노인들의 노후부양 기대와 부양방식을 통해 개혁개방 이후의 산업화, 도시화가 가져온 중국 노후 보장체계의 변화의 단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의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속에서 중국 노인들의 가족부양 방식과 기대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한 사회적 환경이나 정책에 당면한 사회배경에 따라 노인의 경제적인 부양과 신체적인 부양 방식과 기대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중국처럼 특수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시기를 겪어온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부양이 과연 약화되거나 또는 그 부양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지를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화, 도시화의 변화로 인한 인구구성, 경제구조,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노인 부양방식과 기대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사회적 고찰을 연구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1. 도시화

2.1.1 도시화의 개념과 도시화 수준

도시화에 대한 고전적 정의는 엘드리지(Eldridge, 1956)의 것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도시화는 ‘인구집중의 진행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데이비스(Davis, 1965)에 의하면 도시화는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총 인구의 비율’을 뜻한다(박종화·윤대식·이종열, 2013 재인용).

도시 발전과 도시화는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되기 쉬우나, 도시화는 도시세력이 외연적으로 파급되어 주변의 농촌지역이 도시적 취락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과 도시 자체가 보다 도시적인 요소를 더해가는 과정, 즉 도시 발전의 과정을 포함한다(박종화·윤대식·이종열, 2013 재인용). 그러나 서구사회에서 도시화는 일반적으로 근대화, 산업화와 같이 나타나는 과정이다. 이렇듯 도시화는 단순히 인구가 도시로 이동한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마다 그에 대한 개념 정의와 인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의 도시화’를 중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도시화가 가장 본질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2차와 3차 산업이 도시로 집중되고,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함으로써 도시의 수가 증가하고, 도시 규모가 확대됨과 동시에 도시로 물질문명, 생활 방식이 이동하는 과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도시화의 본질은 경제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농촌생활에서 도시 생활로 업그레이드 전환되는 과정을 가리킨다(劉勇, 2001).

루이스 위스(Luis Wirth, 1937)는 도시화가 추진됨에 따라 거주민들의 도시화에 대한 인식도 더 깊이 있고 전면적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개념들은 모두 기술적 정의일 뿐 아직 실증적 정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전반적으로 도시화의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위스는 도시화를 ‘분업이 끊임없이 우위의 위치를 얻어 사회가 자연, 원시, 낙후의 농업 문명에서 현대 공업과 서비스 경제위주의 완벽한 도시 기반 시설과 공공서비스 시설이 표지가 되는 현대 도시 문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권용우 외, 2009).

앞선 논의를 요약해 보면, 대개 도시화의 과정에서 보면 도시화 수준은 도시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공공 서비스 공급이 충족되는 것을 가리킨다. 즉 도시는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거주민의 수입 수준이 향상된다. 또한 도시화의 결과에서 보면, 도시화 수준은 도시화가 가져온 인간 생활방식의 변화와 환경의 개선을 가리킨다. 도시 생활방식은 도시의 특정 주민생활 조건이 거주민의 주민생활에 미치는 특수한 영향으로 형성된 생활 방식을 가리킨다. 생활방식의 변화는 도시화 수준의 중요한 발현이다. 도시화 과정은 깊고, 전 방위적인 변혁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거주민의 전체적인 소양이 끊임없이 향상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도시는 농촌과 다른 생활방식이 형성되며, 생활 방식의 도시화는 도시화 수준의 제고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도시화 진행 과정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였고, 점점 더 많은 인구가 도시에 모여살고 생활환경 구축 문제가 점차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생활환경은 도시화 수준과 관계가 밀접하다(김영근 외, 2014)

2.1.2 중국의 도시화 과정 및 특성

중국 정부(건설부)는 도시화를 ‘인간생활과 생활방식이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주로 농촌인구가 도시인구로 전환되

고 도시가 완전화를 향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이회옥, 2014).

중국의 도시화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이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개혁개방 이전은 집단경제 시기로 인구 이동에 한계가 있었으며, 도시 위주의 발전, 농촌은 집단경제를 따르며 도시 단위를 보장하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

반면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된 1979년 이후 중국 농민의 도시화, 곧 비농화는 대략 세 가지 단계를 거쳐 나타나게 된다.

먼저 제1단계는 1979년~1984년까지로 이 시기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점업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가정책임제를 통해 농민이 자기의 노동시간에 대한 자주권을 가지게 되었고 농업노동력의 대량 잉여가 우성화되어 농업 노동력이 밖으로 이동해야 했다.

한편, 당시의 농업생산은 아직까지 도약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사회 요구는 컸고 농업 수익의 제고는 비교적 빨랐으나 향진공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고 기타 비농업생산은 막 시작되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단계 농민의 비농화는 가가호호 모두 농업생산을 중시하고 할당논밭, 식량논밭에 농사를 짓는 기초에서 가정의 일부 노동력이 향진기업에 들어가거나 비농산업인 자영업에 종사하였다는 특징을 띠고 있다(진이, 2002).

제2단계는 1985년~1992년까지로 당시는 농촌의 분담과 분업이 계속 심화되던 단계이다. 1984년 중국의 농업생산은 마침내 역사적인 도약을 이루었지만 농산물 판매 불황이 뒤따랐고 농업경영은 비농산업 보다 효율과 이익이 많이 낮았기에 상당수 농가의 농업경영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었고 일부지방에서는 농토를 방치하거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방의 농촌에서는 앞다투어 농업의 '이중경영'과 규모경영을 전개하였고 토지를 대농가에 집중하였다. 또한 향진공업의 선도로 농촌의 건축업, 운수업, 상업, 서비스업은 전면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농업노동력의 이동로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외에도, 80년대 말부터는 도시의 대규모

현대화 건설이 전개됨에 따라 전국에서 매년 5000만 여명의 농민이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갔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농촌의 분담과 분업의 가속화를 촉진시켰다(진이, 2002).

제3단계는 1993년 이후로 이는 농촌의 분담이 고정화, 직업화되는 단계이다. 1992년 중국공산당 14회 전국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행을 확정지었고 1990년대 중기에 시작된 전국규모의 농가청부토지의 사용권 유통, 1996년에 시작된 향진기업의 주시제도 개조와 1997년 이후 중소도시의 호적제도의 개혁심화로 인해 10여 년간 비농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위에서 농촌의 분담·분업은 점점 고정화, 직업화되어 갔다(진이, 2002).

이와 같이 개혁개방 이후 비농화가 진행되었으나 중국의 영토가 광대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그들의 환경에 따라서 경제발전과 도시화정도가 다르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중국이라는 같은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각각 다른 도시화 수준을 갖게 되었다. 한편 중국의 도시화의 특징 중 하나는 ‘토지의 도시화’가 ‘인구의 도시화’보다 우선시되었는데, 특히 도시건설구역의 면적 증가속도가 도시인구 증가속도를 크게 웃돌았다. 중국의 도시핵심 용적률은 선진국에 크게 뒤쳐져 있으면서도 도시인구의 1인당 토지 점유면적은 선진국보다 훨씬 크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중국의 도시화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의 기회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 붐으로 변질된 측면도 존재한다(김영근 외, 2014).

요컨대 중국의 도시화는 모든 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농 현상이나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해 저임금노동에 종사하면서 제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과 함께 일반적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도 인구 거주제도에 있어 보다 국가를 통한 인구이동 통제와 토지소유권 제한을 통해 다른 나라보다 복잡한 방식의 도시화 모습을 보인다(김영근 외, 2014).

2.2 노후부양 기대와 부양 방식

2.2.1 노후부양 기대

노후부양 기대란 ‘인간이 노인부양 행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관점과 태도’로 정의된다. 그러나 ‘노인부양 행위’의 내용에 따라 기대수준은 차이를 보인다. 즉 노인부양 방식은 가족부양, 사회부양, 자기부양, 국가부양 등 부양방식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 따라 노후부양에 대한 기대가 달라진다는 말이다(李彦博, 2009 ; 韋云波, 2010 ; 牛喜霞, 2013 ; 張文娟, 2014 ; 董華蕾, 2012).

한편 노후부양 기대는 노인을 누가 부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면적 의식 또는 가치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관에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영향을 주는데, 오늘날의 사회구조는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면서 중국 내에서 중시 여겼던 유교사상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노인부양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최순남, 1999). 노후부양 방식의 대한 노인들의 선택을 보면 도시노인과 농촌노인 모두 가족부양 방식을 선호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는 경제적 부양과 신체적 돌봄에 대한 노인들의 선호도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2.2.2 노후부양 방식

노인인구에 대한 노후부양은 부양하게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크게 경제적 부양, 신체적 부양, 정신적·정서적 부양으로 나뉜다(김태현, 1982). 이에 대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2.2.1 노인부양 분야

경제적 부양(Economic Support)

경제적 부양이란 노인이 필요로 하는 금전이나 물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에게 빈곤, 질병, 소외감과 만족감 등과 관련 있는 경제적 자원 및 자립을 지원하는 부양형태를 말한다.

경제적 부양은 생활의 안정을 전제로 생계유지의 기본적인 욕구충족, 건강, 여가활동, 자아실현을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만족과 행복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양형태이다. 또한 경제적 부양은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부양형태로 설명한다. 노년기에 경제적 안정은 물론 생계유지, 건강유지, 여가활동, 나아가 자아실현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형태이다(김태현, 1982). 특히 노년기의 경제문제는 건강유지나 여가활동·자아실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경제적 부양수준이 낮은 노인들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울해하기도 한다.

한편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토지를 기초로 하는 재산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사후에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묵시적 협상 덕택에 오늘날의 노인들보다 더 많은 사회적 교환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후의 경제적 부양의 문제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일부 노인을 제외한 많은 노인들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은퇴를 경험하고, 소유하고 있었던 것의 사회적 교환가치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부양은 노인부양의 중요한 한 요소가 되고 있다(주상애, 2005).

반면에 중국노인의 경우 경제적 자원 중 제1위는 자녀와 친족이 공급하는 것이다. 2위는 퇴직연금이며 3위는 노인들 자신의 근로수입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사회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사업의 진

보에 따라 퇴직한 노인들의 대우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또한 퇴직금과 의료보험제도의 시행으로 노후부양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방식은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때, 도시노인의 경제적인 공급은 큰 도전이 아니지만, 농촌의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큰 도전이다. 중국농촌의 양로보험제도의 발전이 느리고 지원 금액이 자녀의 경제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촌노인들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더구나 노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노동력을 상실할 때 자기의 노동수입에만 의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노인들이 안정된 보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자녀의 경제적 공급은 여전히 노인에게 중요하다(董華蕾, 2012; 劉孟芳, 2005)

신체적 서비스 부양(Physical Service Support)

신체적 부양은 노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체적 거동 및 가사운영에 필요한 부조, 보호, 심부름, 청소, 세탁, 요리, 식사, 목욕, 보살핌과 시중을 제공하는 부양을 의미한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기능 및 질병에 대한 저항력 저하로 인하여 건강상의 욕구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욕구충족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는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전통사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가족형태는 핵가족과 직계가족이었기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와 부모는 동거하거나 가까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항상 쉽게 노부모의 병간호와 살림 돌보기 등을 할 수 있었다(박재간, 1985). 또한 전통사회에서는 가족형태가 확대가족과 직계가족으로 구성되어 가족 구성원이 많았고 자녀 중 장남과 동거하는 형태도 많았다. 게다가 효를 미덕으로 삼아온 가치관 덕택에 노부모는 자녀들에게 병간호와 시중을 쉽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자녀가 분가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하여 노인의 신

체적 부양해결이 어려워졌다. 서양의 경우에는 노인세대 가족 또는 독거노인은 공적 기관을 통한 자원 봉사자에 의해서 대부분의 신체적 서비스가 이루어지거나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을 통해 노인에 대한 신체적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다(최순남, 1999). 그러나 중국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나 시설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도 노인들의 신체적 부양이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董華蕾, 2012; 劉孟芳, 2005, 董沛, 2008).

2.2.2.2 노인 부양 주체

노후부양 방식은 부양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크게 사회보장제도의 틀 속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부양과 가족에 의해 또는 스스로 부양문제를 해결하는 사적 부양으로 나뉜다. 전통사회에서는 노인부양을 가족들이 책임지는 것으로 보았다면 현대사회에서는 가족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보고 있다(박재간, 1985).

이러한 노후부양 방식에 대해서 박재간의 연구(1985)에서는 경제적 부양을 제공주체에 따라 사적인 가족, 친지, 친족, 이웃 등에 의한 가족부양 방식과 노인 스스로 노동이나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생활하는 자기부양 방식, 그리고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인 국가부양 방식과 사회나 공동체가 제공하는 사회부양 방식으로 나눈 바 있다(박재간, 1985). 젊었을 때 적금, 주식투자, 보험, 부동산 투자 등으로 사전비축을 하거나 노인이 된 이후 취업 또는 기타 수입활동을 통해서 독립생계를 유지해나가는 유형은 자기부양 방식에 속한다(박재간, 1985).

한편 중국에서 1949년 이후 지속적인 남녀평등운동으로 여성도 남성처럼 지속적인 경제생활을 하게 되었는데(孟憲范, 2007), 부부가 같이 노동 소득에 의지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노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노동을 통해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역시 자기부양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공적 부양을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서 부양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농촌에서는 마을공동체, 도시에서는 근로하는 직장(단위)이 양로보험제도를 제공하는 경제적인 사회부양과 국가가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국가부양방식이 포함하며, 신체적인 측면에서 사회양로시설(양로원)에 거주하는 사회부양과 집에서 거주하며 사구(도시에 지역공동체)에서 신체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화 부양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董華蕾, 2012; 劉孟芳, 2005; 董沛, 2008).

2.2.3 노후부양 기대와 부양방식의 차이

노인부양 방식이 ‘누군가 노인부양의 주체가 되어 노인들을 위해 자원 및 지원을 제공하는’ 현황을 의미한다면, 노후부양 기대는 노인들이 ‘노인부양 행위를 소지하고 있는 주관적인 기대와 태도’를 의미한다. 전자가 현실의 선택이라면 후자는 주관적 관념이다.

노인에게 가족부양은 가장 중요한 부양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가족부양의 경우,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누가 부양할 것 인지는 가족에 대한 문화적 기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개인주의와 독립성이 강조되는 서구사회와 유교적 가부장제의 윤리규범의 영향을 받는 중국이나 한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 사회는 가족부양의 구체적 실천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Campbell & Ingersoll-Dayton, 2000).

게다가 노인의 부양자원과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와 가족관계에 따라서도 가족부양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가족부양에 대한 노인의 기대는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가치와 규범, 노인의 부양자원이라는 현실적 조건 및 노인의 필요(욕구) 간의 타협물이라고 할 수 있다(Daatland & Herlofson, 2003). 가족규범이 대체로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신념체계라면, 노인이 처한 현실조건과 욕구는 도시화 정도와 각 지역의 차이에 따른 가족력과 노동경력 등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노인이 부양을 기대하는 대상은 일차적으로는 가족이지만,

부양에의 의지가 실제적인 부양제공으로 현실화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2.3 도시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선행연구

이 절에서는 노년학이론으로서의 도시화와 노인의 지위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중국과 유사한 가족부양 방식을 추구하는 한국사회와 중국사회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3.1. 도시화와 노인의 지위

로소우(I. Rosow)는 서구의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인들의 지위가 크게 약화된 이유로 소유권, 전략적 지식, 생산성, 상호 의존성, 전통과 종교, 친족과 가족, 공동체 생활 등 7가지 제도적 요인을 들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 농경사회에서는 재산의 소유 또는 점유권이 노인에게 있었고, 오랜 경험에 기초한 지식과 지혜가 농경생활에 필수적이었기에 노인들은 강한 권한을 갖고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근대적 교육과 직업분화 등으로 젊은 세대들은 자립이 가능해졌고, 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노인들의 지식경험 기능 등이 평가절하되면서 노인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갖는 통제력도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기술과 생산수준이 낮은 농경사회에서는 노인들의 일손도 큰 몫을 하였고 노인들이 상부상조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술집약적 사회에서는 노인들의 기여도가 크게 낮아졌으며 노인들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주요 기제였던 비공식 후원망 역시 개인적 성취와 독립이 중시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크게 약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실용주의가 존중되는 현대사회에서 과거에 신성시되던 전통은 더 이상 중요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 농경사회에서 노인은 광범위

한 친족조직의 일원이자 촌락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높은 지위를 누리며 각종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으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그러한 유대가 약화되었다(Rosow, 1974).

노년층의 지위하락에 관해서는 커길과 홈즈(Donald O. Cowgill and Lowell. D. Homes)의 ‘노령화에 관한 근대화 이론’에서 설명되었는데, 특히 근대화가 진전될수록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즉 노인의 기능과 지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인식되면서 도시의 제한된 일자리는 젊은 층에 의해 충원되고 퇴직제도가 출현한다.

한편 도시화와 교육의 대중화 추세 속에서 노년층은 젊은 세대로부터 사회적·지적·도덕적으로 분리된다. 이 같은 변화의 복합적 결과가 바로 노인의 지위 하락이라는 것이 커길의 논점이다(Cowgill, 1975; 박재홍, 1991 재인용).

미국사회 노인들의 삶을 근거로 노인의 운명과 문화를 설명(Thomae, 1983)하고자 한 대화이론에서는 현대화 이전 사회의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족 내에서는 물론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았으나 현대화 이후의 사회에서는 그들의 위치가 약화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언급하였다(Atchley & Barusch, 2004; Thomae, 1983).

이러한 현대화이론의 핵심내용은 Palmore와 Manton(1972) 그리고 Bengtson와 Inkeles(1975)의 ‘현대화된’ 나라들과 ‘비현대화된’ 나라들에서의 노인들의 위치에 대한 범문화적 연구들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Thomae, 1983 재인용). 이후에 Kerrigan(1980)도 ‘현대화된’ 산업사회에 이르러 가족관계가 약화 내지 해체됨에 따라 가족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증가하여, 점차 ‘사회적 노인부양’에 의존하게 되었다(Thomae, 1983 재인용)는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현대화이론의 공고화하였다.

Chibutu(1980)도 현대화과정에서 노인들이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도 경제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어 무력해졌다

(Thomae, 1983 재인용)는 연구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에 힘입어 현대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노인들의 위치는 낮아진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화이론은 노년이론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현대화이론에서의 현대화는 사회의 동력원, 기술, 제도분화, 가치관 등이 농촌사회의 생활방식으로부터 도시산업사회의 생활방식으로 변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대화이론은 바로 이러한 변화가 전사회적으로 그리고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고 주장한다(김동일, 2000; 김정석, 2007; Atchley & Barusch, 2004).

예컨대, 보건의료기술의 발달이 수명연장을 가져온 반면, 낙후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노인들 대부분은 신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젊은이들에게 밀려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도시화도 젊은이들의 이농으로 노인들만이 농촌에 남게 되는 세대 간 지리적 및 사회적 분리를 가져와 노인의 지위를 하락시켰다. 또한 교육기회의 확산도 부모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상승을 하도록 했으나 부모의 지위는 제자리에 머물러, 부모와 자녀 간 지위가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김동일, 2000: 92; 김정석, 2007: 677-678).

이처럼 현대화이론은 노인들의 삶에 미치는 부정일변도의 현대화 효과를 강조하는데, 이와 같은 일 방향적 평가는 노인들의 삶을 현대화 이전과 이후로 분리하여 단순 대치시키는 한계(Atchley & Barusch, 2004; De Beauvoir, 1972; Thomae, 1983)가 있다. 즉 이러한 ‘이분법적인 관점’을 지니는 현대화이론은 1900-1930년의 미국사회 노년 및 노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이후의 노인들의 삶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Atchley & Barusch, 2004).

특히 1990년대 이후 국제 노년학계에 등장한 노인 및 노년에 대한 긍정적인 패러다임, 즉 ‘신노년’이나 ‘긍정적 노년’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De Beauvoir(1972)는 이러한 한계성이 현대화 이후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화 이전의 노년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자면,

그리스 스파르타 시대와 기원전 2세기 로마시대에는 강력한 사회적 위치를 점유한 연령층이 노인집단이었다면, 중세에는 청년집단이었던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하였다. 또한 Atchley와 Barusch(2004)도 노년 및 노화가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어느 한 쪽 특성만이 아니라, 긍정적 및 부정적 특성 모두를 지니는 ‘양가적 속성’을 보인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예로 고대 그리스사회의 노인들의 삶에 대한 당대 철학자들의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였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인들의 삶에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면, 키케로와 플라톤은 부정적 평가를 했다.

앞서 살펴본 노령화에 관한 근대화 이론에서는 다양한 사회 간의 차이나 특정 사회 내 노인 간의 차이에 대해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사회는 문화적·역사적 경험이 다르고 또한 특정 사회 내에서도 노인의 지위가 성별이나 계층적·계급적 지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길과 흠즈의 이론은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노년층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하락 및 역할 상실, 소외 등의 각종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3.2. 한국 노인부양 기대와 부양방식의 변화요인 검토

한국 노년학계의 노인부양에 대한 논의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현대화이론에 근거해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룬다.

즉 전통적인 대가족 가족부양구조의 농경사회에서는 효를 강조하는 유교사상에 따라 자녀를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을 졌지만, 산업화, 도시화 등에 의해 현대사회로 전환되면서 자녀를 노인에게 가족은 노인부양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권중돈, 2004; 김정신, 1997; 1994; 63-65; 김동일, 2000: 92; 모선희, 2006: 32; 송다영, 2004; 이운로, 2004).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한국의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서 사회구조와 생활양식, 인구구조,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그에 따라서 노인부양에 대한 기대와 방식도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아래와 같다.

2.3.2.1 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

전통적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사회변동을 수반한다. 한국에서는 특히 1960년대 이후 공업화·도시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동이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노인의 가정적·사회적 지위 하락을 가져왔다. 농경사회의 노인들은 자녀들로부터 손쉽게 동거부양을 받을 수 있었다. 노인들은 농경기술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였고 재산과 생산수단도 물려주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인간이 되고 부모의 은덕으로 사회적 생존이 가능하며 부모의 후광으로 사회적 지위의 획득이 가능했다. 따라서 부모부양 의식은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었다(고영복,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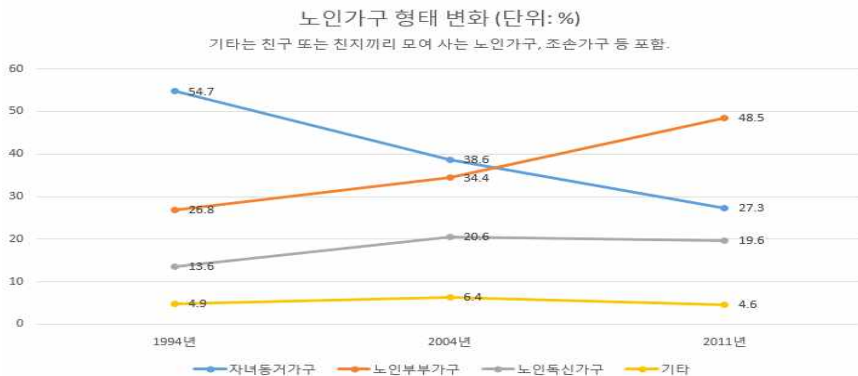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직업이 달라지면서 부모는 자식에게 가르쳐줄 것이 없어졌고, 자녀들의 장래는 부모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이 되었다.

즉 부모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자녀를 통제할 힘을 상실하게 되었다(이재경, 2005). 자연히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전통사회에서와 같은 효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고 자녀와의 동거부양 역시 어려워졌다. 또한 고도의 기술과 지식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한 노인은 산업사회에서 쉽게 배제됨으로써 과거보다 더 큰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노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위는 한층 저하되는 동시에 부양의 필요성 역시 증대시키고 있다. 즉 과거의 부모부양이 지닌 통제력과 전통적 부양의식이 세대 간에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2.3.2.2 도시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1960년대부터 노인들의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특히 농촌에서 급속히 늘어났는데 그 핵심 요인은 젊은 세대의 무더기 이촌향도현상이다(이가옥 외, 1989).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의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며 가족중심의 노인부양 체계의 물질적·규범적 기초를 변화시켰다.(김두섭, 2001).

<그림 1> 노인가구 형태 변화



자료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노인들은 자녀와의 동거보다는 별거형태로 이동하고 있다. 노인의 자녀동거가 감소하고 노인 단독가구나 노인 부부가구의 증가가 전통적인 가족부양 체계의 변화에 갖는 함의는 실로 복잡하다. 동거나 별거 사실 자체를 가족부양 및 돌봄 기능의 약화로 보기는 어렵다.

즉 확대가족의 감소만으로는 부양의식의 약화나 장남의 분거경향을 설명하지 못한다.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는 노인의 경제적 지위와 건강수준의 개선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거상황에서 세대 간 지원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같은 동거상황이라도 가족부양의 규범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김두섭 외,

2001).

따라서 동거나 별거 자체보다는 가족관계의 특성 그리고 가족 및 사회적 자원의 정도가 노인의 가족부양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자녀와의 동거 여부보다 가족 내 노인의 역할과 자녀와의 유대관계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노인이 자녀와 동거한다고 해서 반드시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김경신, 1997; 김미경, 2000).

사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중에 정서적 소외감을 인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는데, 이는 자녀와의 동거 사실 자체가 가족 간 유대보다 가족자원의 부족(빈곤)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박경숙, 2000). 따라서 노인의 독립성이 반드시 세대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노인의 독립주거는 세대 간 생활양식을 존중받고 싶은 자율성과 독립성의 추구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또한 자녀와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은 노동을 하든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든 간에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별거노인이 증가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가족의 노인 부양 역할이 약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별거는 노인의 독립적 생활방식과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가족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즉 앞으로 학력과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지는 형태로 노인집단의 질적 특성이 변화한다면, 노인부부 및 단독가구의 증가추세와 맞물려 별거부양이 동거부양보다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설명하자면, 노인들의 부양 및 돌봄 제공의 측면에서 볼 때 노인과 자녀의 동거 여부보다 상호간의 연락과 접촉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Qureshi & Walker, 1989: 63).

2.3.2.3 가치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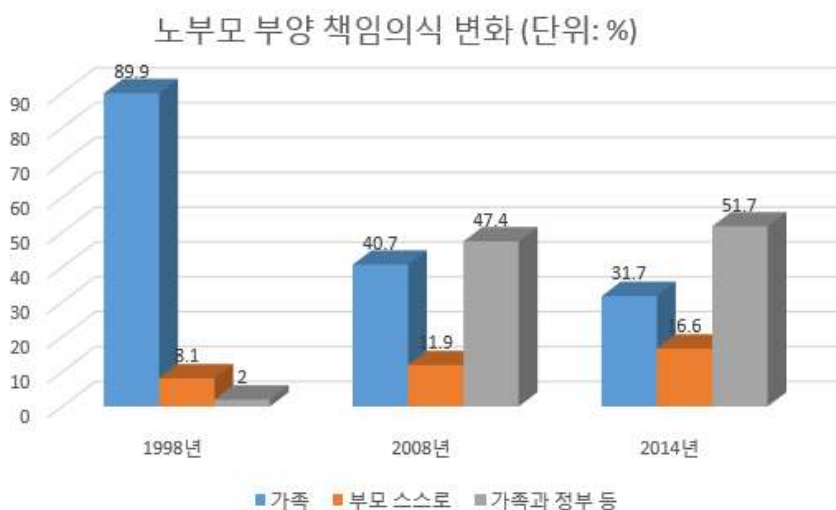
전통사회에서 노인들은 높은 지위를 차지했으며 효도는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일방적인 급여관계로 여겨졌다. 그러나 서구사상의 만연과 고도의 산업화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하는 태도에 큰 변화가 생겨나면서, 노인부양에 관한 전통적 가치 및 규범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김두섭, 2001).

유교를 숭상했던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집합주의적 가치인 가족주의가 그 원형이었다. 가족주의란 부자간의 효 윤리가 근원이 되는 것으로, 친족과 동족은 물론 지역 공동체까지도 혈연적 가족관계의 연장으로 본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평등주의는 수직적 윤리인 경로효친의 윤리와는 대치된다. 전통적 집합주의적 가치가 합리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등과 대립한다는 말이다(박재간, 1985). 이 양자의 가치체계 중 오늘의 사회에서 순기능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후자일 수밖에 없기에, 효는 중심적 가치에서 밀려나고 전통문화의 많은 부분은 붕괴되었다. 6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인구의 폭등, 기술의 폭등, 새로운 지식의 폭등, 조식의 다양화 등을 경험하였다. 또한 산업사회와 근대화 과정에서 낭비, 빈부격차, 핵가족화에 따른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등의 사회적 특성이 발생하였다(김대현, 1982).

현대사회의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의 공급 위기는 또한 가족형태와 의식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가족형태의 변화는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 감소와 핵가족의 확대에 요약된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감소하는 반면, 노인 독신가구나 부부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부양이 필요한 노인은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인 중에 더 많고, 부양이 필요한 노인일수록 별거자녀와 접촉빈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박경숙, 2003; 정경희 외, 2005). 자녀세대는 점차 노부모 부양을 가족의 당연한 책임으로 보지 않으며 자신과 노부모의 동거를 규범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다. 노부모 역시 노년기에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자녀보다는 배우자와 동거하거나 요양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정경희 외, 2005). 노인들에게도 가족부양을 당연시하지 않는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자녀세대보다는 가족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또한 자녀 중심의 직계가족에 대한 부양기대가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상욱, 2000; 모선희, 2006; 조성남, 1999).

<그림 2> 노부모 부양 책임의식 변화



자료출처: KDI

그러나 가족부양에 대한 노인들의 이 같은 기대와는 달리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선호는 매우 낮다. 여성들 특히 중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가족부양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Dwyer & Coward, 1992; Hooyman & Gonyea, 1995; 모선희, 1999; 차홍봉 외, 2000).

여성은 전통적으로 가족 내 노인부양을 담당해왔고, 현재도 전체 돌봄자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가구형태의 변화와 노후부양 의식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확대, 친족 유대

망의 약화 등은 노인부양과 돌봄을 더 이상 가족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김미경·주채선, 2003; 김태현, 2003). 즉 가족부양 및 돌봄의 한계가 인식되면서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양식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2.3.3 중국의 도시화와 노인 부양 기대와 부양 방식

2.3.3.1 개혁개방 이전의 노인부양 방식

중국의 도시화 과정은 크게 개혁개방 이전의 도시화 침체기와 개혁개방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시기로 구분된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도시화는 신(新)중국이 성립된 초기(1949~1957년)를 제외하고 도시화가 전반적으로 억제되었다. 이에 대해서 박인성(2007)은 개혁개방 이전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 하에 시장기능의 억압으로 도시발전을 위한 내재적 동력을 갖지 못한 점이 도시화가 억제된 주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성호(2001)는 1949년 수립된 중국공산당 정부가 도시를 소비도시로 규정하면서 사회주의 하의 도시는 생산도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공업도시 건설에 주력한 점, 그리고 문화대혁명과 함께 농업생산력 증가를 위해 추진한 ‘하방운동’이 도시인구의 성장을 억제한 주요인으로 보았다.

요컨대,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도시화가 억제된 주요인은 이러한 정책적인 요인과 함께 ‘인민공사’ 및 ‘호구제도’를 중심으로 집단주의 체제가 형성되면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구제도는 개혁개방 이후 인민공사체제가 해체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추진된 이후에도 중국의 도시화를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김병철, 2010).

한편 한국의 노인문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 농경사회에서 근대 산업사회로 변화과정에서의 노인의 부양방식과 기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의 노인문제나 중국 개혁개방 이전의 특수한 시기에 겪어온 현대사회에서 노인문제는 다른 양상을 띠기도 한다. 이론상으로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젊은이들과의 경쟁으로부터 노인은 보호받아야 하고 노인부양은 전 사회가 함께 져야할 책임이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를 표방한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수립한 1949년 이후 중국의 노인들은 산업사회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보통의 노인들이 겪어야 했던 것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지위하락은 겪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원칙적으로 노인의 경제적인 부양책임이 국가를 담당하고 있지만 1950년에 제공된 <혼인법>에 따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의 책임 말고도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 조력 책임 등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신체적인 부양이 여전히 가족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농업집단화와 더불어 제도화되기 시작한 농촌 오보호 정책을 시행한다. 즉 자식이 없는 노인, 병자, 미망이, 고아 등에게 기본 생활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을 하였다(김병철,2010).

특히 자녀가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의 경우는 사회주의 정권 수립 초기부터 자녀가 없는 노인은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노인에게 식량, 의복, 의료 주거, 장례등 기본적인 5가지를 보장한다. 이와 같이 도시에서도 단위를 중심으로 노인에게 복지를 제공하며 자녀가 없고 부양가족이 없는 도시 ‘삼오노인’ 경우는 정부는 책임지고 노인에게 기본적인 경제적인 생활을 보장을 제공하며 신체적인 노인이 거주하는 사구(지역사회공동체)를 노인에게 신체적인 돌봄을 제공한다(김병철,2010).

중국은 계획경제 시기에 도농을 이원화한 강력한 호구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주민은 공업에 그리고 농민은 농업에 종사하였다. 도농 간의 복지수준의 차이와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은 도시와 농촌 간에 사회문화적 차이를 가져왔다.(이경아, 2004) 농업 위주의

농촌사회는 도시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관념상의 변화속도가 느린 탓에 자연히 전통사회의 모습을 많이 간직할 수밖에 없다. 도시보다 농촌에서 가족부양 방식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다.

그러나 계획경제 시기 도시인들은 공업부문에의 노동참여로 고정된 임금수입이 생김으로써 경제적 자주성은 농촌에 비해 커진 반면 전통적인 관념은 약해졌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 혹은 결혼한 형제가 동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도시의 거주조건은 세대 간의 유대관계를 한층 약화시킬 수 있다. 계획경제 시기 호구제도에 의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은 성인들을 출신 지역에 묶어둠으로써 세대 간의 상부상조와 유대관계를 유지시켰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을 기업이나 국가단위의 노동자로 편입시킴으로써 혈족 간 유대의 필요성을 한층 감소시켰다(이경아, 2004). 이에 따라 도시노인의 독립성은 한층 강화되는 반면 가족에 대한 부양의지는 약화되면서 가족부양의 기능 역시 쇠퇴하게 된다. 도시의 노인들은 퇴직연금과 의료혜택으로 인한 편리한 생활 때문에 따로 살기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병철, 2010).

도시와 농촌은 복지수준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복지혜택 중에서도 퇴직금 덕택에 도시인은 여전히 아들을 낳아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농촌주민과 달리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다. 특히 공업에 종사하는 도시노인에 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노인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이나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¹⁾. 이는 연로한 농촌노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며 자식과 함께 생활해야 함을 의미한다. 농촌에서 여전히 직계가족 효용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아들을 낳아 노후를 대비한다’는 전통적 양로제도가 잔존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陸學藝, 2005).

1) 농촌에서 퇴직금을 받는 농촌노인은 비농업 인구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은 위와 같은 복지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2.3.3.2 개혁개방 이후 부양방식과 기대의 변화

개혁개방 이후, 정부의 지속적 호구제도와 완화와 복지제도에 개혁에 따라 도농간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도시지역의 복지수준의 하락과 물가상승은 연금생활자인 도시노인의 상황이 전보다 열악해졌다. 또한 노인부양에 있어 가정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농촌에서도 인민공사의 붕괴와 함께 농촌의 복지혜택은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

물론 전가 없는 무의탁 노인들은 제공하는 오보호²⁾ 복지제도를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자녀가 있는 노인들이 가족부양에 대한 역할도 도시노인처럼 다시 중요하게 된다(이경아, 2004).

그러나 경제개혁의 영향력은 지역의 산업화·도시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경제적인 불균형 도시화 발전하여 대규모 농촌 노동력이 도시에 유입되면서 ‘민공’(民工)으로 불리는 농촌 호구를 가진 도시노동자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노인부양방식과 기대에 관련한 연구 중에서 노인의 주요 노후 부양방식의 대한 선택의 결론은 거의 일치하게 도시나 농촌이나 노인들의 선택은 가족부양방식을 선호한다(朱琮, 2014).

도시화로 인해 이주노인집단이고 빈소노인이나 독생자녀의 부모 등 특수한 노인 집단이 생긴다. 이런 노인집단은 중국 경제발전 사회변화와 사회정책의 공동 영향을 받고 생겼다. 다시 말하면 80년대부터 중국에서 계획생육정책을 시행하게 되어 가족규모를 급격히 축소하게 되었다. 많은 독생자녀의 부모는 노후생활에 진입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많은 젊은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옮겨가게 되어 농촌에 거주하는 자는 노동력이 없는 노인과 아동만 남았다(朱琮, 2014).

다른 한 편으로 손자들의 돌봄은 전통적인 문화에 따라 일부분의 노인들이 자녀를 따라 도시로 이주하여 자녀와 같이 살게 된다. 그러나 일부분의 노인들이 자녀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격

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다 가족중심의 노인부양방식이 약화되는 이유이다(朱琮, 2014). 일부분 노인들이 여전히 가족부양방식을 선호한다. ‘빈소’ 노인들이 여전히 집에서 거주하여 배우자이나 자녀를 돌보는 노후부양방식을 선호하며, 독생자녀의 부모들이 비록 경제적 지원은 자신 성향을 시작하지만 거주방식이나 생활적인 보살핌을 방면에 여전히 뚜렷하게 자식들을 의지하고 싶어 한다(唐利平, 2010).

한편 도시로 이주하는 노인들도 역시 도시에 거주하여 노후 부양하는 의식이 비교적인 강하다. 그러나 도시화 발전해 온 현재는 가족부양방식이 여전히 주된 부양방식이지만 노후부양방식과 기대는 사회변화에 따라 점점 다원화되면서 즉 자기부양을 중요해지고 사회부양방식과 기대에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程遠, 1999; 宋宝安, 2006; 董華蕾, 2012; 劉金華, 2006; 韋云波, 2008; 焦亞波, 2010; 褚澡婧, 2010; 楊樂樂, 2013 ; 朱琮, 2014; 唐利平, 2010).

요컨대, 중국의 도시화는 다양한 정책시행으로 현재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복잡한 도시화 발전정책에 따른 중국 각 지역의 도시화 정도는 조금씩 다르다. 또한 중국의 도시화와 한국의 도시화도 차이가 난다. 즉 같은 유교권 속에서 발전해 온 사회라 해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에 노인부양 기대와 방식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도시화에 따른 노인의 부양방식과 기대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도시화 발전을 경험한 현재 중국의 노후부양 기대와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분석틀과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3.1 연구 분석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인 부양방식과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경제적인 구조의 변화, 인구구성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이다. 그러나 선행연구 검토한 것처럼 중국에는 개혁개방 이전에 공산주의 경제구조, 엄격한 이주제한 정책과 이원적 경제구조로 인해 도시와 농촌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공산화 이후 계획경제 시기를 거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경험하고 있는 중국의 노인부양방식은 자본주의와는 다른 역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왔다. 즉 개혁개방이후 새로운 변화된 제도적 도덕적 환경을 조성한 중국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중국의 가족부양방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노인부양 방식의 변화는 중국 특색의 변화 요인에 중점을 두고 세부적으로 인구구성, 경제구조,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나뉘어 중국의 노인부양 방식과 기대의 변화 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3>과 같은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림3>의 연구 분석틀은 도시화의 특징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들이 지역과 개인들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들이 노후 부양의 기대와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도시화 발전은 인구구성의 변화를 유발한다(김영근외, 2014). 도시화가 유발한 인구 구성의 변화는 가구의 세대별 구성, 가구 형태, 연령 집단의 분포를 통해 살펴본다. 각 지역의 노령화 수준과 인구이동, 가구 구성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노인의 노후생활방식과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인구이동과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과 자녀간의 관계의 변화도 노후 부양 기대와

방식을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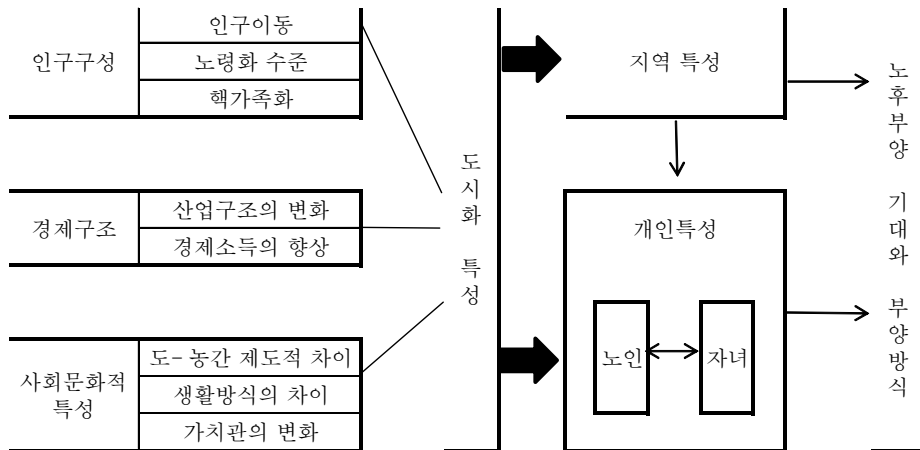
둘째, 도시화의 과정에서 보면 도시화 수준은 도시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공공 서비스 공급이 충족되는 것을 의미한다(김영근외, 2014). 따라서 조사지역의 경제적 구조 즉 소득 분포, 직업 분포, 산업 구조, 마을 공동체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의 도시화 발전과정에서 특수한 도시화 발전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각 지역의 경제적 구조, 즉 소득 분포, 직업 분포, 산업 구조, 마을 공동체 발전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경제구조의 도시화 수준은 노인의 경제소득, 지역별의 산업 구조 등의 차이를 유발하며, 이로 인해 노인의 노후부양방식과 기대의 차이가 나타난다. 지역 경제구조의 변화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도시화의 결과를 따르면 도시화 수준은 도시화가 가져온 인간 생활방식의 변화와 환경의 개선이다(김영근외, 2014). 도시 생활방식은 도시의 특정 주민생활 조건이 거주민의 주민생활에 미치는 특수한 영향으로 형성된 생활방식이다. 특히 생활방식의 변화는 도시화 수준의 중요한 현상이기 때문에 주택 상황 등 조사지역의 사회문화적인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특징을 살펴본다. 중국의 특징적인 ‘불균형 도시화’ 발전과정(김영근외, 2014)과 중국의 특유한 이원구조로 중국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노인부양에 관한 복지정책이나 생활방식, 그리고 가치관에 관련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각 지역의 도시화 수준에 따른 사회문화적 측면의 차이는 노인들의 노후부양과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특성들은 노인과 자녀들의 관계를 기존의 관계와는 다른 개인주의적인 생활방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들의 노후부양에 대한 기대와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 분석틀에 근거하여 지역적 특성이 노인과 노인의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방식과 부양기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

하고자 한다.

<그림 3> 연구의 분석틀



3.2 연구방법

노년 또는 노화연구에서 참여관찰이나 사례분석 등 질적 연구의 필요성은 서구의 노년사회학에서 1980년대 이후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에서도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부양노동 및 부담에 대한 양적 분석이 부양경험의 본질적 측면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Abel, 1994).

특히 노인의 신체적 돌봄의 측면에서 돌봄은 단순한 노동 이상의 정서적인 측면이 내포되어 있고, 가족관계는 배우자 유무나 자녀수 등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친밀감과 정서적 유대, 상호성 등을 통해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부양을 제공받는 노인들의 경험을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도 질적 연구방법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Qureshi

and Walker, 198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산둥성(山東省) 지파시에 위치한 세 마을 근처의 도시에 거주하며 노후생활을 시작한 55세 이상의 노인 30명을 심층 면접한 내용을 자료로 삼는다.

3.3 연구지역의 선택

본 연구는 연구지역으로 선택한 중국 산둥성은 농업 중심으로 발전해온 지역이다. 특히 농촌노인 부양방식에 대한 탐색은 전국의 여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앞서 있다. 중국에서 도시화 발전은 지역 간 불균형발전과 성장차이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큰 경우도 많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영근 외, 2014). 산둥성은 중국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중국은 동쪽부터 서쪽까지 경제발전 수준이나 도시화 정도에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王新越 외, 2014).

본 연구에서 연구 지역으로 선정한 곳은 지파시로 산둥성 중부에 위치하여 화학공업 위주로 발전해온 도시이며, 전체적인 도시화 수준도 높지만 지역 간 발전수준도 차이가 난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지역은 중국 산둥성 지파시에 위치하는 세 개 마을과 도시이다.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적 위치를 봤을 때 세 개 마을과 도시는 같은 현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별 문화차이가 작은 편이다.

2) 반면 공업화·도시화 수준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공업화·도시화 수준의 차이가 마을과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노후부양 방식과 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

3.4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연령을 50대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중국의 법정 퇴직연령은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이다. 이러한 사

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50대 이상의 남녀를 모두 예비 은퇴자로 간주한다. 연구대상의 수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차이에 따라 농촌의 세 개 마을에서는 각 7명으로, 그리고 같은 현에 위치하는 도시지역에서는 9명의 노인으로 선정하였다. 조사지역은 A, B, C, D로 구분하며 이에 따라 노인도 A, B, C, D로 구분한다.

연구 진행 날짜는 2015년 2월 11일부터 2월 25일 사이에 심층면접이 진행되었고, 주로 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심층면접은 일대일로 진행되었으며 한 사례당 1시간 30분에서 3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취되어 분석에 이용되었다. 이후에도 세 개 마을의 행정관리자(촌장)에게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역특성과 지역도시화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보조조사를 실시했다.

인터뷰는 반구조적인 질문으로 다음과 같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조사지역의 자연환경, 경제발전 수준과 문화, 또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 등에 대해 해당지역의 관리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방식을 취한다.

2) 노인의 노후생활을 둘러싼 기본적인 상황을 조사한다. 여기에는 노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상황, 건강 상황, 일상생활 등이 포함된다. 가족규모와 가족관계에 대한 자녀의 기본상황, 거주상황, 자녀를 제공하는 노후부양 자원, 집에서 큰 사고가 발생할 때의 경청과정, 가족관계, 친족관계 등도 포함된다. 또한 노인의 노후 생활에 대한 기대, 특히 가족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포함된다.

3) 노인의 일상생활, 노인의 여가생활, 외로울 때는 무엇을 하고 평소에 어떤 사람과 같이 있으며 힘든 일이 발생하면 누구와 이야기하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4) 이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양로원)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된다.

<표 1-1>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 거주 마을 | 노인 ID | 성별 | 연령 | 배우자 | 거주상태 | 자녀 |
|----------|----------|----|----|-----|------|------|
| A | A1 | 여 | 58 | 유 | 부부동거 | 1남2녀 |
| | A2 | 남 | 76 | 유 | 부부동거 | 1남1녀 |
| | A3 | 여 | 75 | 유 | 부부동거 | 2남1녀 |
| | A4 | 남 | 81 | 유 | 부부동거 | 4남3녀 |
| | A5 | 여 | 76 | 사별 | 독거 | 3남3녀 |
| | A6 | 남 | 55 | 유 | 부부동거 | 1남 |
| | A7 | 남 | 61 | 유 | 부부동거 | 1남1녀 |
| B | B1 | 남 | 72 | 유 | 부부동거 | 2남2녀 |
| | B2 | 남 | 58 | 유 | 부부동거 | 1남 |
| | B3 | 여 | 64 | 유 | 자녀동거 | 1남1녀 |
| | B4 | 남 | 70 | 유 | 자녀동거 | 2남1녀 |
| | B5 | 여 | 79 | 유 | 자녀동거 | 1남1녀 |
| | B6 | 여 | 69 | 사별 | 자녀동거 | 1남1녀 |
| | B7 | 남 | 63 | 유 | 부부동거 | 1남2녀 |
| C | C1 | 남 | 61 | 유 | 자녀동거 | 1남1녀 |
| | C2 | 남 | 57 | 유 | 부부동거 | 1남 |
| | C3 | 남 | 64 | 유 | 부부동거 | 2남1녀 |
| | C4 | 여 | 67 | 유 | 부부동거 | 4남3녀 |
| | C5 | 남 | 72 | 재혼 | 부부동거 | 3남3녀 |
| | C6 | 남 | 65 | 유 | 자녀동거 | 3남3녀 |
| | C7 | 남 | 63 | 유 | 부부동거 | 1남1녀 |
| D | D1 | 남 | 55 | 유 | 자녀동거 | 2녀 |
| | D2 | 여 | 78 | 유 | 부부동거 | 1남 |
| | D3 | 남 | 65 | 유 | 부부동거 | 2남 |
| | D4 | 여 | 81 | 사별 | 시설거주 | 2남2녀 |
| | D5 | 남 | 73 | 재혼 | 부부동거 | 3남1녀 |
| | D6 | 여 | 65 | 유 | 자녀동거 | 2남1녀 |
| | D7 | 남 | 74 | 유 | 부부동거 | 1남 |
| | D8 | 여 | 73 | 재혼 | 부부동거 | 2남1녀 |
| | D9 | 남 | 68 | 유 | 부부동거 | 1남2녀 |

제2장 조사 지역의 도시화 수준과 지역특성

1. 조사 지역의 인구구성

조사지역의 인구구성을 보면, 2014년 현재 A 마을의 호수는 349호이고, 호적상 인구수는 1,14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A 마을의 상주인구는 912명인데, 그 중에서 55세 이하의 인구비중은 38%로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55세 이상의 인구비중은 62%로, 60세 이상의 노인비중도 22.6%로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표 2-1).

<표 2-1> 조사지역의 인구구성 특징

| 특성 | 구분 | A마을 | B마을 | C마을 | D도시 |
|-------------|-------------------------|------|-------|-------|---------|
| 인구 구성 | 호수(호) | 349 | 627 | 930 | 34,300 |
| | 호적 인구수(명) | 1146 | 1,875 | 2,369 | 145,676 |
| | 상주인구 ³⁾ 수(명) | 912 | 1,641 | 1,863 | 180,859 |
| 노인 연령 집단 | 55세 이하(%) | 38.0 | 42.0 | 76.4 | 77.4 |
| | 55~59세(%) | 39.5 | 31.4 | 0.2 | 15.9 |
| | 60~69세(%) | 15.9 | 17.4 | 13.9 | 6.4 |
| | 70~79세(%) | 6.4 | 9.0 | 9.4 | 0.2 |
| | 80세 이상(%) | 0.2 | 0.2 | 0.1 | 0.1 |

* 자료 출처: 촌 관리자/중국 통계청관리자의 인터뷰 서술에 따라 정리⁴⁾

B 마을의 인구구성을 보면, 호수는 627호이고, 호적상 인구수는 1,875명이다. B 마을의 상주인구는 1,641명으로 호적상 인구수보다 작지만 인구크기는 A 마을보다 크게 나타난다. 상주인구 중 55세 이하의 인구비중도 42%로 A 마을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55세 이상의 인구비중은 58%로, 60세 이상의 노인비중도 26.6%로 여전히

3) 조사대상 인구를 계속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귀속시켜 계산한 인구

4) 이와 관계된 중국의 법에 따라 이 자료에 대한 외부인의 접근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지역의 관리자나 통계청관리자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고령화 지수는 높게 나타난다.

C 마을의 인구구성을 보면, 호수는 930호이고, 호적상 인구수는 2,369명이지만, C 마을의 상주인구는 1,641명이다. 상주인구 중 55세 이하의 인구 비중은 76.4%로 A, B 마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A와 B 마을보다 C 마을에서 젊은 층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C 마을에서 55세 이상의 인구비중은 23.6%이지만, 60세 이상의 노인비중이 23.4%로 고령화 지수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D 도시의 경우, 인구구성을 보면 호수는 34,300호이고, 호적상 인구수는 145,676명이지만, 실제 상주인구는 180,859명으로 농촌과 다르게 상주 인구수가 호적상 인구수 보다 많이 나타난다. C 마을과 마찬가지로, D 도시의 55세 이하의 인구비중은 77.4%로 나타났고 55세 이상의 노인비중이 22.6%로 나오지만, 60세 이상의 노인 비중은 6.8%로 낮은 편이다.

이상의 고찰을 보면, 인구 구성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먼저, 도시의 상주인구가 농촌의 상주인구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이는 도시가 농촌으로부터 인구를 유입함으로써 농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도시의 인구는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적상의 인구수와 상주인구수의 차이를 보면 드러나듯이, D 도시는 주변의 농촌으로부터 인구를 유입하여 다른 세 마을보다 절대적 인구수가 상주한다. 또한, 젊은 층의 구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A, B 두 마을 보다 C 마을과 D 도시에서 55세 이하의 젊은 층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젊은 층의 상주인구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경제적 이유와 관련이 있다. D 도시는 젊은 층이 유입되면서 젊은 층의 비중이 높은 반면, C 마을은 도시화, 산업화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젊은 층의 도시로의 이주가 줄어들었다. 이는 도시화, 산업화가 젊은 층의 인구이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피셔(Fisher, 1984)는 서구의 소설과 문헌들에서 서구인들이 도시보다 전원, 농촌 생활을 선호해 왔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서구인들이 현실적으로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보다 농촌에

서 도시로의 이주가 더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도시로의 이주는 역사적이고 전 세계적인 행태이다. 그렇다면 농촌(country)에 대한 선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도시로 이동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이유이다. 도시는 농촌보다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Fisher, 1984: 22).”

농촌에 거주하는 젊은 층들은 마을 근처에 적당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마을에는 외래 유입 인구가 없고, 젊은 사람들은 취학이나 취직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변화는 가구형태에서도 보인다.

<표 2-2> 조사지역의 가구형태 특징

| 특성 | 구분 | A마을 | B마을 | C마을 | D도시 |
|----------|----------|-----|-----|-----|-----|
| 가구 형태 | 자녀 동거(%) | 10 | 35 | 20 | 40 |
| | 노인 부부(%) | 89 | 60 | 80 | 58 |
| | 노인 독신(%) | 1 | 5 | 0 | 2 |

* 자료 출처: 촌 관리자의 인터뷰 서술에 따라 정리

가구형태의 특징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A 마을에서 거주하는 촌민은 거의 80%이상이 1세대 노인 부부이다. 이러한 인구 구성은 A 마을 근처에 적당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마을에 외래 유입 인구가 없고, 젊은 사람들은 취학이나 취직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A마을에서 두 세대가 거주하는 가정은 10% 정도에 지나지 않은데, 이들마저도 가까운 도시나 향진기업에 취직한 젊은 사람이 가끔씩 집에 와서 부모와 같이 거주하거나, 도시에서 주택을 구하기 힘든 젊은 사람이 이 마을에 거주하러 왔다가 가는 식이다. 이들을 제외하고는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타 지역으로 멀리 떠나 취업하여 명절 때만 돌아와서 부모와 같이 지내는 형식이다(표 2-2).

B 마을에서 거주하는 촌민은 거의 60% 이상의 1세대 노인 부부이고 2세대 가정이 35%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젊은 사

람들이 생활하기에는 마을의 생활 시설이 도시나 타지보다 편리하지 않아 가까이에 있는 도시로 이주한 상태이며,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일하기 편한 마을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한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이 자녀를 따라 이주하는 경우도 있다.

C 마을 노인들의 가구 형태는 자녀들과의 분가한 경우가 80%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다수의 젊은 층들이 노인과 아파트의 상층과 아래층에서 가깝게 살고 있다.

D 도시의 경우에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40%로 나오고 노인 부부만 분가하는 경우도 58% 정도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보듯, 도시화와 산업화는 가구형태에서도 차이를 드러낸다. 상주인구와 젊은 층 인구가 적은 마을은 노인부부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도시로 갈수록 동거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C 마을의 경우 별거가 높게 나타나지만, 아파트의 아래층과 위층으로 생활해 사실상 자녀 동거와 다를 바 없다.

물론 동거나 별거 사실 자체가 가족부양 돌봄 기능의 약화로 등치되기는 어렵다. 즉 확대가족의 감소가 곧 부양의식의 변화가 설명하지는 못한다. 노인독신 가구의 증가는 노인의 경제적 지위의 개선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거하는 상황에서 세대간 지원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거해도 가족부양의 규범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김두섭 외, 2001)

마을의 인구구성과 가구형태의 고찰에서 주목되는 점은 농촌지역에서 오히려 핵가족화가 더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도시화 수준이 낮은 A 마을은 자녀 동거 비율이 낮고 노인 부부만 생활하는 가구가 많은 반면, 도시화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갈수록 자녀 동거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C 마을에서 보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녀동거는 전술했듯이, 실질적 동거나 다름없는 아파트 아래층, 위층의 거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농촌지역일수록 핵가족화가 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노인부부와 어린 자녀들만 거주하는 농촌, 이른바 ‘공심촌’⁵⁾의 문제도 이러한 농촌의 핵가족화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핵가족화는 농촌인구의 산업화된 도시로의 이주 때문에 일어났다. 서구 가족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던 구조 기능주의적 시각에 의하면, 산업화에 따라 생산 기능이 가족 밖으로 이동하면서, 구조적으로는 핵가족화 되고, 가족의 기능은 축소되고 약화되었다. 특히 산업 사회는 가족 구성원들의 지역적 이동과 사회적 이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핵가족이야말로 그러한 사회구조에 가장 적합한 가족 구조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농촌 또한 전통사회가 아닌 산업사회의 영역 속에 편입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가족구조의 변화는 산업화, 도시화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경제 체제가 변화하면서 산업화에 따라 사회 각 방면에 변화가 발생하듯, 가정도 생산 방식, 생활 방식에서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경험한다. 복잡하고 규모가 큰 가족 구조가 간단하고 규모가 작은 핵가족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에 조사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대한 설명하겠다.

2. 조사지역의 경제구조

조사지역의 산업구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A 마을은 도시와 거리가 먼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와 연결되는 도로가 하나만 있다. 교통이 불편하고 지리적인 위치가 떨어져 있어 인근에는 공장이나 기업이 없다. 이 마을의 산업은 농업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정부가 경작지(farmland)를 엄격하게 관리하여서 A 마을에 속하는 경작지는 모두 농사에 이용된다. 이 지역의 주요 작물은 옥수수와 소매이며 이를 판매한다. (표 2-3)

5) 농촌에서 노인과 아동만 남아있다는 뜻이다.

B 마을은 도시와 거리가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며 교통이 편리하다. 지리적인 위치는 외지지만 근처에 화학 공장이 하나 있으며 가까이에 향진기업인 제지 공장이 있다. 이 마을의 주요 산업 역시 농업으로 최근 몇 년 간 정부의 경작지(farmland) 관리가 엄격하였기 때문에 B 마을 경작지 모두 농사에 이용되고 있다. 이 지역의 주요 작물 또한 옥수수와 소매이며 이를 판매한다.

<표 2-3> 조사지역의 산업구조

| 특성 | 구분 | A마을 | B마을 | C마을 | D도시 |
|----------|--------------|------------|-------------|----------------------------|------|
| 산업 구조 | 1차 (농업) | 옥수수와 소매 | 옥수수와 소매 | 옥수수와 소매 | 없음 |
| | 2차 (공장 등) | 없음 | 화학공업 제지업 | 공업 있음 | 공업 |
| | 3차 (서비스업) | 없음 | 구멍 가게 | 식당, 마트, 주택 임대 등 서비스업 | 서비스업 |

* 자료 출처: 촌 관리자의 인터뷰 서술에 따라 정리

C 마을은 D 도시와 지리적인 위치가 가깝다. 산업구조를 보면, 마을에 향진기업은 없지만, 집단 공동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와 지리적인 위치가 가까워서 농업 뿐만 아니라 2, 3차 산업도 형성되어 있다. 즉, 제1차적인 농업도 존재하고 제2차적 화학공업 공장과 도시와 가까운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제3차 서비스업도 존재한다. 이러한 C 마을의 산업구조의 변화는 마을의 주택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택개혁 초기, 토지보상으로 주택을 보상을 받은 일부 농민들이 자신들의 주택을 임대로 내놓으면서 임대서비스업이 나타났고, 음식점과 소매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C 마을과 D 도시와의 산업구조상의 차이는 도시에

1차적인 농업구조가 없는 것 정도이다.

C 마을과 달리, B 마을은 향진기업이 설립되어 있는 농촌으로, B 마을 역시 농촌산업화 전략을 시행했다. 아리기(Arrighi, 2012)가 지적하듯이, 중국의 향진기업은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생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 활동에 농업잉여를 재할당하는 주요 중개자”였다. <표 2-4>는 중국의 고용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표 2-4>에서 보듯이 농촌에서 향진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 수는 상당한 수준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4> 중국의 고용구조(1980-2002, 단위: 100만 명)

| 연도(년) | 1980 | 1990 | 1995 | 2000 | 2002 |
|----------|-------|-------|-------|-------|-------|
| 총계 | 423.6 | 647.5 | 680.7 | 720.9 | 737.4 |
| 도시 | 105.3 | 170.4 | 190.4 | 231.5 | 247.8 |
| 국가(SOEs) | 80.2 | 103.5 | 112.6 | 81 | 71.6 |
| 집단적 | 24.3 | 35.5 | 31.5 | 15 | 11.2 |
| 합작소유 | 0 | 1 | 3.7 | 13.4 | 18.3 |
| 외국 | 0 | 0.7 | 5.1 | 6.4 | 7.6 |
| 민간 | 0.8 | 6.7 | 20.6 | 34 | 42.7 |
| 기타 | 0 | 23.1 | 16.9 | 81.6 | 96.4 |
| 농촌 | 318.4 | 477.1 | 490.3 | 489.3 | 489.6 |
| TVEs | 30 | 92.7 | 128.6 | 128.2 | 132.9 |
| 민간 | - | 1.1 | 4.7 | 11.4 | 14.1 |
| 자영 | - | 14.9 | 30.5 | 29.3 | 24.7 |
| 농민 | 288.4 | 368.4 | 326.4 | 320.4 | 317.9 |

자료: Prasad, China's Growth and Integration into the World Economy, <표 8-1>, Harvey, 2007에서 재인용.

이러한 향진기업은 노동집약적 성향으로 인해 도시 지역으로의 대규모 이주 증가 없이 농촌 지역의 잉여 노동을 흡수하고 노동을 증가시켰다. 또한 향진기업은 농촌 지역의 주요 세원이 되어, 농민들

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 안정성에도 기여했다(이리기, 2008).

이처럼 중국의 농촌지역에 향진기업이 설립되어 마을의 노동력 이용과 재원을 마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B 마을공동체는 공동으로 한 공장을 경영했으며, 이는 농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향진기업은 마을공동체의 수입을 통해 필요재원을 공급하여 마을농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발전, 단순한 상품시장에서 소비자 시장으로의 변화, 경제적 세계화 등 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B 마을의 공장은 폐업을 하게 되었다. 현재 B 마을의 향진기업인 제지 공장은 마을 공동체가 아닌 개인이 투자하는 향진기업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네 지역은 산업구조의 발달 정도가 다르며, 도시로 갈수록 2, 3차 산업이 발달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산업구조의 차이와 함께, <표 2-5> 조사지역의 소득분포 및 직업분포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마을 주민의 소득과 직업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표 2-5> 조사지역의 소득분포 및 직업분포

| 특성 | 구분 | A마을 | B | C | D |
|----------|----------------|-----------------|-------------------|--------|--------------|
| 소득 분포 | 1인당 연소득(위안) | 8,000 ~9,000 | 12,000 ~15,000 | 25,000 | 30,000 이상 |
| | 농업 수입(%) | 50 | 20 | 5 | 0 |
| | 비농업 수입(%) | 50 | 80 | 95 | 100 |
| | | | | | |
| 직업 분포 | 농업 | 50 | 10 | 10 | 0 |
| | 겸업농가 | 30 | 50 | 10 | 0 |
| | 비농업 | 20 | 40 | 80 | 100 |

* 자료 출처: 촌 관리자의 인터뷰 서술에 따라 정리

A 마을에서 거주하는 자의 50% 정도는 농산물을 위주로 하는 농업에 종사하고 30% 정도는 농업에 종사하지만 잉여 시간에서 아르

바이트 형식으로 비농업 생산에도 종사한다. 나머지 20% 정도의 사람만 농사를 짓지 않고 향진기업에 취직하거나 타 지역으로 나가서 취직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2014년 A 마을의 인구 1인당 연소득은 8000~9000 위안이고, 그 중에서 농업 소득과 외출 취업 소득이 각각 반반씩 차지하고 있다. 소득만 보면 A 마을의 인구 소득이 제일 낮게 나타난다. 이는 농업만으로는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B 마을 근처에 공장이 있는데 이에 따라 마을에서 거주하는 10% 정도는 농산물 생산을 위주로 하는 농업에만 종사하고 있으며, 50% 정도는 농업에 종사하기는 하지만 잉여 시간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비농업 생산에도 종사한다. 나머지 40% 정도는 향진기업에 일자리를 얻거나 타 지역에서 취직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2014년 B 마을의 인구 1인당 연 수입은 12,000~15,000 위안이고, 이 소득은 농업 소득과 공장 근로 소득, 외출 취업 소득을 포함하고 있다. 연 소득만 보면 A 마을 보다 조금 올라간다.

2014년 C 마을의 1인당 연 수입은 25,000 위안 이상이고, 그 중에서 대부분이 주택 임대나 서비스업, 자영업 등으로 얻은 수입이다. C 마을의 경제적인 구조가 D 도시와 큰 차이가 없기에 인구의 소득 분포와 직업 분포도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C 마을은 여전히 농업수입이 가지고 있고 소득도 D 도시보다 조금 적게 나온다. 그러나 소득만 보면 농촌 마을에서 제일 높게 나타난다.

<표 2-5>에 나타난 것처럼, D 도시의 1인당 연 평균수입은 30,000위안 정도로 네 지역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농업이 아닌 비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도시의 주변인구를 유인하여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주변의 농촌에서 농산물을 흡수하여 소비하는 도시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상의 고찰은 도시화, 산업화가 제공하는 각종 경제적 기회의 확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발달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했고, 소득의 증대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삶의 질이

올라 갈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반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는 소득이 적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겸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화, 산업화는 마을의 상이한 경제적 특성을 형성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표 2-6> 조사지역의 마을공동체의 경제상황

| 특성 | 구분 | A | B | C |
|-----------|---------|-----------------|-----------------|-----------------------------------|
| 마을 공동체 | 연소득(위안) | 80,000 | 200,000 | 3,000,000 |
| | 수입원 | 정부보조금과 공중 지대 | 정부보조금과 공장 지원 | 마을 공동체 투자와 토지 임대 |
| | 공동 재산 | 마을 사무실 | 마을 사무실 | 유치원, 사무동, 초등학교 등 총 2000만 위안 |

* 자료 출처: 촌 관리자의 인터뷰 서술에 따라 정리

산업구조의 변화는 개인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고 마을의 집단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 마을의 공동의 토지의 사용을 둘러싸고 지역에 따라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마을공동 토지의 사용에 따라 수입의 차이도 드러나고 있다.

A 마을은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지리적인 환경으로 인해 집단 경제의 수입원은 정부를 제공하는 보조금과 마을에 한 공동토지를 임대하는 수입만 존재한다. 마을 공동재산도 없고 집단의 연수입이 8만 위안 정도이다.

B 마을에는 기업이 있어서 이 기업이 마을의 공동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마다 공장에서 마을 관리 부서에 15만 위안 정도의 임대비를 마을공동체에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B 마을에 있는 기업이 개인이 운영하는 향진 기업이어서 이 기업의 경제 소득은 B 마을의 집단 경제와는 관련이 없다. 해마다 B 마을에 15만 위안 정도의 임대비 지불로 경제 지원을 제공할 뿐이다. 나머지

마을 관리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C 마을의 경우는 토지를 임대로 집단적인 수입이 있어 마을공동체의 관리자도 마을의 토지개발이나 공장이나 집단 투자 등의 수단으로 집단의 연 수입이 3백만 위안으로 A나 B 마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외에도 마을 집단소속하는 시설이 사무실 이외에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도 존재한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수준은 이처럼 마을공동체의 수입과 운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3. 조사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조사지역들은 생활방식과 사회문화적인 특성에서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2-7>은 A, B, C 마을의 주택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2-7>에서 보듯이, 주택상황은 세 마을의 도시화 정도를 보여준다. 농촌지역인 A, B 마을의 주택 상황과 도시화가 진척되고 있는 농촌지역인 C 마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표 2-7> 농촌지역의 주택 상황

| 특성 | 구분 | A, B | C |
|-------|----|---|--------------------------|
| 주택 상황 | 규모 | 큰 면적의 토지가 필요함 | 1인당 40 m ² 이상 |
| | 형태 | 농가구 방치, 식량 말리기, 가축사육 및 간단한 농산물 가공 용지를 포함하는 전통적인 농촌 정원이 있는 주택 | 신축 아파트 |

* 자료 출처: 촌 관리자의 인터뷰 서술에 따라 정리

중국의 토지소유권은 헌법 10조와 물권법 59조에 의거, 국가에 귀속되는 사회주의토지공유제(社會主義土地共有制度)를 근간으로 한다. 이에 의하면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은 분리되며 토지소유권은 도시지역의 경우 국가에, 농촌지역의 경우 농민집체에 귀속된다.

즉, 각 지방의 농촌지역은 농민 개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촌민 전체가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 건물 등 부동산 개발의 필수자원인 토지의 확보는 국가의 재량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농민집체소유 토지도 법적으로 농민들이 직접 개발할 수 없으므로 국가에 수용되어 국유토지로 변경된 후에야 부동산 개발에 투입될 수 있다. 이 부동산 개발을 위한 토지사용권의 분배는 ‘출양(出讓)’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출양이란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시와 현금 이하의 지방정부가 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하며 토지사용자는 해당 지방정부에게 토지출양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재양도 임시조례’에 의하면 토지사용권의 기한은 주택용지 70년(만료 후 자동연장), 공업용지 50년, 상업용지 40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도시의 토지사용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다. 즉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아파트 살아도 단순히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 있고 토지의 소유권은 없다. 또한 이런 토지소유권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불평등 현상은 중국 특색의 도시화의 현상이기도 하다.

농촌지역인 A 마을과 B 마을의 주택은 일반적으로 농기구 보관, 식량 말리기, 가축사육 및 간단한 농산물 가공 용지를 포함하는 전통적인 농촌 정원이 있는 주택이다. 농사를 위해 큰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다. 이 토지는 개인 소유이며 사용권을 가지지만 판매 권리는 없으며, 거주하는 경우 넓고 독립적인 공간을 갖추게 된다. 이 마을의 주택은 여전히 전통적인 기와집이다. 이러한 주택은 거주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층이 좋아하지 않아서 마을의 외래 인구는 거의 없다.

C 마을의 경우, 중국의 지역 토지개혁정책으로 인해 주택만 도시

화되어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농업을 위한 넓은 공간에서 아파트이라는 형식으로 주택지가 바뀌었기에 거주방식이 도시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C 마을은 농촌지역 중에서 도시화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8> D 도시의 주택 상황

| 특성 | 구분 | 내용 |
|-------|----|------------------------|
| 주택 상황 | 규모 | 1인당 23.6m ² |
| | 형태 | 아파트 혹은 단위의 복지주택 |

* 자료 출처: 지역 통계청 관리자 인터뷰 수집 자료 정리

<표 2-8 >는 도시지역인 D 도시의 주택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도시는 농촌과 다르게 아파트에서 거주하지만,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주택의 면적이 농촌보다 작다. 또한 현재 단위의 복지주택 이외에 다른 모든 주택이 상품주택으로 되어있다. 중국 도시지역에서는 복지주택의 하나로 단위에서 연공서열에 따라 주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도시화가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 도시지역의 수입증가와 상품주택의 등장으로 복지주택을 제공하는 단위는 줄어들게 되며 연공서열의 전통으로 노인들이 복지주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정년들은 직장에 다녀도 복지주택을 받기 어려운 상태이다.

<표 2-9 > 농촌 지역의 사회 문화적 특성

| 특성 | 구분 | A, B | C |
|------------|-------|-----------------|-----------------|
| 가구의 세대별 구성 | 가족 단위 | 가까이서 노인 부양함 | 가까이서 노인 부양함 |
| | 마을 단위 | 서로 도와주는 의식이 존재함 | 서로 도와주는 의식이 존재함 |

* 자료 출처: 촌 관리자의 인터뷰 서술에 따라 정리

물론 C 마을이 주택 개혁을 한 후 도시화의 정도는 A, B, C 세 마을 중에서 제일 높은 편이지만, C 마을의 노인 부양 관습은 A 마을이나 B 마을과 큰 차이가 없다. <표 2-9>의 농촌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서 보듯이, 도시화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여전히 마을 단위의 공동체적인 특성이 존재하고 있다. 농촌에서 노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이나 신체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 주체는 마을공동체 이라는 행정부서이다.

농촌의 노인 부양관습은 중국 사회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신중국의 건립초기, 중국정부는 전국 농촌지역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지파시(淄博)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53년에 전 중국지역에서 기본적으로 개혁을 완성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농촌은 집단화 시대에 들어섰다. 이 기간에 농촌의 모든 일상생활, 농경작업 등은 통일적으로 관리를 하였다. 사람들은 공공식당에서 “대중식사(大鍋飯)”를 하였고, 노동은 시간당으로 계산되었으며, 팀에서 생산계획과 농업용 생산 자료를 분배하였다.

토지개혁과 집단화는 당시의 경제제도를 변화시켰고, 동시에 농촌 가정구조의 유형도 변화시켰다. 그 중 가정관계의 주축은 부자관계로부터 부부관계로 전환되었고 부녀의 지위가 점점 중요하게 되었다. 주간가정이 점차 적어지고 핵심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결혼한 아들들은 예전의 부모와의 동거가 아닌 분가를 택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토지는 그래도 노인의 명의로 분배된다. 엄격하게 말하면 분가는 단지 따로 식사를 하는 것을 가리킬 뿐 생산 자료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농작도구도 예전과 같이 함께 사용한다. 집단화시대에 진입한 후에 농민들 손에는 토지, 생활 자료가 없고, 순 노동으로 작업시간을 쟁취하고, 노동력이 없는 노인들은 집단으로 포섭되었다. 대 생산 팀에서 밥도 못 먹고, 노동력이 없는 촌민은 작업시간이 없으면 빈곤호로 취급해서 집단에서 나눠주는 음식으로 생존을 보장하고 있다. 이 시대에서는 가족부양

의 기능이 약화되고 세대간의 상호수요가 감소되고 가정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호환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1980년 농촌에서 제2차 토지 대여제도가 실행되었다. 이번에는 토지를 조별로 나누어 가호에 따라 분배하였다. 소조 내에서 값진 공공재산, 예를 들면 소를 팔고 그 수익을 균등하게 매개 가호에게 분배해준다. 80년대 초기에 이르러서 개혁개방 이후에 농촌에서는 집단화로부터 가정연합대여와 간부로부터 호까지의 전환을 완성하였다. 이 말인즉 그들의 수익이 다시는 인민공사 시기의 평균분배가 아니라 각자의 노동성과에 달려있다. 즉, 일을 많이 하면 소득도 많다. 가정연합대여책임제도는 농민이 토지소유권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토지에서 얻은 농작물은 모두 개인의 소유로 된다. 이는 대대적으로 농민의 노동 적극성을 증가시켰다, 이때로부터 가정을 단위로 하는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사람들이 가정을 단위로 하는 노동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가족내부성원 지간의 상호교류도 많아지고 이익왕래도 밀접해졌다.

그 후에 농촌에서 제2차 토지조정을 실시하였는데 이번 조정은 단순히 미세한 조절이 있을 뿐 큰 변화는 없었다. 이 시기에 자녀에게 땅을 사주는 것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아들에게 사주었다. 그 후에 농촌에 농용기계가 나왔고 자기 스스로 농경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90년대 초기에 이르러서 외출 건축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나타났다. 그때부터 젊은 사람들이 외출 노동하여 노인들이 집에 남겨진 사람들은 주요하게 노인, 그리고 집에서 노동하는 중노년들이다. 이러한 노동과 생산방식은 지금까지 유지되었다. 또한 그 시기부터 밭이 가호에 분배된 후에, 촌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얻게 되었고 이때 아들이 장가를 가고 나서 부모에게 분가분전(농촌에서 딸이 시집간 후에 처갓집의 분전에 관여를 못한다)과 독립을 요구한다. 보통 모두 분을 분가의 징표로 한다. 즉 부부와 부모는 경제적으로 분리되고 화식면에서도 독립하는 것이다. 점차적으로 가정구조는 주간가

족으로부터 핵심가족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분가는 단지 주택, 화식의 분리 뿐 만아니라 가정재산의 독립을 가리킨다. 노인들은 다시는 젊은이 세대의 집주인으로 될 수 없고, 분가를 한 후에 아들이 돈을 벌어서 다시는 노인에게 주지 않고 자신한테 쓰는 것으로 지배권이 있다. 그리고 아들은 다시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관습에 따라 아들과 부모가 한촌에 있어, 자녀가 결혼 후에는 부모에게 돈을 받아서 새로운 집을 세우고 가까이 살고 있다는 방식으로 노인 부양한다. 이곳에서는 보통 아들이 결혼하면 부모는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새로운 집을 지어 주고 같은 아당에 살게 한다. 그러나 물론 같은 아당에 살게 되어도 노인의 노동력이 있다고 하면 아들이 부모를 부양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부모들이 노동력이 상실하게 되면 관습에 따라 노인의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노인의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노후를 부양하거나 노인은 재산을 아들에게 평균으로 나눠서 부양하는 책임도 나뉘었다. 또한 노인들이 같은 마을에서 거주하는 자는 대부분 친인척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 집에 노인을 아프거나 서로 돌보는 관습도 존재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전에 도농을 이원화한 강력한 호구제도를 실시하였는데, 도시주민은 공업, 농민은 농업에 종사하였고, 도농 간의 복지체계도 달랐으며, 복제체계를 제공하는 주체도 다르다. 도시노인의 경우는 퇴직 후 연금이 있었고 의료혜택 등의 여러 가지 복지혜택은 노인의 근로하는 직장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즉 기관, 사업기관의 근로자에 근로하는 단원에서 근로자 인금의 총액에 비례하여 양로 보험료를 제공한다. 직장이 없는 개인은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신체적인 돌봄의 서비스는 노인의 거주하는 사구(社區)에서 실행한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의 승리 이후, 수십 년 동안 중국 당국은 중국의 가족 사회에 새로운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였는데, 그 결과는 이처럼 때로는 서로 상반되었다. 중국에서 실시된 일련의 사회 설계와 정책은 단순히 중국의 전통적인 가족을 파괴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이다. 경제 집단화와 사유재산의 폐지는 종래의 가족적 권위에 기초해 있던 경제적 동기를 파괴하였다. 그러나 거주 이전의 엄격한 제한은 성인들을 출생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세대 간의 상부상조와 가족 간의 사회적 유대를 유지시켜 가족 체계의 안정과 강화에 기여한 측면도 존재한다(이경아, 2004). 단위사회주의에서 중국 도시 가족의 부양 역할은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는 제한적이지만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 가능한 토대를 구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개혁 가속화에 이은 2000년대 전면 개혁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도시 단위제는 해체되었다(이경아, 2004). 단위 위주 사회보장의 해체와 시장화에 따라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중국의 복지체제는 기본적으로 초기단계에 놓여 있으나 그 기본 성격에 있어 잔여적 복지모델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김병철, 2010). 이는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요구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개인과 가족 그리고 시장이 담당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위보장제하의 경제적 자원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노년층이나 새롭게 도시로 편입된 도농접합 지역의 농촌 출신 노인과 같은 경우 자신들의 의탁 및 보살핌과 관련된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그 대안적 해결은 가족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1990년 중반 들어 중국 당국이 법규와 정책 등을 통해 개별 가계에 대한 양로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한 이유 역시 이런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단위복지 체계의 해체에 따른 양로 보장의 공백 영역을 메우기 위한 해답을 전통적인 가족양로의 관행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표 2-10>에서 보듯이, D 도시의 도시호적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대부분은 퇴직 양로보험을 가지고 있다. 퇴직 양로보험이라는 이름의 중국 연금제도는 사회 보험제도의 하나로 이미 1980년 중반부터 여러 지역에서 시범시행을 거쳐 1997년 국무원의 통일적인 기본 연금제도 설립에 관한 결정으로 일단 제도적으로 정비됐다. 연금제도가 실업, 의료 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보다 가장 빨리 정

비된 것은 개혁개방에 따른 국영기업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중국이 60세이상의 노인이 총인구의 10%를 차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전 계획 경제하에서는 평생 직장을 보장하는 테판완(鐵飯碗, 철밥통), 테공즈(鐵工資, 균등임금), 테즈웨이(鐵職位, 직위보장)등 이른바 3첵(鐵)을 통해 국영기업이 근로자의 평생을 책임져 사회 보험의 필요가 없었다. 국유기업 등은 그러나 개혁개방 후 근로자들의 평생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복지부담 때문에 구조개혁을 단행하기 어려웠고, 정부는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류정희, 2015).

<표 2-10 > D 도시의 사회 문화적 특성

| 특성 | 구분 | 내용 |
|------------------|-------|------------|
| 가구의 세대별 구성 | 가족 단위 | 동거 부양함 |
| | 단위 중심 | 퇴직급여나 양로보험 |
| | 사구 중심 | 해당 없음 |

* 자료 출처: 지역 통계청 관리자 인터뷰 수집 자료 정리

한편, 농촌에 비해 도시노인은 토지 소유권이 없이 사용권만 있기에 주택을 사는 것도 큰 돈이 들어서 많은 젊은 층이 주택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시에서의 인간관계는 농촌사회와 많이 다르다. 도시에서 개방적인 공간 내에서 사람들 간에 더욱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 하고 있다. 도시인들은 반드시 깊은 연대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삶에 더욱 집중한다.

4. 소결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성과 경제 구조, 사회문화적 특성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인구 구성, 가구의 세대별 구성, 가구 형태, 노인 연령 집단을 통해 분석한 바에 의하면 A, B, C, D 지역의 인구구성의 차이가 나타난다. 인구구성에서 상주인구 수와 젊은 층의 상주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오히려 핵가족화가 더 뚜렷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중국의 도시화의 과정에서 보면 도시화 수준은 도시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공공 서비스 공급이 충족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화에 동반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A, B, C, D 지역의 인원의 소득도 차이가 생기고 인원의 취업기회에 차이도 생긴다. 도시로 갈수록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났으며, 이들의 소득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농간에 소득과 생활 수준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도시발전에 따른 또 다른 변화는 인간 생활방식의 변화와 환경의 개선이다. 도시 생활방식은 도시의 특정 주민생활 조건이 거주민의 주민생활에 미치는 특수한 영향으로 형성된 생활방식이다. 특히 생활방식의 변화는 도시화 수준의 중요한 현상이기 때문에 주택 상황과 가구의 세대별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특성의 변화도 보인다. 도시로 갈수록 거주방식은 면적이 좁은 아파트 주거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생활공간의 변화는 주거의 변화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요약하면 각 지역들이 인구구성과 경제구조, 생활방식 및 사회문화적인 특성에서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들이노인의 부양 기대와 방식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다음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제 3 장 노인 부양기대와 방식의 변화

1. 개혁개방 전후 중국 부양방식의 변화

중국의 노인 부양방식에 대한 고찰은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의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그 이해를 높여준다.

신중국의 성립이후 1978년 개혁·개방에 이르는 30여년의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 국가와 단위(單位)가 사회보장의 책임을 지는 ‘단위보장제’ 체제로 특징지어진다(류정희, 2015). 도시에서의 단위보장과 농촌에서의 집체보장으로 이원화된 단위는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단위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 개인 및 가족의 일상 생활을 책임지는 생활의 공간이었다.

도시에서의 단위는 노동자들에게 종신고용을 보장하고, 저임금이기는 하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그 외 에도 교육, 의료, 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도시에서 중공업을 중점사업으로 하는 단위는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 그리고 국영기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는 그 성격상 기업체와는 다르다. 국가기관은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권력 국가기관, 행정국가기관, 그리고 사법국가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단위는 교육, 과학기술, 보건위생, 문화 등 국가가 설치한 공익성을 띠는 기관으로 그 예로서 학교나 병원 등이 있다. 이러한 단위에서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복지는 ‘철밥통(鐵飯碗) 시스템’이라고 불리워졌다. 또한 도시의 경우에는 완전고용제도를 실행한다. 즉 완전고용, 생애고용의 원칙에 기초한 저임금 복지(low wage but high welfare)가 특징이다. 반면, 토지개혁과 집체화를 통해 토지의 집단소유화가 진행된 농촌에서는 1958년 인민공사(人民公社)가 집체보장의 기층조직이 되었으며, 농촌의 경제·사회·행정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농촌의 집체보장을 실행하여 각 마을공동체에 형성되었던 인민공사나 생산대(生產隊)라는 생산단위로 집중적인 복지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의 사회복지체제 하에서도 도시의 단위보장 또는 농촌 집체보장으로부터 배제된 ‘단위가 없는’ 주민들이 존재했다. 이들은 도시에서는 삼무(三無)계층으로, 농촌에서는 오보(五保)계층으로 분류되었다. 도시의 삼무계층은 스스로를 부양할 근로능력, 소득, 법적 부양의무자 등 3가지가 없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무의탁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포함하는 이들 세 범주의 삼무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부조 프로그램이 1950년대에 시작되었고, 중국의 기본적인 사회부조제도로 기능했다. 이런 복지제도는 도시의 경우 삼무(三無)계층이 거주하는 민정부문과 사구(社區)라는 지역사회(community society)를 중심으로 시행했다. 한편, 농촌에서는 전국적인 농업합작화가 진행되면서 인민공사가 수립된 후,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아동, 과부, 장애인 또는 무의탁자 등 근로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한 계층을 오보(五保) 제도의 대상자로 분류하여 음식, 피복, 주택, 의료, 장례(吃, 穿, 住, 医, 葬)와 같은 다섯 가지 기본 욕구-아동의 경우, 장례 대신 교육-에 대한 지원을 제공했다(鄭功成, 2003). 이상과 같은 삼무제도와 오보제도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산조사 방식의 공공부조 제도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노인들은 안정적인 노후 부양을 기대할 수 있지만 보장 수준이 낮았다. 노인들은 또한 가족의 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노부모와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관계였다.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과거에 계급적으로 지주였거나 반혁명의 선두에 섰던 일부 노인들은 제외되지만 대다수의 노인들은 존경받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노인들의 가족 내 지위도 강한 통제권은 없었지만 여전히 존경과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집단농업시기 농촌 노인은 생산대에서 일하여 임금을 받거나 은퇴 후에도 가정부업으로 소득을 올리는 등 가족소득에 기여하고 있었다. 물론 가족이 생산의 단위이면서 소비의 단위로서 기능하였기 때문에, 가족 성원의

생계책임이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집단적인 사회보장제도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제적 부양은 마을 공동체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집단화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보장 장치들이 마련되어 자녀가 없는 노인도 기본 생계는 충족될 수 있었다. 아울러 집단 농업 생산물의 분배에서 공분에 따른 분배 이외에 식구수에 의한 분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노인이 있다해도 가족이 부양하기가 한결 쉬웠다. 신체적 부양의 경우에도, 신체적인 돌봄의 역할은 주로 가족을 담당하고 있지만, 마을공동체가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에 노인의 신체적인 부양을 여전히 보장할 수 있었다 (이경아, 2004) .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계획경제 하의 단위보장제가 약화되고 ‘국가-단위-개인-시장-지역사회-가정’간의 관계가 점차 다원화되면서 사회보장제도 또한 재편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의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는 고용구조와 노동계약의 변화, 그리고 신빈곤층과 농민공의 등장으로 구체화 되는데, 이러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사회보장체계 개혁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시장경제의 도입은 고용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며 이는 고용에 근간을 둔 단위보장제 하에서의 사회복지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국영부문과 민간부문의 고용노동자 비율은 개혁·개방이 도입되었던 초기 1978년, 국영부문에 종사한 도시노동자의 비율은 78.3%, 집체부문에 종사한 노동자는 21.5%에 이르렀으며,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0.2% 미만에 불과했다. 1990년 이후 사기업이나 외국투자기업과 같은 민간부문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국영부문 노동자의 비율은 1998년 43.8%로 감소하였다(신현방, 2005). 이에 따라, 국영기업이 주축이 되었던 기존의 단위보장제로는 급격하게 증가한 민간부문의 노동자를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1986년 노동계약제가 실시됨에 따라 단위보장제에서 기초로 하고 있던 종신고용제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신규노동자

들은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되었으며 노동자들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또한, 단위에서의 완전고용을 토대로 사회보장체계가 제공했던 기본적인 생활의 욕구에 대한 보장은 불가능해졌으며,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복지체계를 개혁하는 작업이 시급해졌다.

마지막으로, 개혁·개방정책 이후 비국영기업의 증가와 국영기업의 개혁으로 인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했으며, 그 결과 대다수 도시노동자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1996년 전체 2억의 도시노동자 중 하강(下崗)등을 통한 실질적인 해고상태에 처한 노동자가 14%, 2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신현방 2005). 여기서, 하강노동자란 면직(免職)상태에 있는 노동자로서 기업과의 고용-피고용 관계에 있으나 실업의 전 단계에 있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신현방, 2005). 중국정부의 공식 실업 관련 통계는 도시지역 호적이 있는 인구 중 노동능력과 취업의사가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국영기업에서 해고된 하강노동자들이나 농민공들은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농민공은 농촌 호적을 가진 도시의 근로자로 현재 약 2.4억 명으로 추정되는 근로빈곤층으로 이들을 포함하면 실업문제는 훨씬 심각한 상태에 있다. 실제로, 2000년대 공식 실업률 3~4%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다수의 연구에서 실제 실업률은 8~24%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한국은행 국제경제부, 2014).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방식을 통한 사회보장의 확보와 공공부조를 통한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류정희, 2015). 그러나 새로운 사회보장체계는 도시-농촌 간의 격차, 고용 중심 체계, 적용 범위의 제한 속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게 된다.

첫째, 새로운 사회보장체계 하에서 도시와 농촌의 소득과 사회보장의 수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정공성 외의 연구(2012)에 따르면,

개혁개방 이후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 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선 도시노동자의 복지, 후 농민 복지로의 확대라는 단계론은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장의 수혜 격차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다.

둘째,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보장체계는 고용을 중심으로 한 체계로서 고용에서 배제되거나 불완전한 고용 상태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이 매우 미비하다. 개혁개방 이전의 사회보장체계에서도 고용 중심의 체계였으나 완전고용, 생애고용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개혁개방 이후의 변화와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라는 사회보장의 틀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적용 범위가 낮은 한계를 지닌다. 이런 한계로 농촌 주민들,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에서 발생한 실업 인구층과 미취업 도시주민들, 농민공들 상당수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체계의 변화 속에서 노인들의 부양기대와 노후부양의 방식은 커다란 변화를 나타내게 되었다.

먼저, 노후 부양에 대한 ‘사적 부담’의 확대로 가족부양 기대가 높아졌다.

"우리는 한 평생을 자녀를 위한 살아왔다. 결혼비용도 준비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부모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 준다,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 농사도 할 수 없고 자녀도 우리를 부양해주지 않으면 우리 뭐 먹고 사냐?"(A3)

"농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땅을 짓는 농민은 그냥 땅에 나오는 것만 의지해서 생활해오는 것이지, 다른 것이 해본적도 없고..... 우리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이 평생을 농사만 하는 거죠,농사를 지속적으로 짓는데 돈은 안남아..... 노동력이 있다면 농사를 하고, 농사를 할 수 없다면 애들에게 의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A5)

"지금은 돈을 벌수 있지만 나중에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나중에) 자식들이 우리에게 돈을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B1)

“지금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어 큰 걱정이 없지만 나중에 자식에게 의지를 해야죠.....”(B2)

“당연히 애기가 우리를 돌봐야지”(C2)

“침대 앞에 효자 없는 게 돈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는 돈이 있으면 다이다. 자녀도 옆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애들이 나 돌보지 않은 게 하나도 무섭지 않다...나중에 풀어야죠.”(C5)

“퇴직금로 인해 생활은 무리가 없지만 자녀들이 (경제적 지원을)주길래 그냥 받았다. 애들이, 생활적인 조건이 좋고 엄마에게 돈이 주지만 내가 그냥 돈을 안 쓰고 그냥 받은 것이다. 지금에 양로원에 거주하고 있고 돈이 많이 들고 애들이 돈을 안주면 갈수 없잖나.....”(D4)

위에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국가-단위 부양이 약화되면서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노후를 맡기려는 기대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국가와 단위에 의해 안정적으로 보장되었던 노인들의 노후 부양은 공적 부양에서 자기부양과 가족부양의 사적 부양 방식으로 변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재산은 안 남았죠, 한 평생을 농사를 지어 왔고, 땅밖에 모른다. 젊은 때 나가고 싶었지만 못 나가고, 나이가 들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고, 나가도 돈을 버는 방법이 없고, 농사를 하면 굶어 죽지 않죠..... 전부터 마을에서 계속해서 있으면서 나이가 들어, 자녀들이 부양해주는 거죠.....”(A4)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병이 들었을 때 자녀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돌보나? 우리처럼 노인들이 아직은 쓸모 있다. 내가 살고 있다면 돈도 줄 수 있지 않은가?”(B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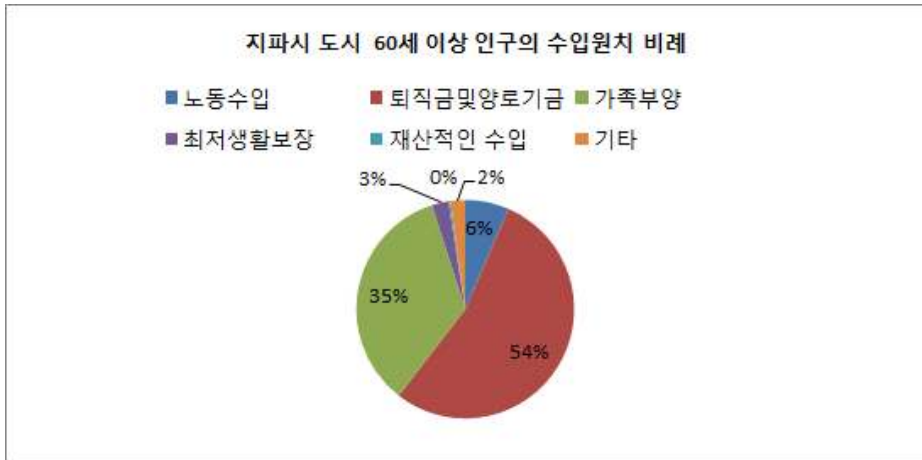
“내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양로원에 가야되나.”(C6)

사회주의 중국의 노동자들은 임노동을 통한 임금과 각종사회보장

외에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없었다. 따라서 퇴직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제자원은 퇴직 이전 마련한 가게 저축과 성인이 된 자녀로부터의 재정지원, 퇴직양로수당 그리고 특정 빈곤계층의 경우 사회부조로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개혁개방 이후의 노후부양은 개인의 소득과 국가의 사회보장의 수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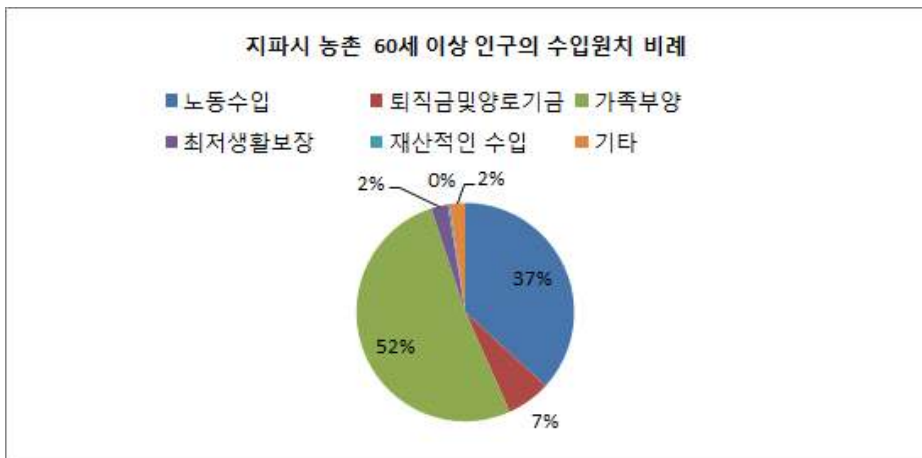
개혁개방 이후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과 사회보장의 수혜의 격차는 노인들의 노후부양에 반영되어 도시와 농촌의 부양방식에서 커다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림 4>과 <그림 5>은 2010년에 실시한 중국 제6차 전국 인구센서스 자료에 기반한 지파시 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60세 이상 인구의 수입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와 <그림 5>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지파시의 경우에도 도시와 농촌 지역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 노인들의 주된 수입원이 퇴직금 및 양로기금(54%)과 가족 부양(35%)인데 반해, 농촌 노인들의 주된 수입원은 가족 부양(52%)과 자기 노동 수입(37%)이며, 퇴직금 및 양로기금의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이처럼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보장체계의 변화는 중국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부양기대와 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4> 지파시 내 도시지역 60세 이상 인구의 수입원



출처: 중국통계구(2010), "中國2010年人口普查資料-山東省", 중국통계출판사

<그림 5> 지파시 내 농촌지역 60세 이상 인구의 수입원



출처: 중국통계구2010 "中國2010年人口普查資料-山東省", 중국통계출판사

2. 부양방식의 변화 양상과 요인

앞서 언급했듯이,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보장체계의 변화는 노인들의 부양기대와 부양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보장체계의 변화에 따라 특히 도시와 농촌지역 노인들 사이에서 부양기대와 부양방식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사례를 통해 노인들의 노후 부양 기대와 방식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과 그 요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1 인구구성에 따른 변화

2.1.1 인구구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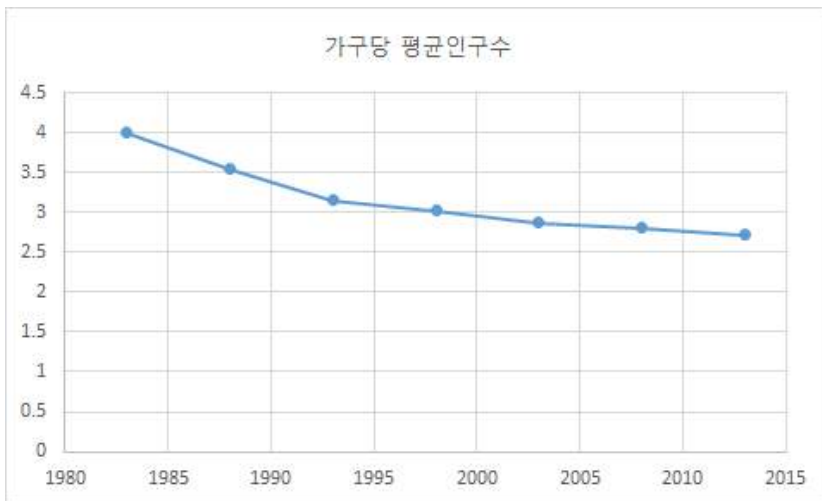
개혁 이전에 시행되었던 인구이동 및 도시화에 관한 정책은 농민에게 큰 희생을 강요하였다. 도시에서의 중공업 중심 산업 정책으로 인해 도시에서의 고용창출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국가는 도시 인구의 성장을 막기 위해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를 막았다. 따라서 농촌은 인구 과잉과 토지 부족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낮을 수 밖에 없었고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그리고 국가는 대외적 식량안보, 농촌의 자체 인구부양, 도시에 대한 낮은 가격으로 식량공급 등을 이유로 주곡 생산에 치중할 것을 농민에게 강요하였다. 또한 농민들은 농가 부업, 소규모 수공업 및 상업, 개인 서비스등 고수익 활동을 강제적으로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혁 개방 이후 진행된 도시화, 산업화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인구구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인구구성에서의 주요한 변화는 핵가족화,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가구형태의 변화이다.

첫째, 핵가족화의 경향을 보면,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의 가구 평균

인구수는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6>는 개혁 개방 이후의 중국 지파시의 가구당 평균인구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에서 보듯이, 1983년 4명에 달했던 가구의 평균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 이르면 2.72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림 6> 지파시의 가구당 평균인구수 추이(1983-2013)



출처: 지파시통계구(2014), 『2014年淄博市統計年鑑』, 지파시통계구출판사

둘째, 개혁개방 이후,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주함에 따라 농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시로의 인구 이동의 경향은 농촌지역에서도 도시화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도시화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구수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청장년층이 도시로 이주함으로써 이루어지므로, 농촌은 점점 노령화된다.

셋째, 농촌의 젊은 층들이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가구형태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농촌에서는 자녀들과 동거하는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노인 부부만이 생활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실제로 향진기업이 발전하고 도시화되어 가는 지역에서는 "토지는 버리고 고향은 떠나지 않는다" 정책이 실현되어 가족구조의 변화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직계가족의 안정적인 증가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발달이 더딘 지역에서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토지를 버리고, 고향도 떠난다"는 민공조 현상 때문에, 격세가정 및 결손가정이 늘어나는 등 발전된 농촌지역과는 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개혁개방은 농촌의 가족구조의 변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도시와 농촌에서 이러한 인구구성의 변화는 완화된 호구제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 이전의 호구제도는 주거이전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따라서 거주이전의 제한은 자녀들이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와 동거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가족이 계속 유지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인 것인데, 탁아, 노인 부양 등이 가족 내에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완화된 호구제도는 호적은 농촌에 두면서도 도시로의 이전을 부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청장년층이 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비농업부문의 신속한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자유로운 사회이동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도시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농촌의 잉여노동력 해소와 도시의 노동력 수요증가로 인한 민공조 현상은 농촌 젊은이들을 인근도시 혹은 성 밖에 대도시나 경제특구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게 하였다. 이에 농촌에서 노인과 소수의 여성과 아동만 거주하는 "공심촌"라는 마을이 많다는 현상이 매우 보편적이다(朱琮, 2014).

한편, 도시민들의 주요 가족 유형은 성인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였다. 복합가정의 대가족을 유지하고 있던 일부 부유층의 경우에도 부모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 가족 형태는 통상적으로 해체되었다. 빈곤가정의 경우 혼인한 형제의 분가는 당연히 되었다. 이런 도시 가족 유형의 핵가족화 추세는 사회주의 중국에서도

계속되었다. 물론 호구제도가 아직은 사회이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시장화에 따라 실제적인 구속력은 약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농민 노동자의 물결과 도시에서의 노동력의 수요에 따라 정부는 호구제도에 대한 완화노력을 하고 있어, 사회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이며, 핵가족화는 더욱 진전될 것이다.

이처럼 호구제도의 완화는 인구이동의 요인이 되고 아울러 노인부양방식과 기대의 변화를 가져온다.

2.1.2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노인 부양기대와 방식

도시화와 시장경제를 도입한 후 인구이동과 가구형태의 변화로 인해 ‘핵가족화’라는 가족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 신체적인 돌봄은 타인을 염려하고 책임을 지는 노동과 애정이 결합된 활동으로서 (Graham, 1983), 이것이 노인이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을 때 가장 먼저 가족 돌봄에 의존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족 돌봄의 질적 우수성은 강제적 이타주의(compulsory altruism)에 기초하지 않는 자발성을 전제로 한다. 노인들이 신체적인 돌봄에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는 돌봄 노동의 특성상 일차집단이 가족관계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집중된다. 한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는 1차적인 선택이지만, 건강이 악화되면 자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진다. 핵가족화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부부들에게는 경제적 부양보다는 신체적 부양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난다. 이들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 부양은 주로 자기부양과 시설부양에 의존한다⁶⁾.

농촌에 거주하는 A1 과 A2 노인의 경우는 지금 건강 상태가 좋고 자녀에게 돌봄을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금 중국 농촌은 양로시설이 미비한

6) 자기 부양은 자녀들이나 기관의 도움 없이 노부부끼리 스스로 신체적 돌봄을 해결하는 것이며, 시설부양은 시설에 거주하면서 시설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이다.

상태이다. 그런 상태에서 노인들은 자녀의 신체적인 돌봄이 결핍된 상황에서는 자기부양을 할 수 밖에 없다.

“큰 애는 딸이고 먼 지역으로 시집갔다. 아들과 며느리는 건축 팀에서 일하고 연말에 돌아온다. 우리 부부가 대신 땅에 농사를 짓는다. 난 지금 몸이 괜찮고 문제가 없다.”(A1)

“지금 돈을 쓸데가 많아 애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 우리 노부부만 집에 있고 서로 돌본다.”(A2)

그러나 도시의 경우에는 농촌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이 건강상태가 좋은 때에 스스로를 돌보는 하지만, 나중에 건강이 악화되면 자녀보다 시설부양을 선호한다.

“우리 둘이 몸이 다 좋다. 애들은 일이 많아서 평소에 둘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식물을 정리하며 할 일이 없으면 나가서 노인들과 수다를 떠다. 애들이 우리를 돌보는 것 보다 나중에 친구들과 같이 양로원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D1)

“내 몸이 좋다. 애 아빠는 몇 년 전에 혈전에 걸려 입원했는데 지금은 후유증이 별로 없고 아주 괜찮다. 지금은 내가 보살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다. 앞에 쇼퍼몰이 있어서 먹고 살게 있으면 가서 사면되고 아프면 입원하면 된다. 큰 병이 아니면 애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냥 양로원을 가려고 한다.”(D2)

“나는 양로원에서 2년 정도 살았다. 지금 적응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오기 싫었다. 애들은 1주일에 1번 정도 나를 보러왔다. 여기 식사도 괜찮고 지금 나이가 많아 많이 먹지 못한다. …… 평소에 텔레비전을 보고, 포카를 하면서 논다. 간호사들이 친절하다. 밤에 잘 잔다. 밤에도 순찰하고 특수 상황이 있는지 확인한다. 여기는 3인실이고 살기가 넓고 편하다. …… 처음에는 다 오기 싫었는데 살면 살수록 나가기 싫다. 요즘은 대부분 자녀수가 적다. 아이 하나만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노인을 돌보겠나? 그래서 양로원에 살아야 한다.”(D8)

D1과 D2 노인이 추후에 양로원에 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D8 노인의 경우는 현재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 중국 도시에서 노인시설이 점점 보완되고 되면서, 도시 노인들은 자녀들의 돌봄이 결핍된 상황이 되면 양로원에 가겠다는 생각이 농촌 노인들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부양방식이 달라지는 양상으로도 나타난다.

자녀들과 동거하는 비율이 낮고, 노인부부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가족부양의 기대가 있더라도 사실상 가족부양은 불가능하고 주로 자기 부양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끼리 서로 돌보면 되고 안 되면 애가 있지 않을까? 설마 우리를 관리하지 않겠나.”(A1)

“요새 젊은 사람이 누가 집에 올 수 있겠나? 우리끼리 같이 사는 것이나 그게 안 되면 그때 방법을 생각할거다.”(A2)

“우리끼리 할 수 있고 애들을 귀찮지 않게 하는게 낫다.....자녀들에게 기대를 해도 애들의 상황을 생각해야지...”(A3)

“우리 부부끼리 같이 살고 있다...(자녀들에게) 기대는 있지만 애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 ”(A7)

부부가 모두 늙고 건강이 악화되면, 자녀에 대한 신체적인 돌봄에 대한 기대가 당연한 일이지만 A 마을의 노인들은 이러한 기대를 확실히 밝히지 않는다. 그 이유는 노인들은 다음과 같다.

A3 노인의 경우는 자녀를 취직하기 때문에 멀리 도시로 이주하게 되면 별거했고 자녀의 신체적인 부양을 받고 싶지만 ‘자식이 (우선) 집에 와야 지요’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식이 집에 안 오는 것에 더 마음을 쓰고 있으며 나중에 자녀를 의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가족부양은 불가능하고 지금 신체적인 돌보는 자신과 배

우자가 서로 의존하는 방식으로 생활한다.

이와 같이 A1, A2 과 A7 노인도 비슷하게 말한다.

“아이고, 아들은 작년에 집에 두 번 왔다. 한 번은 설날 때…… 한 번은 10월 1일에 집에 왔다……. 일주일에 집으로 두 번 전화한다. 딸은 가끔씩 오고 한 달에 한 번……. 자기의 생활도 있다고…….” (A1)

“1년에 두 번 정도는 만난다. 명절 때는 집에서 같이 모일 수 있다……. 전화를 자주 하지도 않아…….” (A2)

“아들이 멀리 떠나서 집에는 안 오고 딸이나 가끔씩 와서 본다…….”(A7)

A1, A2, A3, A7 노인들은 모두 다 신체적 돌봄은 결핍된 상태인데, 자녀들이 멀리 도시로 이주하게 되어 동거할 수 없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런 이유로 노인들은 자녀부양을 기대할지라도, 이는 실현되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A1, A2, A3, A7 노인들은 아직 건강 상태가 좋고, 자기의 생활적인 측면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 만일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돌봄으로써 일상생활을 유지한다. 이처럼 건강 상태가 좋은 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무리가 없고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부간에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신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노후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거나 돌봄자도 같은 노인일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배우자 없이 사는 노인의 경우에는 돌봐줄 수 있는 자녀가 가까이에 없을 뿐 아니라 장기간 이웃이나 지역 사회 구성원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서 노인의 일상생활 돌봄 결핍 현상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었다.

A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병이 났을 때, 특히 간병이 필요한 큰 병에 걸렸을 때 자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돌봄도 받지 못해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병에 걸리면 안 된다. 아프면 돈은 흐르는 물처럼 쓰게 된다. 우리처럼 농사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고기를 먹을 때도 잘 계산하면서 먹어야 하는데. 아프면 옆에 사람도 없고 우리 영감도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병에 오래 걸리면 침대 앞에서 효자 없더니…….”(A1)

“(아플 때)참을 수 있다면 참는다. 옆에서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니면…….”(A4)

“평소에 작은 병은 그냥 참고 참지 못하겠으면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데 더 큰 병은 방법이 없다. 자식들이 돈을 주더라도 돌봐 주는 건 시간이 있어야지…….”(A5)

가족 돌봄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노인은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노인들은 가족이 외에 친척, 이웃이나 친구 등 비공식적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를 돌보고자 한다.

또한 자녀들과 동거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의 노인들과 별거하더라도 가까이 사는 지역의 노인들은 자기 부양과 더불어 가족 부양이 가능했다.

자녀들과 동거하면서 신체적 가족부양을 받는 B3, B4, B5, B6 노인의 경우, B3, B4, B5, B6 노인들 모두 아직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부부가 서로 의존하지만, 자녀와 동거를 하는 경우 자녀가 제공하는 도움을 받게 된다.

노인 B3, B5, B6의 경우는 자녀가 가까운 도시에 취직하였으며 노인이 자녀를 위해 도시에 집을 준비해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 B3과 B5 노인부부의 경우는 손자를 돌보기 위해 잠시 도시로

이주하였고, 노인 B6 의 경우에는 남편이 죽은 후에 자녀들의 걱정
에 따라 자녀들 가까이의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노인 B4의 경우
에는 작은 아들이 향진기업 공장에 취업하게 되어 같이 농촌에서
거주한다.

“얼마 전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너무 놀라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었다.
다행히 애가 옆집에 있어 택시를 잡고 병원으로 갔다. 뇌출혈이라고 했는데 좀
늦으면 살릴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 나 혼자만 있었으면 정말 어쩔 줄 몰랐을
거다.”(B3)

“손녀를 위해 (도시에) 올라가는데 집안일을 평일에 우리 부부끼리 생활하면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어 무거운 것 드는 게 힘들어. 여전히 아들이 필요하
다…….”(B5)

“나이가 많아 곁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만일 돌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얼마 전에 이웃인 XX의 아들이 집에 없는데 넘어졌다. 늦게 병원으로 보
내져서 반신불구가 됐다.”(B4)

“스스로 살기에는 불편이 있다. 지금 같이 거주해도 내가 요리하고 집안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어 머리가 아프거나 감기이거나 병이 들 때가
있지 않은가? 자녀가 옆에 있으면 병원을 갈 때 옆에 사람이 있을 수 있
다.”(B6)

B 마을의 공장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제3차 산업으로서 구멍가게나 만두집을 운영
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노인의 경제적인 수입이 존재한다. 또한 A
마을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공장에 직업이 구하기 위해 도시로 이
주하는 것과는 달리, B 마을은 공장이 젊은이들에게 직업을 제공하
고 있어 젊은이들이 마을에 거주하거나 부모와 가까이 도시에 거주
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녀와의 동거나 별거 사실 자체가 곧
가족 부양의 약화로 등치되기는 어렵지만 동거하는 상태에서 부모

가 나이가 들어서 자녀와 곁에 있으면 노인들이 긴급 상황에 처할 때 자녀가 노인보다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자녀와의 동거는 가족부양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나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까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체적 부양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

C 마을에서 거주하는 C3 과 C7 노인의 경우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지만 아파트의 아래위층으로 거주한다. 이에 따라 자녀의 신체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다.

“전에서 애들이 밖에 일하는 데 지금 직업이 그만두고 집에 다시온다. 지금 위층, 아래층으로 살다가 편하다. 같이 살기 불편하다. 가까이 살면서 필요하면 불러오고 하는 것이 서로 편하다..... 평일에 며느리가 만두를 만들거나 고기를 만들거나 해서 우리에게 갖다주고. 청소도 해주고..... ” (C3)

“중국에서 이런 말이 있다. 거리를 멀리하면 아름다움이 생긴다(距離產生美). 부부가 같이 살아도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어차피 지금 방이 있는데 왜 꼭 같이 살아야 되나. 위층, 아래층로 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애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서로 생활에 영향도 주지 않고 얼마나 좋아.....”(C7)

이상의 사례에 나타나는 C3과 C7 노인의 상황에서는,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하지는 않지만 가까이 위층 아래층을 같이 살고 있어서 실제적인 상황에서도 자녀의 신체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노인들의 거주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인터뷰에 참여했던 도시 노인들은 농촌 노인보다 시설 거주의 기대와 선호를 명확하게 표현한다. 경제적 부양에서는 가족부양을 받고 있는 노인 D6은 신체적으로는 시설을 통해 사회부양을 받고 있으며, 노인 D4도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 현성 양로원에서 2년 동안 산 노인 D4은 80세이다.

“나는 양로원에서 2년 정도 살았다. 지금 적응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오기 싫었다. 애들은 1주일에 1번 정도 나를 보러왔다. 여기 식사도 괜찮고 지금 나이가 많아 많이 먹지 못한다. 평소에 티비를 보고, 포카를 하면서 논다. 간호

사들이 친절하다. 밤에 잘 잔다. 밤에도 순찰하고 특수 상황이 있는지 확인한다. 여기는 3인실이고 살기가 넓고 편하다. …… 처음에는 다 오기 싫었는데 살면 살수록 나가기 싫다. 요즘은 대부분 자녀수가 적다. 아이 하나만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노인을 돌보겠나? 그래서 양노원에 살아야 한다. 어느 할머니는 아들은 8명이 있는데도 양노원에서 산다. 애들은 다 직장이 있는데 노인과 매일 같이 있을 수 없고. 차라리 돈을 모아서 여기서 사는 게 더 낫다.”(D4)

“우리 둘이 몸이 다 좋다. 애들은 일이 많아서 평소에 둘이 집에서 티비를 보고 식물을 정리하며 할 일이 없으면 나가서 노인들과 수다를 떠다. 애들이 두리 돌보는 것 보다 나중에 친구들이 같이 양로원에 가는 것 더 낫지 않을까?”(D1)

“내 몸이 좋다. 애 아빠는 몇 년 전에 혈전에 걸려 입원했는데 지금은 후유증이 별로 없고 아주 괜찮다. 지금은 내가 보살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다. 앞에 쇼퍼몰이 있어서 먹고 살게 있으면 가서 사면되고 아프면 입원하면 된다. 큰 병이 아니면 애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냥 양로원을 가려고 한다.”(D2)

“나는 양로원에서 2년 정도 살았다. 지금 적응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오기 싫었다. 애들은 1주일에 1번 정도 나를 보러왔다. 여기 식사도 괜찮고 지금 나이가 많아 많이 먹지 못한다. …… 평소에 티비를 보고, 포카를 하면서 논다. 간호사들이 친절하다. 밤에 잘 잔다. 밤에도 순찰하고 특수 상황이 있는지 확인한다. 여기는 3인실이고 살기가 넓고 편하다. …… 처음에는 다 오기 싫었는데 살면 살수록 나가기 싫다. 요즘은 대부분 자녀수가 적다. 아이 하나만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노인을 돌보겠나? 그래서 양노원에 살아야 한다.”(D8)

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도시화 수준이 낮은 마을일수록 자기부양의 의존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도시로 갈수록 자기부양과 더불어 가족부양, 그리고 시설부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부양의 기대와 방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단순히 인구구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경제적, 사회문화적 이유도 여전히 존재한다.

2.2 경제 구조에 따른 변화

2.1.1 경제구조의 변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 직업과 소득의 변화로 나타난다.

먼저, 개혁개방 이후, 농업 중심의 중국 경제는 공업화 단계로 급속하게 전환하게 된다. 개혁개방 이후의 자본의 유입은 중국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표 3-1>에서 보듯이, 1979년 이후 자본의 유입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러한 자본 유입에 힘입어 중국의 산업 구조는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으로의 급속한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표 3-1> 자본유입의 추세(1979 - 2001)

| | 총계 | 해외차관 | FDI | 계약 제후 |
|-----------|-------------|---------------|---------------|-------------|
| 1979-1982 | 124.57(100) | 106.90(85.82) | 11.66(9.26) | 6.01(4.82) |
| 1983 | 19.81(100) | 10.65(53.76) | 6.36(32.10) | 2.80(14.13) |
| 1985 | 46.45(100) | 26.88(57.87) | 16.61(35.76) | 2.96(6.37) |
| 1987 | 84.52(100) | 58.05(68.68) | 23.14(27.38) | 3.33(3.94) |
| 1989 | 100.59(100) | 62.86(62.49) | 33.92(33.72) | 3.81(3.79) |
| 1991 | 115.55(100) | 68.88(59.61) | 43.66(37.78) | 3.01(2.60) |
| 1993 | 389.60(100) | 111.89(28.72) | 275.15(70.62) | 2.56(0.66) |
| 1995 | 481.33(100) | 103.27(21.46) | 375.21(77.95) | 2.85(0.59) |
| 1997 | 587.51(100) | 120.21(20.46) | 452.57(77.03) | 14.73(2.51) |
| 1999 | 526.60(100) | 102.12(18.99) | 403.19(76.60) | 15.18(2.88) |
| 2001 | 496.80(100) | - | 468.80(94.40) | 18.40(3.70) |

* 단위: 1억 달러, 괄호 안은 비중(%)

자료: Huang, "Is China Playing by the Rules?" , Harvey(2007) 에서 재인용

<표 3-2>는 1980부터 2013년까지의 지파시 산업별 생산액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표 3-2>에서 보듯이, 1차 산업의 비중이 점점 약화되는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파시의 경제구조가 2, 3차 산업 중심의 구조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표 3-2>지파시 산업별 생산액 구성(1980-2013)

| 년도 | 지역산업 | 제1차산업 ⁷⁾ | 제2차 산업 | 제3차 산업 |
|------|--------------|---------------------|---------------|---------------|
| 1980 | 26.06(100) | 4.11(15.8) | 18.94(72.6) | 3.02(11.6) |
| 1985 | 50.67(100) | 8.13(16.0) | 32.45(64.0) | 10.10(20.0) |
| 1990 | 113.24(100) | 17.43(15.4) | 69.11(61.0) | 26.70(23.6) |
| 1995 | 390.71(100) | 42.79(11.0) | 240.43(61.5) | 107.49(27.5) |
| 2000 | 614.42(100) | 45.94(7.4) | 362.25(59.0) | 206.23(33.6) |
| 2005 | 1418.14(100) | 60.01(4.2) | 946.53(66.8) | 411.60(29.0) |
| 2010 | 2866.75(100) | 105.30(3.7) | 1766.57(61.6) | 994.89(34.7) |
| 2013 | 3801.24(100) | 137.79(3.6) | 2171.37(57.1) | 1492.08(39.3) |

단위(억원/%)

자료출처: 2014년 지파시 통계연간

또한, 경제구조의 변화, 즉 산업화는 소득의 변화도 수반하였다. <표 3-3>는 1980년부터 2013년까지의 지파시의 비사영(非私營) 단위⁸⁾ 직원의 평균연금을 나타낸 것이다. 비사영단위 직원들의 평균연금은 1980년 792원에서 2000년 8,000원을 상회한 이후 꾸준히 증대되어 2013년 현재 46,564원에 이르고 있다. <표 3-4>는 1983년부터 2013년까지의 지파시의 1인당 수입과 지출을 나타낸 것이다. 지파시의 1인당 수입과 지출을 보면, 1980년 연 수입 467원과 연 지출 435

7) <중국국민경제계산시스템2002>의 규정에 따라 2005년 이후의 농업, 어업관련된 서비스업은 제3차 산업에서 제1차 산업으로 옮겨졌다.

8) 비사영(非私營) 단위는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사업 단위등 향진사영기업과 향진기업을 제외하는 퇴직금을 보장해 줄수 있는 직장에 대한 말한다.

원으로 수입과 지출에서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1998년 약 1,000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 현재에 이르면 약 1만 1천원 가량의 여유 자금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3>와 <표 3-4>에서 보듯이, 중국 노동자들의 소득과 지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증대되었으며, 여유 자금이 발생할 정도로 소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지파시 비사영(非私營)단위 직원 평균연금(1980-2013)

| 년도 | 1인당 평균연금(원/년) |
|------|---------------|
| 1980 | 792 |
| 1985 | 1,114 |
| 1990 | 2,270 |
| 1995 | 5,413 |
| 2000 | 8,394 |
| 2005 | 16,492 |
| 2010 | 33,276 |
| 2013 | 46,564 |

자료출처: 2014년 지파시 통계연간

<표 3-4> 지파시 1인당 수입 및 지출(1983-2013)

| 년도 | 년 1인당 수입(원) | 년1인당 지출 (원) |
|------|-------------|-------------|
| 1983 | 467.34 | 434.92 |
| 1988 | 1,189.96 | 1,204.69 |
| 1993 | 2,673.70 | 2,039.85 |
| 1998 | 5,390.52 | 4,367.71 |
| 2003 | 8,720.04 | 6,126.12 |
| 2008 | 17,629.23 | 11,446.80 |
| 2013 | 31,515.00 | 19,282.00 |

자료출처: 2014년 지파시 통계연간

한편,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민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소득 불평등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상대적인 소득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농촌의 탈집단화 개혁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적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농업시기 집단노동에 대한 임금계산 방식은 시기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시간당으로 임금이 계산되었다. 따라서 노인들은 젊은 층과 노동시간이 같기만 하면 젊은 층과 거의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생산대나 경제적 유임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간당 임금제도는 작업 단위나 기술 정도에 따라 임금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점차 바뀌어갔다. 임금을 작업 단위나 기술 정도에 따라 계산하게 된 뒤에도 집단농업은 노인들에게 유리하였다. 왜냐하면 집단화는 일하고자 하는 모든 팀원과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일을 보장해주기 때문이었다.

집단농업에 따른 두 번째 이점은 생산물의 일정량이 가구의 생계 필요에 따라 분배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노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가구의 필요 생계에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생계 요구는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경제구조의 변화가 가져온 산업화, 도시화는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의 노인들의 부양기대와 부양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2.2.2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부양기대와 방식대의 변화

‘누가 부양하는가’라는 부양주체의 변화는 부양방식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1절에서 언급했듯이, 사회보장체계가 국가와 단위의 공적 체계에서 사적 부담이 강화되는 체계로 전환되면서, 노인들의 노후부양 방식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공적 부양이 아닌 사적 부양에서 개인들의 경제적 자원이 곧 부양방식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2.2.2.1 경제적 소득에 따른 변화

먼저, 경제적 소득이 있는 노인들은 가족부양보다는 자기부양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인 스스로가 노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서 노인들이 자식에 대한 기대보다는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 한다.

“애가 우리 보다 못 번다. 나의 퇴직금으로 충분히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다. 애들은 필요 없다.”(B7)

“자식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면 그건 자식의 효심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생계를 유지하는 게 큰 걱정이 없다. 자식들이 잘살면 (그걸로) 된다.”(B4)

“젊을 때는 남편과 같이 마을의 공장에서 일했다. 도시의 아파트에 투자해서 현재 경제적인 상황이 좋다. 딸은 광둥에서 일하고 아들은 근처에서 일한다. 우리는 경제적인 여건이 좋다. 경제적으로 애들(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 애들이 잘 살면 된다.”(B5)

“남편은 퇴직금이 있고 내가 아직 농사를 할 수 있다. 우리끼리 돈 좀 모았다. 앞으로 생활에 큰 걱정이 없다. 애들이 우리 보다 못 벌고 애들은 열심히 살면 된다…… 경제적으로 애들에게 기대는 없다.”(B3)

“마을에서 낡은 집을 개조해 원래 1칸의 집을 같은 사이즈의 집 2칸으로 바꿀 수 있다. 낡은 집이 부족하면 돈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는 면적만큼의 집 대신에 10만원(중국 돈/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500-2000만 원 정도)을 받고 지금 집 한 칸에 살고, 아들이 큰 집은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그냥 임대를 했다. 이것이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고는 문제없다. 아들이 우리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C1)

“나의 퇴직금으로 충분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왜 아들이 필요해. 아들이 준 것은 그냥 받은 것이다.”(D4)

“내 월급으로 충분하다. 그들은 필요가 없다”(D5)

“내 수입은 높은 편이다. 한 달에 5000위안이 넘고 예금 든 것도 많다.”(D2)

“자녀들이 큰 일이 있으면 도와준다. 딸이 집을 구입할 때 계약금의 일부분을 내가 주었다. 아들이 나중에 집을 살 때도 도와줄 것이다.”(D6)

공무원 퇴직금이 있거나 향진기업에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또는 노인이 젊을 때는 공장에서 일하고 여기서 생긴 수입으로 투자를 한 경우에, 노인들은 이를 통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걱정이 없기에 노인들은 자녀에게 경제적인 부양을 제공받는 데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

소득이 증가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노인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노인들은 노후부양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서 자녀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들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려는 태도로 바뀌고 있다.

경제적 소득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자기부양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우리 세대는 제일 힘든 세대였다.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 커오고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부양해오고 힘들게 지냈다. 우리의 고통을 더 이상을 애들에게 주고 싶지 않다. 지금 우리는 돈이 있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 나중에 최소한 경제적으로 애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아야한다.”(C1)

다른 한편으로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자기부양하는 이유는 세대간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 내용은 가치관과 관련 지어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현재의 세대는 우리 세대와 다르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먹고 살고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20년 후에 세계가 어떻게 변하지 누구를 알 수 있겠나 …… 무엇보다 돈은 자기의 손에 있으면 안전하다. …… 나이가 들어 무슨 문제 생기는 지도 몰라, 침대 앞에 효자가 없다(久病床前无孝子).”(C4)

위의 사례를 보면,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경제적 소득이 있는

노인들은 경제적 부양에서 자기부양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가족부양을 선호하였다.

다음, 경제적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기 부양보다는 가족 부양을 선호한다.

"우리는 한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아왔다. 결혼비용도 준비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부모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 준다,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 농사도 할 수 없고, 자녀들이 우리를 부양해주지 않으면 우리 뭐 먹고 사냐?"(A3)

"재산은 안 남았죠, 한 평생을 농사를 지어 왔고, 땅밖에 모른다. 젊은 때 나가고 싶었지만 못 나가고, 나이가 들어 나가고 싶어도 나 갈 수 없고, 나가도 돈을 벌이는 방법이 없고, 농사를 하면 굶어 죽지 않죠..... 전부터 마을에서 지속적인 나이가 들어, 자녀들이 부양해주는 거죠..... "(A4)

"농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땅을 짓는 농민은 그냥 땅에 나오는 것만 의지해서 생활해오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해본 적도 없고..... 우리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이 평생을 농사만 하는 거죠,농사를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돈은 안남아..... 노동력이 있다면 농사를 하고, 농사를 할 수 없다면 애들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A5)

A3, A4, A5는 영세 소농으로, 도시로 이주하지 않고 잔류하게 된 농촌에서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이다.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농사를 통한 소득 기회가 별로 없는 상황이 되어가면서, 노인들 대부분이 경제적인 궁핍 상태에 놓여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인 궁핍상황에서도 자녀양육과 생계유지를 위해 재정적 자원을 쏟아 부었으나, 정작 자신의 노년기를 대비하지는 못했다. 경제적 자원을 축적하지 못한 노인들은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에 대해 경제적인 부양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부양기대와 현실적 부양방식에서 괴리를 나타내는 경

우도 존재하고 있다. 즉 가족부양을 선호하고 기대하지만, 자녀들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부양을 할 수 밖에 없다. A4 노인은 A3과 A5 노인처럼 경제적인 가족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A4 노인은 자녀에게 경제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경우이다.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큰 아들이 땅을 관리하고 식량을 때에 맞춰 줬는데 손자가 도시에 공부하러 갈 때 큰 아들집은 손자를 따라 갔다. 얼굴 보기도 힘들고, 돈이 없지만 우리도 부끄러워서 언급하지 못했다. 큰 아들이 언제나 생각이 나면 그때 (용돈을) 준다. 둘째 아들은 건축업을 하는데 본인이 먹고 살기에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 그에게 바랄 것이 없다. 지금 땅은 마을 사람에게 부탁해서 임대했고 (그들이) 해마다 식량을 주어 먹기에 충분하다 …… 다른 아들과 딸은 연락이 없고 집에 오지도 않는다.”(A4)

A4 노인처럼 자기의 경제적인 수입이 없고 자녀도 노인에게 부양해주는 않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스스로 방법이 강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임대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식량을 받아 노후 생계를 유지한다.

2.2.2.2 지역 경제적 특성에 따른 변화

개인들의 경제적 소득과 더불어 지역의 경제적 특성도 노인들의 노후부양 기대와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업에 기반한 지역의 노인들의 경제적 소득은 2, 3차 산업에 기반한 경제적 소득에 훨씬 못 미쳤다. 따라서 2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의 경제적 소득이 농업에 기반하고, 도시화 수준이 떨어진 지역 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농촌지역인 A 마을과 도시화가 진척된 B, C 마을, 도시인 D 지역 간의 경제 구조와 경제 소득의 격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별로도 노후부양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노후 부양 기대와 부양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도시화가 덜 진행된 A 마을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기 부양에 의존하고 있다.

노인 A1, A2, A4, A7의 경우에는 모두 계속 농사를 짓거나 토지임대, 혹은 아르바이트와 유사한 형식의 노동을 통해 자기 자신에 의지해서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58세의 노인 A1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농촌 가정에서 성장해 중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남편과 같이 계속 농촌에서 살아왔다. 현대 중국 사회는 도시화 과정의 가속화에 따라 취업 과정에서 학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중학교를 졸업한 학력으로는 도시에 가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때문에 농업을 위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에는 일상을 영위하는 기본적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근처에 다른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경제 자원을 축적하기 어렵다. 이러한 노인에게 자녀의 결혼은 현실적으로 매우 지불하기 어려운 목돈의 지출을 요구하는 부담스런 책임이다. 노인 A1의 경우에도 딸의 의례 비용과 아들의 신혼 비용을 마련하는데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 부어 현재는 남은 돈이 없다.

"농사를 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나 남았겠나..... 해마다 옥수수과 소맥을 다 팔고나면 한해에 5000정도는 남고 더 이상은... 그냥 닭이나 돼지를 키우는 것이죠..... 먹고 살고는 문제가 없지만 평소에 돈을 쓰지 않아서애들이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이 사회에서 지식이 없는 게 얼마나 무서워, 맨날 힘들어 죽을 뻔해도 돈도 못 번다..... 애들은 북경에서 생활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나는) 농사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애들을 도와줄 수 없고, 그런 애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A1)

이와 같이 A1 노인처럼 다른 노인도 마찬가지로 수입원이 없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자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기부양을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A 마을 상황에서는 자녀들이 경제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기에 자녀들은 도시로 이주한다. 자녀들은 지역적 및 경제적으로 분가하지만, 도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노인에게 경제적인 자원을 제공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부모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는 상태에서 노인들은 자기부양을 할 수 밖에 없는 노년기를 살아가게 된 것이다. 즉 A 마을의 산업구조와 경제특성으로 인해 노인의 수입원이 없고 토지가 노인에게 제공하는 수입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현 노인세대는 자기부양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현 노인세대는 이러한 자기부양의 생활하는 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향진기업이 존재하는 B 마을과 주택개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C 마을의 노인들의 경우, 부양방식은 자기 부양과 가족 부양을 병존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B 마을의 사례는 A 마을의 상황과 다르다.

B 마을의 향진기업이 노인에게 사회 보험에 의한 자기부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향진기업에 종사했던 노인 B3의 남편도 향진기업에서 퇴직금을 받고 있다. 또한 자녀를 위해 도시에 주택을 구입했지만 아들이 제지업공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계속 마을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한다.

“지금 농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남편은 퇴직할 때까지 공장에서 일했으며, 지금은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으며 재취업하고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부부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다. 자식을 위해 지금 계속 일해야 한다.”(B3)

노인 B3의 경우에는 남편이 목수 일을 배웠고 공장(향진기업)에서 일하면서 회계를 배워서 쓰고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고 현재 공사현장에서 회계 일을 해서 한 달에 몇 천 위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형편이 좋다. 즉 노인 B3처럼 향진기업이 노인에게 퇴직금을 제공하고 노인의 경제적 독립성을 향상시키면 노인의 자녀에 대한 의지는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노인이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노인 B4의 경우에는 26살에 군대를 제대한 후부터 손지수직을 맡아 현재 퇴직금을 받고 있다. 노인 B7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퇴직금이 있고 현재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노후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노인 B4와 과 노인 B7은 수입원은 다르지만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 별 긴장 없이 여유 있게 지낼 수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이들 역시 자녀에게 경제적인 부양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계속적으로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B1, B2의 경우에는 현재 퇴직금이 없으나 제3차 산업에 종사하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한다.

노인 B1의 경우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노인 B2은 작은 만두집을 운영한다.

“전에 공장에서 일했고 젊을 때 돈을 좀 모은 것으로 (지금) 구멍가게를 한다. 마을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자주 물건을 사러 온다. 젊은 사람들이 누가 식초를 사기 위해 장터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나? (가게를 이용한다.) 그래서 매월 돈을 좀 벌 수 있고 농사만 하는 것보다 낫다.”(B1)

“지금 젊은이들은 힘을 쓰지 않는다. 직접 만두를 만들지 않고 다 사서 먹는 다. 우리의 만두가 실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러 오고 있다. 평소 애들이 퇴근하고 와서 도와준다. 반죽기계가 있어서 힘들지 않고 월급보다 많이 번다.”(B2)

B 마을의 공장이 폐업을 한 이후에 노인들은 경제적인 지위가 약화하게 되었다. 향진 기업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과는 달리, 퇴직금이 없는 노인 B1과 B2는 향진 기업 때문에 마을에

서 거주하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사보다 신체적으로 쉬운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노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노인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인 B1과 B2의 경우는 자녀에 대한 의지하고 싶어도 자녀를 의지하기 힘들다는 인식으로 지속적인 노동을 통해 노후 생활을 대비하려고 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B 마을 근처에 공장이 존재하여 노인에게도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인해 B 마을 노인들의 경제적인 수입은 전반적으로 A 마을 노인 보다 높은 편이라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B 마을 노인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가지고 있다. 이에 자녀와 같이 거주해도 경제적으로는 서로 독립하고, 오히려 부모가 돈이 많은 경우는 자녀에게 경제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세대 간 상호부양이라고 할 수 있는 부양방식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B 마을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환경에 위치한다. 그래서 노인들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게 되며, 스스로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것이다.

한편, C 마을은 주택개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주택임대 수입 등의 새로운 수입 구조가 형성된 지역적 특성이 노후부양 기대와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인 C1, C2, C3, C5의 경우에는 아직 노동력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고 자기가 먹을 식량과 채소를 키우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마을에 외래 인구, 특히 젊은 사람이 많아서 작은 장사를 운영하여 돈을 지속적으로 벌고 있는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 C4의 경우에는 파배기를 판다.

“마을에서 낡은 집을 개조해 원래 1칸의 집을 같은 사이즈의 집 2칸으로 바꿀 수 있다. 낡은 집이 부족하면 돈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는 면적만큼의 집 대신에 10만원(중국 돈/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500-2000만 원 정도)을 받고 지

금 집 한 칸에 살고, 아들이 큰 집은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그냥 임대를 했다. 이것이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고는 문제없다. 아들이 우리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C1)

“애들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참지 못한다. 많이 벌지 못하지만 평생 농사를 해서 땅 구경만 해도 좋다. 원래 아이가 결혼했을 때 돈이 없어서 해줄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집을 나눠줘서 하나는 내가 살고 있고, 하나는 아이에게 주고, 남은 하나는 가격이 괜찮으면 팔 생각이다.”(C2)

“젊을 때부터 파배기, 호떡 만드는 솜씨가 좋다. 원래 마을에서 살 때 집에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예약을 했었다. 지금 도 사람들이 많아서(외래 인구가 많다) 가끔 몇 십 키로(그램)를 만들면 금방 다 팔린다……, 일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돈을 스스로 벌어야 마음이 든든하다.”(C4)

“우리 집이 커서 집을 3채 받았다. 작은 집은 우리 부부가 살고, 큰 집은 아들에게 주고 남은 한 집은 몇 십만 위안에 팔았다…… 지금 나는 돈을 벌 수 있고 후반생에 얼마나 쓰겠나? 우리는 충분히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기에 자녀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한다.”(C5)

이처럼 C 마을의 노인들은 주택보상금이나 자기 노동을 통해 자기 생계에 경제적인 상황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노인 C6의 경우처럼 지속적인 호혜 관계로 가족부양방식이 유지되기도 하지만 다른 노인들도 스스로 충분히 먹고 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거부하면서 자기부양이라는 방식으로 노후생계를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도시지역인 D 마을의 노인들의 경우에는, 자기부양과 가족부양, 사회부양의 방식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현실적인 측면으로 볼 때, 도시는 농촌과 다르게 노인들 대부분이 퇴직급여를 받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상황 하에서 D 도시의 조사대상 중에서는 노인 D4만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노인 D4의 경우도 물론 자기의 주택도 있고 퇴직금도 있다. 그는 퇴직 전에 공인이었으며, 한 달에 1,000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는다. 이 정도면 도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노인의 자식들이 모두 대학까지 다니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기 때문에 자녀들이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노인의 요구가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자녀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퇴직금로 인해 생활을 무리가 없지만 자녀를 나에게 주고 그냥 받았다. 애들이 생활적인 조건이 좋고 엄마에게 돈이 주지만 내가 그냥 돈이 안 쓰고 그냥 받은 것이다.”(D4)

서로 금액이 다르기는 하지만 나머지 노인 D1, D2, D3, D5, D6, D7, D8, D9 모두가 퇴직금 받고 있다. 이처럼 도시 노인의 소득은 주로 양로 보험이나 퇴직 급여이다. 일부 아직 일할 능력이나 투자인 것이 있는 노인은 별도의 급여나 투자 이익이 있기도 하다.

이처럼 도시의 노인 대부분은 소득 원천을 가지고 있다. 공기업이나 정부기관 공무원으로 퇴직해 높은 퇴직급여를 가진 노인은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사업자 성격에 따라 퇴직은 일반 기업퇴직, 공기업퇴직, 정부기관 공무원 퇴직 3가지로 분류되며 그 중에서 일반 기업 퇴직 급여는 매월 2000~3000위안 정도, 공기업과 공무원 퇴직금은 매월 5000위안 이상이다. 이러한 퇴직급여 금액의 차이는 노인 생활수준을 결정하지만 노인의 부양방식에 대한 영향은 별로 없다.

“내 수입은 높은 편이다. 한 달에 5700위안이 넘고 이는 생계를 유지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예금 든 것이 많다.”(D3)

“내 퇴직급여는 대략 1달에 5000위안 넘는다. 나는 고급 교사라서 나중에 더 오를 것이다. 예금을 가지고 있고 집은 학교에서 나눠 준 것이다.”(D2)

“퇴직급여는 2400여 위안이고 몇 만 위안의 예금이 있다. 현재 XX양로구역에서 살고 있고 집이 한 채 있다.”(D1)

일자리가 없는 도시 노인의 경우, 대부분은 사회적 성격을 가진 양로보험을 구입한 상태이며, 현재 매월 500~1000위안 정도의 보험금을 받는다.

“내 와이프는 농촌 사람이고 원래 일자리가 없는데 양로보험을 가입할 기회가 생겨서 가입했다. 한 달에 많지는 않고 800여 위안이 나온다.”(D3)

“내 와이프는 원래 XX교사인데 산아제한 때문에 둘째를 낳기 위해 사직했고 아들 1명을 더 낳았다. 현재 퇴직금이 없지만 도시양로보험을 가입해서 한 달에 천 위안 정도 받는다.”(D5)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는 기업 퇴직급여를 수차례 높였지만 정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으며, 사회 양로보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물가 상승 탓에 한 달에 500~1000위안 수입으로 도시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도시의 노인들은 스스로 경제적 소득 원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전에 종사한 직업군의 차이에 따라 현재 경제적 수준에 차이를 갖고 있다. 따라서 노인은 스스로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양로 보험을 찾게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도 있다. 노인들은 여전히 투자 등의 방식으로 스스로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를 이미 대비하여 자녀들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시와 농촌 지역 사이에 부양방식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도시와 농촌지역의 소득원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택개혁으로 도시화가 진척된 C 마을은 주택임대에 따른 수익을 누릴 수 있으며, 도시인 D 지역은 퇴직금 및 양로기금 등의 사회보험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향진기업이 존재하는 B 마을은 향진기업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지만, 그 수익은 크지 않으며,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에만 의존하는 A 마을이

별다른 경제적 수입이 거의 없다. 이러한 양상은 토지가 농민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던 개혁개방 이전과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단순히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생계는 유지하는 정도 이외에 경제적인 수입을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2.3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변화

2.3.1 사회문화적 변화

중국은 개혁경제시기에 도농을 이원화한 강력한 호구제도를 실시하였는데, 도시주민은 공업에, 농민은 농업에 종사하였고, 도농 간의 복지체제도 달랐으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는 도시와 농촌 간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유발하였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노인의 가치관의 변화의 속도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변화는 제도적 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그리고 이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2.3.1.1 제도적인 차이

노인부양방식과 기대의 변화는 개혁개방전후의 제도에 따른 변화이다. 중국은 도시와 농촌의 노후 부양에서 제도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양로보험제도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노후의 경제적 자원을 지원하는 공적인 제도가 취약하다. 특히 현대 중국 정부의 공적 부양 제도인 양로 보험 제도는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촌에서는 2009년에 이르러서야 ‘신형 농촌사회 양로 보험의 시범적 설치에 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신형 농촌 사

회 양로 보험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형편이다(정양양, 2013).

계획경제시기 호구제도에 의한 거주이전의 엄격한 제한은 성인들을 출신지역에 묶어 둠으로써 세대 간의 상부상조와 관계를 유지시켰다. 반면 도시에서는 대부분의 주민은 기업이나 국가단위의 노동자로 편입시킴으로써 지급했던 낮은 수입과 국가가 도시주민들에게 제공했던 공적인 연금혜택은 오히려 상호의무를 전제로 하는 현존간 유대의 필요성을 감소시켰다(김혜진, 2001). 그러므로 도시가정은 농촌가정에 비해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또한 도시의 노인들은 퇴직 후 연금이 있었고, 경제적인 독립으로 따로 살기를 선호하였다(鄭曉瑛, 1995). 복지혜택 중에서도 퇴직금은 도시인으로 하여금 노후에 자식에서 의지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으므로, 여전히 아들을 낳아 노후대비를 해야 하는 농촌주민에 비해 핵가족화가 용이하였다. 특히 공업부분에 종사하는 도시노인에 비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노인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더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영기업(혹시 전민소유제기업)에서나 지급하는 퇴직금이나 의료 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가 없었다(孟憲范, 2007). 이런 개혁개방 이전의 양로보험제도는 도시지역에서 개혁개방 이후에 물론 약화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양로보험이 미비한 농촌지역에서는 여전히 직계가족의 효용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들을 낳아 노후를 대비한다"의 가족 부양방식으로 잔존하게 되는 것이다.

지파시의 민정 부문 통계에 따르면, 위와 같이 퇴직금을 받거나 양로보험을 구입한 자는 도시인구의 97% 이상을 차지한다. 인터뷰를 한 사람들은 퇴직급여로 생계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일반 기업에서 퇴직 후 다른 투자성 수입이 없는 노인들의 퇴직급여는 정부나 공기업 퇴직 급여보다 많이 낮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는 기업 퇴직급여를 수차례 높였지만 정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다. 사회 양로보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물가 상승 탓에 한달에 500~1000위안 수입으로 도시에서 살기가 어렵다. 연금은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보험과 국영

기업체, 집단기업⁹⁾, 소규모의 개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보험이 있다. 국가공무원은 100% 공무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국영기업체 직원도 100%, 집단기업은 86%가 가입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도시근로자의 약 92%가 은퇴 후 연금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노인 부양방식과 기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 양로보험제도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의 근로자 기본양로보장제도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이선화, 2012). 한 가지는 기관·사업기관 근로자에 대하여 실행하는 양로보험제도이고, 다른 한 가지는 기업 근로자에 대하여 실행하는 기본양로보험제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에서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본 직장의 근로자 임금의 총액에 비례하여 기본 양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 양로보험 공채기금에 가입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국가규정에 의하여 본인 임금의 비례에 따라 기본 양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가입하며 사용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분리하여 관리한다(정양양, 2013).

국유기업과 사업기관의 근로자가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정부에서 기본 양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본양로보험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정양양, 2013). 이는 사회기본양로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 외에도 사회보험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다양한 도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경비원을 하거나 세수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보험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행되고 있는 양로보험제도는, 정부에서 제정한 ‘기본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원칙적인 규정으로서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고, 농촌의 사회 양로보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9) 특정지역의 주민이 집단적으로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함

여러 주체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규정에 따르면, 양로보험 기금은 국가 재정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구매하거나 은행에 저축하는 것 외에 기타 용돈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 노인에게 제공하는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농촌과 다르게 도시에서는 개혁개방 전부터 노인들이 단위 중심으로 퇴직금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이러한 도시노인은 자녀의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사회 보험에 의한 자기 부양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개혁개방 이후에 농촌에서도 퇴직금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퇴직금여제도로 인해 농촌에서도 공무원 퇴직금이 있거나 향진기업에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또는 노인이 젊을 때는 공장에서 일하고 여기서 생긴 수입으로 투자를 한 경우에 노인들은 이를 통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인들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걱정이 없기에, 자녀에게 경제적인 부양을 제공받는 데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 도농 간의 격차는 있지만 제도가 개선되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3.1.2 생활 방식의 차이

개혁개방 이전 집단농업시기 중국 농촌의 가족 구조를 보면, 노부모와 결혼한 아들부부 및 그 자녀로 이루어진 3세대 가족이 대부분이고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3세대 동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3세대 동거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선 주택이 부족하여 분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의 경우 아들이 분가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저축이 필요했다. 새집을 짓는데 드는 비용은 연평균 가구소득의 2-6배나 되고 방을 한칸 늘리는데도 그 절반에 가까운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에서는 부모와 자식들 모두가 함께 몇 년간 저축을 하고 그 돈으로 새집을 짓는다.

새집의 규모나 짓는 시기, 위치 등에 대해서는 지역 당국이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대개는 부모 형제가 거주하는 집 가까이에 모여 산다(Davis-Fredaman, 1991). 도시의 거주조건은 정부가 제공한 주택조건의 영향을 받았다. 도시지역에서는 복지혜택의 하나로 단위에서 연공서열에 따라 주택을 제공하였는데, 그러나 당시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 공급의 부족으로 분가를 하려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분가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부모의 가정에서 함께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개혁정책 실시 이전 중국 도시지역에서 노동자에 대한 주택정책은 기업과 지방정부가 공동의 책임을 지는 공공임대주택 체제였다(이경아, 2004). 개혁이전의 임대료는 노동자 가구당 월 소득의 1%에 불과하여 유지관리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기업은 고용노동자, 지방정부는 주택제공여력이 없는 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1980년대 실시되기 시작한 주택개혁정책의 골격은 주택의 '상품화' 및 '사유화' 추진으로서, 공공재가 아닌 사적재화로서 주택이 시장에서 수요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가구당 월 소득 대비 1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주택금융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자기소유를 적극 장려하였다(이경아, 2004).

개혁개방 이후 도시의 확장으로 도시근처의 농촌도 도시화의 영향을 받고 부동산 개발로 주택개혁을 일어난다.

그러나 중국의 토지에 대한 관리는 법적인 제도에 따라 도시과 농촌은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의 토지소유권은 헌법 10조와 물권법 59조에 의거, 국가에 귀속되는 사회주의토지공유제(社會主義土地共有制度)를 근간으로 한다. 이에 의하면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은 분리되며 토지소유권은 도시지역의 경우 국가에, 농촌지역의 경우 농민집체에 귀속된다. 이럼 법적 제도는 아직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즉, 각 지방의 농촌지역은 농민 개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촌민 전체가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 건물 등 부동산 개발의 필수자원인 토지의 확보는 국가의 재량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농민집체소유 토지도 법적으로 농민들이 직접 개발할 수 없으므로 국가에 수용되어 국유토지로 변경된 후에야 부동산 개발에 투입될 수 있다. 이 부동산 개발을 위한 토지사용권의 분배는 ‘출양(出讓)’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출양이란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시와 현급 이하의 지방정부가 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하며 토지사용자는 해당 지방정부에게 토지출양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재양도 임시조례’에 의하면 토지사용권의 기한은 주택용지 70년(만료 후 자동연장), 공업용지 50년, 상업용지 40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도시의 토지사용권이 국가를 가지고 있다. 즉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아파트 살아도 단순히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 있고 토지의 소유권이 없다. 또한 이런 토지소유권에 대한 도시의 농촌의 불평등 현상은 중국 특색의 도시화의 현상이기도 하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연평균 10%라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힘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영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상생활에서 본적인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 빠른 경제성장의 여파로 보건 및 사회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가 하면, 물질주의와 성장 중심의 가치관이 팽배하고 소비수준이 높아지면서 대도시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시장화와 개인화의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이경아,2004)

생활방식, 즉 핵가족화와 주거방식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를 낳았고,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부양기대와 방식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

2.3.2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부양방식과 기대의 변화

양로보험제도와 생활방식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도 노인들의 노후부양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2.3.2.1 양로보험제도 차이에 따른 변화

양로보험제도의 차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다른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농촌 노인들은 열악한 양로보험으로 인해 사회 부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반면, 도시의 노인들은 퇴직금과 양로기금에 따른 혜택으로 사회 부양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도시의 노인들이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조사하는 지파시 농촌 지역은 신 농촌 양로보험이 실시되어 60세 이상 노인에게 월마다 50원 정도의 양로 금액이 제공되고 있다. 이는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만, 노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없는 것 보다 낫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월마다 50원이면 그냥 조미료사는 값이다."(A3)

"그냥 다 해야한다고 가입하는데 실재는 쓸모가 없다. " (A7)

"그냥 가입해는데 돈도 주기는 주지만 실제로 봤을 때 아무 수용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은 시작이 아닌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몰아도....."(B7)

"그것이 기대할수 없는 것이다. 몇 년 전에도 실행해는데 몇 년 지내지 않고 그냥 넘어다. 지금 가입해도 이 정도 돈으로 뭘 할 수 도 없다.여전히 스스로 해결해야한다."(C6)

이에 따라 노인들이 사회부양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녀를 의지할 수 없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생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다른 사회성 양로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으로 노후생활을

대비한다.

노인 C6은 사회성 양로보험이 투자하여 자기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려고 생각하며, 이는 농촌에서 이전에 없었던 사례이다. 노인 C6은 자녀들의 가족부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사회적인 경제적 부양을 기대하고 이를 현실화하고 있다.

“전에 돈이 없어서 생각도 못했는데 작년에 우리 마을에 그 XX씨 말을 들은 양로보험에 가입했다. 현재는 아이들이 우리를 부양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도시사람은 퇴직금과 양로보험이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 나중에 일을 그만두어도 보험이 있으면 매 월 3000정도를 받을 수 있대…….”(C6)

이러한 노인들에게서 가족 부양 기능은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노인들이 자신들의 자녀에게 전혀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노인 스스로가 경제적인 독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C6가 경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부양 방식을 보여주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이런 양상은 제도적인 보완이나 사회성의 양로 보험의 출현하면서 종종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인 C5처럼 사회성 양로보험의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 기대들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돈이 있고 양로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노인들이 많은 적든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근데 아직은 적당한 것 없고…….”(C5)

한편,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가 없어도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노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노인 D4의 경우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본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경제적 부양을 기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의 퇴직금으로 충분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왜 아들이 필요해. 아들

이 준 것은 그냥 받은 것이다.”(D4)

“내 월급으로 충분하다. 그들은 필요가 없다”(D5)

“내 수입은 높은 편이다. 한 달에 5000위안이 넘고 예금 든 것도 많다.”(D2)

“자녀들이 큰 일이 있으면 도와준다. 딸이 집을 구입할 때 계약금의 일부분을 내가 주었다. 아들이 나중에 집을 살 때도 도와줄 것이다.”(D6)

도시에서 퇴직급여를 받으면서도 부양을 받아야 하는 노인도 있기는 있지만, 노인들은 전반적으로 자녀들의 경제적 부양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 퇴직자는 보다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상당량의 저축한 돈이 있으며 자녀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모두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은 자녀들이 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대적인 측면을 봤을 때, 도시노인들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기대는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제도에 따른 노후 부양기대의 변화에는 국가가 노인에게 사회 부양을 제공하는 이유도 존재한다. 자기 자신은 능력이 있어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있지만, 자녀들이 처한 환경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인 D7 노인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평생을 국가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가 늙으면 당연히 국가를 나를 책임지어야한다. 왜 자녀에게 의지하나?”(D7)

노인 D7은 자녀에게 의지하기보다 본인이 평생 노동력을 받친 국가가 본인의 노후를 책임져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도시 노인들의 경우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경우에는 자녀와 독립적인 공간에서 생활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농촌 노인들이 보통 본인

의 집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반대로, 도시 노인들은 퇴직금은 있지만 토지도 없고 집도 상품주택으로 사서 거주해야 한다. 그래서 55세 이상의 노인은 대부분 직장에서 나눠준 복리집(복지주택)이 있고, 상품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다. 조사 대상인 9명 도시 노인들 중에서 3명은 직장에서 준 건물¹⁰⁾에서 살고 있고 다른 6명은 상품 집에서 살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택 대부금이나 외채가 없다. 노인들의 경우 상품 주택의 가격이 낮은 시기(한 평당 2000위안 이하)에 거의 저축으로 한 번에 집을 구입했거나 살던 집을 팔고 새집을 구입했다. 그러므로 현재 주택이 노인들의 생활에 경제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

“지금 집값은 전보다 많이 비싸졌다. 우리가 구입 했을 때 1평당 1천 여위안이었고 살던 집으로 바꾸면 더쌌다. 초과된 면적에 대해서만 조금 지불하면 되고 한 집은 몇 만 위안이면 됐다.”(D2)

“내 집은 예전 직장의 복리집이고 직원 기숙사이다. 대출할 필요도 없고 월급에서 일부분만 차감해도 되고 돈으로 구입해도 된다. 우린 그 시기에 직장만 있으면 거의 다 복리집을 소유할 수 있었다.”(D1)

그러나 근래에는 부동산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주택 값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노인이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을 준비하는 게 되었던 것이 요즘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노인의 생각에는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노인의 책임이지만 자녀에게 부양을 받은 것이 당연한 일이다. 경제적인 부양하는 책임을 국가이나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고찰에서 살펴보면, 지역적 특성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부양기대의 변화를 가져왔다. 도시화 수준이 낮은 마을은 전통적 노후부양인 가족 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경제적 여건

10) 복리집, 직장에서 직접 분배해 주거나 시장가보다 낮게 구입한다.

의 개선과 소득이 높은 지역의 노인들은 가족부양에서 자기부양으로 기대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양로보험이라는 사회 보험 제도가 이미 확립된 도시지역은 제도의 유익에 따라 자기부양과 사회부양에 대한 기대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 사회에서 농촌의 토지가 제공했던 생활의 안정은 산업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도시가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에 압도되었고, 노인들의 지위에서도 도-농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3.2.2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른 변화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부양방식과 기대에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전술했듯이, 농촌지역인 A 마을과 B 마을의 주택은 일반적으로 농기구 보관, 식량 말리기, 가축사육 및 간단한 농산물 가공 용지를 포함하는 전통적인 농촌 정원이 있는 주택이다. 이러한 농촌의 집은 넓고 독립적이어서 대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도시의 아파트는 협소한 공간이어서 대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현재 중국의 농촌에서는 아들과 부모가 여전히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부모와 가까이 살고 있다. 이곳에서는 보통 아들이 결혼하면 부모는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새로운 집을 지어 주고 같은 마당에 살게 한다. 특히 아들이 한 명만 있는 경우에는 결혼 후 그냥 부모와 함께 살게 된다.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들은 여건이 허락한다면 가까이 자녀들의 주택을 사주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일종의 투자이고, 이에 노인들은 자녀에 대해 부양을 기대한다.

“애들이 마을에 있으면 집을 지어도 몇 만 위안이면 충분하다. 그럼 힘을 쓰고 아껴서 집을 준비해주면 되는데 도시에서 집을 살려면 몇 십 만 위안이 필요하다. 그런 돈이 어디 있나? 있는 돈을 다 준다. 안 되도 어쩔 수 없다. 부모

로서 책임도 다 한지 못 하고 애들에 대한 기대라니……. 이런 쓸모없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게……”(A1)

“몇 년 전에 애들이 결혼했을 때 집도 새로 지어서 7, 8 만 위안을 써야 됐고 (그래서) 지금은 돈이 없어서…… 애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고…… 애들이 잘 살면 되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A2)

“한 평생 일을 하면 아들을 위해 집을 짓고 장가를 보낸다. 딸이 시집갈 때는 적게 해 줬다. 아들을 위해 집을 짓고 장가를 보내면 (부모로서의) 임무의 대부분을 완성한다.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써도 모자라다……. (그래도) 내가 아직 돈을 벌 수 있고……”(A7)

현재 중국의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녀세대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 결혼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모들은 그들을 위해 돈을 모아 집을 구매하는 예약금이라도 지불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농촌의 노인들은 도시에서 거주하는 자녀에게 비싼 주택을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것이 농촌 노인들이 자녀에게 부양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런 이유로 가족부양을 약화되면 노인들은 스스로를 부양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주로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아파트와 같은 고층 건물에서 사는 것은 노인의 외출에 불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농촌보다 훨씬 제약된다. 또한, 농촌생활에 익숙한 노인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 이들은 도시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농촌과 가까운 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촌과 도시를 오가면 농사일이라도 할 수 있지만, 농촌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이마저도 어렵게 된다. 다시 말하면, 도시에 가면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A 마을의 노인 A7은 도시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도시에서의 인간관계는 농촌사회와 많이 다르다. 개방적인 공간인 도시와는 달리 농촌은 폐쇄적인 공간이어서 주민들 간의 관계가 더욱

친숙한 편이고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는 주로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아파트와 같은 건물에서 거주하면 노인은 외출이 불편하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농촌보다 제약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노인이 익숙한 농촌 생활을 버리고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 이들은 도시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게다가 새로운 언어 환경에 처하면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평소에 농촌에서 살면 서로 이야기할 사람이 있지만 도시로 이주하게 되면 이야기할 사람이 없기에 외출을 더욱 싫어하게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농촌에서는 노인이 그동안 쌓아온 연대관계가 있지만 도시에서는 새로운 연대관계를 맺기 힘들기 때문에 농촌에 거주하던 노인은 농촌에서 사는 것을 보다 선호한다.

노인 A1은 도시의 아들집에서 손녀를 돌본 적이 있다. 아들의 집이 7층에 있으나 승강기가 없어 오르내리기 어려웠고, 표준어를 써야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특히 노인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은 방 공간이 좁다는 점이다. 농촌 마을에서 넓직한 공간에서 살기에 익숙했던 노인으로서 도시에서의 삶이 불편했던 것이다. 또한 도시에서 소비할 물건의 값이 비싸서 ‘(도시에서는) 계란 사는 데도 돈이 필요한데 (농촌) 우리 집에서 살면 돈도 안 든다’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도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노인들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C 마을은 도시화 발전의 특성으로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양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소였다. C 마을에서도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은 있다. 그 사례는 노인 C6이다. 노인 C6은 전에 마을에서 두부 장사를 했다. 그 때는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고 자녀도 많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교육도 제대로 못시켰다. 자녀도 주택개혁 이전에 도시에서 건축업을 종사하며 힘들게 생활했고 돈도 많이 못 벌었다. 중국의 호구정책은 중국의 대도시에서 농촌 출신 노동자에게 여전히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도시호구도 받지 못한다. 그

러나 주택개혁 때 주택이 제공되면서 부부가 다 주택을 받게 되었고 그 주택을 장남과 차남에게 주었다. 주택개혁 이후에 자식들은 마을에 다시 돌아 왔으며, 노인 C6은 자기의 주택을 하나 더 팔아 자식에게 주고 지금은 형제 3명과 같이 가까운 D 도시에 만두집을 하나 세웠다. 지금 노인 C6은 주택이 하나 있고 남아 있는 돈이 많지 않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또 자식도 노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노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노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호혜적인 가족부양방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아이들이 사업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내가 그냥 주택을 하나 팔아서 자식에게 돈을 준다. 돈만 남아도 별 소용이 없다……. 우리가 먹고 살고 얼마나 쓰겠나? 우리는 필요 없지만 애들이 계속 돈을 준다…….”(C6)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점이 하나있다. 자녀들이 농촌호구를 가지고 도시에서 근로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 현상이 그것이다. 일부 자녀들은 도시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이에 따라 농촌에서 좋은 수입이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때에는 다시 농촌(집)으로 돌아오고자 한다. 이는 노인에게 경제적인 영향을 많지 않지만 뒤에 노인의 신체적 돌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3.2.3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변화

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도 상대적인 불편한 농촌지역에서는 도시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노인들이 개혁개방 전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많이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변화된 환경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온다.

첫째, 도시화 발전에 따라 노인의 독립성이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자녀의 돌봄에 대한 노인들의 기대는 단순히 자녀의 수나 성별로 평가하기 어렵고 노인과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에 달려있다. 노인들은 의무감에 기초한 형식적 돌봄의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자녀에게 의존하고 부담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Qureshi & Walker, 1989; 이가옥 외, 2004). 따라서,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부양을 필요로 할 경우, 대개 1차적으로 배우자를, 2차적으로 자녀를 부양자로 선택하고자 한다.

지금 신체적으로 가족부양을 받고 있는 B6 노인은 명확하게 자녀에 의한 신체적 부양 기대를 이야기 한다.

“재혼할 생각 없다. 남에 비웃음 받게 왜? 나중에 (상황이)안 되면 (도움 줄) 애들이 있다.”(B6)

B 마을도 A 마을처럼 도시와 거리는 있는 지역이며 외래인구가 없기에 노인들의 고정관념이 상태적인 보수적인 편이다. 그래서 B 마을에도 역시 A 마을과 같이 전통적인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어 여성이 배우자와 사별한 후 재혼을 하면 마을에서 눈치와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피하려 하기 때문에 노인 B6도 재혼할 생각이 없으며 자녀에 대한 신체적인 부양기대를 가지고 있게 된다.

이외에도 가족부양을 받고 있는 노인 B3, B4, B5도 자녀에 대해 신체적 부양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주택 다 사주고, 자식(손자녀)도 우리가 돌봐서 키웠고, (그런데) 나중에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말이나 되나?”(B3)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병이 들었을 때 자녀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돌보나? 우리처럼 노인들이 아직은 쓸모 있다. 내가 살고 있다면 돈도 줄 수 있지 않은가?”(B4)

“지금은 돌봄이 필요 없지만 나중에 아프면 의지할게 여전히 자녀다. 그래서 지금 돈을 모아야지. 나중에 아프면 자녀들이 돈의 정을 봐서라도 오지 않겠는가?”(B7)

노인 B3, B4, B7은 소득원이 다르지만 본인들의 수입으로 별 긴장 없이 여유 있게 지낼 수 있는 상태이다. 이들은 현재 오히려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본인들의 지원에 대한 호혜의 차원에서 이후에 자녀들에게 부양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즉,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노인 B3, B4, B7은 자녀에게 경제적 부양 기대가 없어도 신체적인 돌봄의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는 노인과 자녀의 관계의 질과 상관없이 노인의 경제적인 능력과 관계가 있다. 기존의 전통적 접근에서는 돌봄의 감정과 행위를 자연스럽게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의 무보수노동으로 규정했으며 돌봄 제공은 세대 간에 교환되는 호혜성에 기초한 의미 있는 행위이고 타인의 욕구에 귀 기울이고 책임을 지는 윤리 도덕적이며, 비계약적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노인들의 생각에는 경제적인 자원을 주어야 자녀들이 본인을 부양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며, 이는 노인이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에게 가족부양에 대한 기대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노인 B2, B5의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책임을 지고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애들 공부 시키고, 취직 시키고, 결혼 시키고, 주택까지 사주었는데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노인에게 줄 수 없다는 건 말이나 되지만, 부모를 위해 (신체적) 돌봄을 줄 힘까지 아까운 사람이 (있다면 그가) 사람인가?” (B2)

“우리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아왔다. 같이 거주하며 밥해주고 애들을 돌봐주고 하는 것이 왜 그러겠나? 나중에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어머니를 돌보지도 안하면 안 된다. 당연히 우리를 돌봐야한다.”(B5)

경제적인 부양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노인들은 건강이 악화되면

자녀에게 신체적인 부양의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대해서 노인들이 자녀에게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노인의 생각 속에서 자기를 자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를 위해 결혼이나 집 마련 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평소에도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경제적인 기대가 없어도 자녀에게서 자신들에 대한 신체적인 돌봄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C 마을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분은 이들이 개인공간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C 마을의 경우, 중국의 지역 토지개혁정책으로 인해 주택이 도시화되어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농업을 위한 넓은 공간에서 아파트라는 형식으로 주택지가 바뀌었기에 거주방식이 도시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노인들은 독립적인 공간을 요구하고 자녀들과의 동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독립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전통적인 주택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부모와 지식이 한집에 같이 거주해도 서로에게 독립된 공간이 있다. 그러나 아파트는 전통 주택보다 면적이 좁다. 때문에 자녀와 같이 거주하면 자식과 생활적인 습관이나 잠자는 시간이나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노인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자녀와 같은 집에 거주하기보다는 아파트의 아래위층으로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다.

“자녀와 가까이 살고 싶지만 한집에 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며느리와 같이 살게 되면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애들과 시간이 안 맞는다. 지금의 애들이 우리처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우리도 소리가 너무 크면 잠이 안 오고……같이 살기 불편하다. 가까이 살면서 필요하면 불러오고 하는 것이 서로 편하다.”(C3)

“중국에서 이런 말이 있다. 거리를 멀리하면 아름다움이 생긴다(距離產生美). 부부가 같이 살아도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어차피 지금 방이 있는데 꼭 왜 같이 살아야 되나. 위층, 아래층로 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애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서로 생활에 영향도 주지 않고, 얼마나 좋아……”(C7)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노인들은 개인공간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자녀들과의 갈등이 자신의 가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여 부모와 동거하는 일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그들의 부모 세대도 역시 자신들의 생활공간을 중시하기 시작했으며,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같이 살기를 강요하지 않았다. 노인들은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으며, 자식들도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녀가 결혼 후, 타인에게 의지하기 보다,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서로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는데, 같이 살 경우 쉽게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물론 도시화로 인해 노인의 경제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변화한다. 그러나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돌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인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함께 나타나는 것은 노인에 대한 사생활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노인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건강 수준은 노인의 독립적 생활에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공선희, 2013). 노인들은 배우자가 서로를 돌볼 수 있다면 자녀에게 신체적 부양을 해야 하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자녀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몸이 건강한 경우 자립하여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며, 의식적으로 자녀와 별거하여 따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명확히 밝힌다.

“우리는 옛날에는 방이 컸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게 불편하다.”(C6)

노년생활을 스스로 돌볼 수 없을 때 노인들은 여전히 자녀들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기대가 명확하게 나온다.

“당연히 애기가 우리를 돌봐야지”(C2)

“내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양로원에 가야되나.”(C6)

“나중에 돈이 있으면 자녀를 돌보지 않을까? 돈의 얼굴이 봤을 때도 와야죠.”(C4)

“침대 앞에 효자 없는 게 돈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현재 세상은 돈이 있으면 다이다. 자녀도 옆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애들이 나 돌보지 않은 게 하나도 무섭지 않다…나중에 풀어야죠.”(C5)

물론 자녀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도시화로 인해 노인의 가치관적인 변화를 여전히 볼 수 있다. 세대관계를 주조하는 규범으로 가장 강력한 것은 유교적 효 규범이다. 전통적으로 ‘효’란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었으나, 이것이 강하게 유지되지 않게 된 것이다. 노인들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생겼고 효에 대한 인식이 노인이 자녀의 무조건적 봉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변화 되었다(박경숙, 1999). 교환이론의 관점에서는 세대 관계의 지속과 안정이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대관계는 비대칭적 관계가 되거나 해체된다. C 마을의 노인들은 자신이 가진 물질적(경제적) 자원을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이 비물질적 가치(부양)으로 교환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에 대한 부양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호혜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C 마을 노인들의 경우 몸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신체적 부양을 기대하고 있다. 즉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 부양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신체적 부양을 기대하게 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신체적 부양이 노인의 부양방식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들에 의한 신체적인 돌봄에 대한 노인들의 기대는 시설 거주에 대한 거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노인들에 대한 신체적인 부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마을공동체는 집단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에 공동체의 돈으로 노인을 양로원에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노인들은 본인에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서의 거주를 거부한다.

“죽어도 거기(양로원) 안가. 내가 아들 없는 것도 아니다. 나중에 방법이 없어도 거기 안 간다.”(C6)

“집에서 자녀를 통해 돌봄은 게는 제일 좋고 양로원이 같 생각도 없고 가고 싶지 않다. 자식이 아무리 못해도 자식이 지식이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C5)

“돈이 없어서 못가는 것이 아니고 (양로)가기 싫다는 것이다.”(C4)

마을공동체는 마을의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음에도 노인들은 이를 이용하고자 하지 않는다. 자녀가 없을 때 노인을 양로원으로 보내는 ‘오보정책’에 대한 인식때문에, 자녀가 있는데도 본인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도시화 수준이 높아져도 여전히 노인의 신체적인 돌봄에 대한 기대는 가족에게 제일 우선으로 기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농촌노인은 경제적 부양에서보다 신체적으로 가족부양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족부양에 대한 기대는 노인의 실제적인 신체적 부양 현실에서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도시에서 강한 개인주의 양상이 나타난다.

농촌 지역의 노인들이 여전히 신체적인 돌봄의 측면에서 가족부양을 선호하고 시설을 거부하는 것과는 반대로, 도시 노인들은 신체적인 부양에 있어서 자녀 대신에 시설부양을 더 선호하는 양상을 보인다.

“딸이 컸다(장성했다). 같이 살기에는 불편하다. 돈 좀 모아 따로 살아야겠다.”(D1)

“시어머니니까 며느리 밥 차려와라 그런 거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 먼저 찾아먹고 같이 살아서. 자유야. 내 먹고 싶은 거 먹구, 너 먹구 싶은 거 먹구. 편하잖아……구속하는 게 아니라 …… 며느리니까 시어머니 봉양해야 된다 이런 건 안가지고 있어…… 같이 살아도 별로 부딪치지 않았지. 맨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했으니까……”(D6)

노인 D1은 본인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D6 노인은 세대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형태의 차이는 있고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만, 두 노인은 분가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그러나 자녀의 경제적인 조건이 안 좋고 나가서 살 데가 없기 때문에 분가의사를 실현할 수 없는 상태다.

도시의 노인들도 자녀보다 부부끼리 서로 돌보는 것을 선호한다. 농촌 마을의 경우와는 다르게, 도시 노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나이가 아주 많은 것(80세 이상)이 아니면 보편적으로 재혼을 택한다. 경제적 수입이 없는 농촌 배우자와 재혼하더라도 재혼 후 생활의 질이 명백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업을 퇴직한 노인 D5는 원배우자가 사망하고 1년 후에 딸이 사람을 부탁해서 알게 된 농촌 호적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하고 현재 같이 살고 있으며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 때문에 자녀와 노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둘 다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를 분가시키지 못하고 동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나는 지금 배우자와 같이 (자녀들과) 따로 산다. 우린 관계가 좋다. 원래 배우자가 죽은 후에는 기분이 좋지 않고 평소에 집에서 말할 대상도 없어진다. 애들은 걱정이 돼서 번갈아서 나를 보러 왔었다. 손자가 어릴 때 와서 노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 재미가 없어서 놀러 오고 싶어하지 않는다. 나 때문에 애들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에 줬다. 후에 지금 배우자를 소개를 받았고 서로 잘 맞는다. 나를 위해 빙을 만들고 만두를 만든다. 둘이 같이 먹으면 입맛이 좋다.”(D5)

퇴직 교사 D8 노인은 여성이다. 원배우자가 사망한 후, 딸 2명, 아들 1명이 번갈아서 보살펴 줬는데 안 맞는 것이 많아서 현재는 따로 산다. 지금은 배우자와 사별한 동창과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서로 보살펴주며 살고 있다.

“배우자가 죽은 지 십여 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애들 집에 가서 살았는데 문제들이 많았다. 며느리와 생활 습관이 달라서 자주 문제가 생겼다. 딸 집에 가기도 원하지 않았다. 사위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나중에 애들이 돈을 모으고 내가 저축한 돈을 같이 써서 현성에 이 집을 샀고 지금은 혼자 산다. 6년 전에 중학교 동창과 다시 만났다. 그의 배우자도 사망했다. 지금 우리는 매일 만나고 반려자가 됐다”(D8)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가 스스로 핵가족을 선호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져도 자녀와 살기 보다는 양로원으로 가겠다는 의향을 비치기도 한다. 그들 자신이 자녀의 부담이 되기 싫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들이 양로원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경향으로, 자녀 부양하는 것 대신에 시설부양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설이, 집 같은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거 자체가 편하잖아? ……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자식이 옆에 없으니 시설이 더 낫지. 그게 더 나을 거 같다……정부에서 노인네들 오래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공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실비로 운영하는 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다. 자녀들이 안 찾아오면…… 그런 거까진 생각 안 해봤는데 거기(시설)서 있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면 시설에서 거주해야지. 애들이 우리가 돌보고 싶어 해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D8)

현재 중국 도시의 노인시설은 점점 보완되고 있어서 많은 이들이 양로원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생각이 농촌 노인들에게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 광범한 농촌지역에서 좋은 양로시설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은 낮으며, 시설이 있어도 농민들은 많은 돈을 들여

양로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측면도 존재한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농촌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 여전히 가족부양에 대한 기대를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향후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자녀가 돌봐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에는 도시에 노인은 도시에 문화를 더욱 적응하고 가족대심 시설부양을 더욱 선호한다.

위의 사례를 보면, D 도시노인들도 C 마을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강하게 나타내며 자녀들과 같이 거주하고 싶지 않고 독립적인 거주 환경을 요구한다. 도시의 노인들은 농촌노인들보다 더욱 독립적이고 외래문화를 잘 적응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돌봄 측면에서 시설부양을 선호한다.

이상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협소하면서도 개방적인 주거환경과 핵가족화에 따른 독립적인 생활방식은 노인들에게도 독립심과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노후부양 방식도 다르게 나타난다. 중국 도시의 경우에는 노인시설이 점점 보완되고 있어 많은 노인들은 양로원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도시의 노인들은 개인공간이나 생활공간을 중시하고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에 대한 부양 기대를 접고 있다. 또한 도시에서는 농촌보다 개방적인 공간에 있게 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인식도 변화되는 가치관을 접하고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D 도시의 노인들은 경제적·신체적으로 자기부양이나 시설부양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녀를 통한 가족부양에 대한 기대도 적은 편이다.

제4장 결론

1. 연구결과

본 연구는 현재 중국 노인들의 노후부양 기대와 부양방식을 통해 개혁개방 이후의 산업화, 도시화가 가져온 중국 노후 보장체계의 변화의 단면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의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속에서 중국 노인들의 가족부양 방식과 기대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화, 도시화의 변화로 인한 인구구성, 경제구조,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노인 부양방식과 기대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고찰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중국 산둥성내에서 산업화, 도시화의 수준이 다른 네 개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노후 부양 기대와 방식을 파악하고, 아울러 거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파악과 고찰을 통해 노인들의 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노인의 노후 부양 방식과 기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고찰과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혁 개방으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 정도에 따라 지역적 특성이 다르게 형성되었다. 그 지역적 특성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구성에서 도시화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상주인구수와 젊은 층의 상주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농촌에서는 노인부만 사는 가구가 주요 구성을 이루는 반면, 오히려 도시화가 진척된 지역에서 자녀 동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농촌의 젊

은 인구층이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농촌에서도 핵가족화가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경제 구조에서, 농업에만 기반한 농촌지역은 소득이 낮고 산업구조가 단순한 반면, 도시화가 진척된 지역일수록 소득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에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발달되는 양상을 보였다. 산업화로 인한 경제구조의 발달은 마을공동체의 수입의 증대를 가져와 지역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이용되었다. 따라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척된 지역일수록 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진 양상을 드러내었다.

셋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양로보험제도가 먼저 시행된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노후 복지의 안정성을 보여주었으며, 마을공동체가 존재하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는 돌봄에 있어서 공동체적 성향을 좀 더 보여주었다. 따라서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노인들의 독립성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다음, 개혁개방으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는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노인들의 노후 부양 기대와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었다.

개혁개방 이전의 사회복지체계는 국가-단위 중심의 복지체계를 통해 노인들의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된 반면, 개혁개방 이후의 복지체계는 사적 부담이 확대되면서, 개인적 특성에 따라 노후부양 기대와 방식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은 지역적 특성과 결합하면서 그 차이가 좀 더 두드러지는 양상을 드러내었다.

첫째, 인구구성적인 측면에서는 개혁개방 전후의 이주 정책이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엄격한 주거 이주정책에 따라 인구이동이 불가능하였지만, 개혁개방 이후에 제도적인 변화로 인해 이주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동반한 도시화, 산업화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인구 구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인구구성에서의 주요한 변화는 핵가족화,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가구형

태의 변화이다. 상주 인구수가 적고 젊은 층이 부족한 농촌지역은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부부의 가구가 많았다. 이들은 가족부양을 선호하는 양상을 드러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신체적 돌봄을 하는 자기부양이 주된 노후부양 방식을 이루었다. 자녀들과 동거하거나 혹은 별거하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는 자녀들의 비중이 높은 도시지역에서는 자기부양의 선호가 높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자기부양 방식을 취했으며, 시설부양을 선호하고 시설에서 거주하는 비중도 농촌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경제구조적 측면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의 발전에 따른 중국의 인구소득이 전반적인 인상하는 가운데서도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누가 부양하는가’라는 부양주체의 변화는 부양방식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개혁개방 이전 사회보장체계가 국가와 단위의 공적 체계에서 사적 부담이 강화되는 체계로 전환되면서, 노인들의 노후부양 방식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공적 부양이 아닌 사적 부양에서 개인들의 경제적 자원이 곧 부양방식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적 자원은 부양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농업에 기반한 지역의 노인들의 경제적 소득은 2, 3차 산업에 기반한 경제적 소득에 훨씬 못 미쳤다. 따라서 2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의 경제적 소득이 농업에 기반하고, 도시화 수준이 떨어진 지역 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농촌지역인 A 마을과 도시화가 진척된 B, C 마을, 도시인 D 지역 간의 경제 구조와 경제 소득의 격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별로도 노후부양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도시화가 덜 진행된 A 마을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기 부양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향진기업이 존재하는 B 마을과 주택개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C 마을의 노인들의 경우, 부양방식은 자기 부양과 가족 부양을 병존하고 있다. 셋째, 도시지역인 D 마을의 노인들의 경우에는, 자

기부양과 가족부양, 사회부양의 방식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지역 사이에 부양방식이 차이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소득원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택개혁으로 도시화가 진척된 C 마을은 주택임대에 따른 수익을 누릴 수 있으며, 도시인 D 지역은 퇴직금 및 양로기금 등의 사회보험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향진기업이 존재하는 B 마을은 향진기업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지만, 그 수익은 크지 않으며,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에만 의존하는 A 마을이 별다른 경제적 수입이 거의 없다. 이러한 양상은 토지가 농민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던 개혁개방 이전과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단순히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생계는 유지하는 정도 이외에 경제적인 수입을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자기부양을 선호하였고, 실질적으로도 자기부양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의 도시지역 거주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자녀로부터 경제적 부양과 더불어 신체적 부양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상 경제적 자원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가족부양의 선호가 높았지만, 경제적 부양과 신체적 부양 모두 자기부양 방식에 의존했다.

셋째, 도-농간 사회보험 수혜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양로보험이 취약하여 사실상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반면, 도시 지역의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풍요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혜택을 더 누리고 있었다. 따라서 농촌의 노인들은 자녀 부양의 기대가 높은 반면, 도시 노인들은 자기 부양과 시설 부양의 기대가 높았다. 또한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가족부양의 기대와 가족 공동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반면, 도시 노인들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가 진행되어 독립성과 자기부양이 강하게 나타났다. 주거환경의 변화와 핵가족화라는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해 가

치관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협소하면서도 개방적인 주거환경과 핵가족화에 따른 독립적인 생활방식은 노인들에게도 독립심과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노후부양 방식도 다르게 나타난다. 노인들은 자녀에게 신체적인 돌봄을 받더라도 별거하고 서로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농촌 노인들은 여전히 신체적인 측면에서 가족부양을 선호하고 도시 노인들은 자녀 대신 시설의 돌봄을 선호한 것을 나타났다.

이상의 고찰과 분석을 통해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가족부양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에 인구구성, 경제구조, 사회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달라진 개인 및 지역의 특성이 노인들의 노후부양 기대와 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연구의 함의 및 한계

개혁개방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중국의 노인부양의 기대와 방식의 변화에 주목한 본 연구는 중국 사회의 변화의 단면과 더불어 그 변화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첫째, 본 연구는 중국 사회가 갖는 특색으로 인해 한국 사회와는 다른 부양방식과 기대를 보여주고자 했다. 물론 한국사회와 중국사회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가족부양이 약화되는 공통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두 사회는 노인부양 방식의 변화의 구체적 양상에서는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체제로의 변화 과정에서 노인부양에 대한 물질적 기초와 규범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노인부양의 쟁점은 가족의 노인부양능력 약화와 이에 대한 국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노령화의 공적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었다. 이에

반해 중국에서는 전반적인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시기를 겪었고 개혁개방 이후 국가 보장이 약화되면서 노인 부양에 대한 사적 책임이 강조되었다. 이에 노인부양 방식에서는 다시 가족부양의 책임이 강조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부양은 전반적으로 약화된다. 중국에서 노인부양과 관련한 노인들의 입장과 목소리는 누락되었고 노인이 가진 자원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물질적 지원, 사회적 관계, 특히 자녀와의 세대관계의 특질을 구조화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중국의 노인부양 방식의 정책적 한계와 그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노인부양 방식과 기대에 대한 관심은 크게 두 가지 현실적, 이론적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개혁개방이후 가족변화에 따른 노인부양의 공급위기이다. 중국사회는 개혁개방 이후에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겪었고 노인들만의 노부부가족이 증가하게 된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산업화의 진전, 가족 구조의 변화 등은 가족 내 노인부양을 더 이상 안정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객관적 환경이 되었다. 다음, 돌봄 관계의 당사자인 노인의 입장과 목소리가 누락되었고 노인은 단지 부양을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의존적 집단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부양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비용인 부양자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노인은 가족과 사회에 '부담'이 되는 집단이라고 전제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부양 정책은 노인의 노후를 보장하는데서 부족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현실적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본 연구는 노인의 입장에서 돌봄과 노인부양의 쟁점을 접근하였다. 또한 노인이 부양제공의 수동적 객체가 아닌 실질적 참여자가 되는 부양관계로 접근하는 연구의 필요성과 이를 통해 현행 중국의 노인부양정책이 보완해야 하는 한계를 지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질적 면접 자료는 연구자의 일차적 해석의 문제로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연관된다. 심층면접의 중층적 맥

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질적 연구의 장점이 살려지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과정에서 연구자의 성찰적 태도가 중요하다. 또한 세대 관계는 누구의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냐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간과된 노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노인의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부양의 관계에서는 어느 한쪽의 목소리나 입장보다는 부양을 주고받는 노인과 부양자의 입장이 모두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한국 자료

- 고경애(1990).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고수현·김익균·김지영·도미향·문혜숙·변보기 외(2002). 『사회복지개론』, 서울: 대학출판사.
- 고영복(1983).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1994). 『현대사회 문제』, 서울: 사회문화 연구소.
- 공선희(2013). "노인들의 가족돌봄에 대한 기대변화와 정책욕구", 한국사회학, 제47집 제1호, pp.277-312.
- 권중돈(2004).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권용우 외(2006). 「도시의 이해」, 서울: 박영사.
- 김두섭(2001).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김병철(2010). "개혁개방 전후의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변천 과정", 『국제노동브리프』, 2010년 5월.
- 김영근·짜오즈레이(2014). "중국도시화 수준에 대한 종합분석-주성분분석과 군집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4호, pp.283-303.
- 김영중(2004). 「사회복지 행정」, 서울: 학지사.
- 김용희·안정신(2009). "장기요양보호 노인 및 부양자특성이 부양자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9(3), pp. 1183-1196.
- 김태현(1982).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가족부양의 실태와 부양만족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김태현(2003). "장기보호 여성노인의 수발에 관한 연구: 수발특성과

- 우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6호, 대한가정학회, 143-156
- 김해란(2011). 「중국 가족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1997). "부양 및 효에 관한 노인의 가치관 연구". 『한국노년학연구』, p 51-66.
- _____(1994). "노인부양의 문제와 대안: 가족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연구』, p 57-76.
- 김동일(2000). 「사회적 노화」. 한국노년학회(편). 『노년학의 이해』 p 87-106. 서울: 대영문화사.
- 김윤정·최혜경(2000). "사회적 지지로서의 노인부양". 『한국노년학』, 20(1), 209-223.
- 김정석(2007). "고령화의 주요 사회이론과 담론". 『한국노년학』, 27(3), 667-690.
- _____(2001). "노년기 가족관계의 질에 대한 척도구성", 김두섭 편, 『변화하는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출판부, 151-186
- _____(2003). "노후생활에서 성별 차이: 경제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6(1), 『한국인구학회』, 59-77
- _____(2005). "한국노부모들의 노후부양관 변화, 1994-2004년", 『한국노년학』 25(4), 한국노년학회, 1-11
- 김미경(2000). "노인복지에 대한 가족사회학적 접근: 노인 부양문제를 통해 본 노인복지와 여성복지의 관계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사회학』 제34집, 65-84
- 김미경·송다영(2002). 「여성의 노인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성인지적 정책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미경·주재선(2003). "고령화시대 노인부양부담과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연구』 65, 한국여성개발원, 181-210
- 김상욱(2000). "노인부양의 불일치: 태도-행위의 세대내 불일치 및

- 세대간 불일치”, 『한국사회복지학』 42, 한국사회복지학회, 41-82
- 김성례(2002). “여성주의 구술사의 방법론적 성찰”, 『한국문화인류학』 35-2, 한국문화인류학회, 31-64
- 김승곤(2004).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보건과 사회과학』, 제16집(2004. 12), 155-177
- 김영범(2000). “복지국가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접근: 에스핑 안데르센을 중심으로”, 『비교사회』 3, 한국비교사회학회, 206-233
- 김익기 · 김동배 · 모선희 · 박경숙 · 원형희 · 이연숙 · 조성남(1999). 『한국노인의 삶: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연구센터
- 김진영(2007).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 연령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3), 한국사회학회, 127-153
- 김형수(2006). “노인 경제실태 및 고용”, 모선희·김형수·유성호·윤경아 공저, 『현대 노인복지론』, 학지사, 205-221
- 김혜경(2004). “보살핌 노동의 정책화를 둘러싼 여성주의적 쟁점: ‘경제적 보상(payments for care)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0권 2호, 한국여성학회, 75-104
- _____(2007). “여성의 노동사를 통해 본 일과 가족의 접합: 60년대 산업화 이후 친족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제7권 2호: 37-82
- 김혜숙 · 김은희 · 김향원 · 유철인(2005). “공동거주의 의미와 한국가족의 변화: 서울지역과 제주도의 도시중산층 가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문화』 17(1), 한국가족학회, 3-34
- 김형수(2003). “노인부양의 한계와 생산적 고령화 방안”. 『노인복지연구』, 22(겨울호), 175-192.
- 모선희(1999). “노인과 가족: 흔들리는 가족, 외로운 노인”, 김익기 외,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연구센터: 생각의 나무, 81-122
- _____(2006). 「노인에 대한 이해」. 모선희 · 김형수 · 유성호 · 윤경

- 아(공저). 『현대노인복지론』 p 15-51, 서울: 학지사.
-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2008).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한울아카데미.
- 박재홍(1991). 「노인문제」, 고영복편,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 박재간(1997). 「노인문제와 대책」, 서울: 이우출판사.
- _____(1984). “노후보장과 사적부양기능”, 『한국노인학』 제 4호.
- _____(1993).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문제와 해결방안”, 『노인정책토론집』.
- 박재간 외(1984). “노인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박종기(2014). “중국의 도시화 과정과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4.4, pp.169-180.
- 박종화·윤대식·이종열(2013), 『도시행정론(이론과 정책)』, 대영문화사.
- 박경숙(1999). “노인의 생활세계와 삶의 질”, 김익기 외,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연구센터: 생각의 나무, pp.367-404.
- _____(2000a).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차홍봉 외, 『고령화 사회의 장기요양보호』, 소화, pp.17-46.
- _____(2000b). “장기요양보호 실태조사 개요”, 차홍봉 외, 『고령화 사회의 장기요양보호』, 소화, pp.87-126.
- _____(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의암출판.
- _____(2004). “생애구술을 통해 본 노년의 자아”, 『한국사회학』, 38(4), 한국사회학회, pp.101-132.
- _____(2006). “빈곤의 개념과 생애사의 교차”, 박경숙 편, 『삶의 기회』, 동아대학교 출판부, pp.7-42.
- 박인성(1995), “중국의 국토 및 도시개발 현황”, 『대한건축학회지』, 39권 12호, 1995

- _____(2007), "중국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체제 형성에 관한 연구", 『주택도시』, 제92호
- 서병숙(1992). 『노인연구』, 서울: 교문사.
- 선우던(2012). "중국의 고령화시대, 새로운 시장 만든 실버산업 발전에 주목해야", <http://www.posri.re.kr/issue/journal/board>.
- 성규탁(2000). "한국인의 부모부양을 위한 의지와 관행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1권 21호.
- _____(2003). 『사회복지 행정론』, 서울: 법문사.
- 성영혜·이재연·서영숙·이소희(1997), 『현대사회와 가족복지』,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손려연(2000). "20세기말 중국가정구조와 사회역학의 변천", 서북인구.
- 송순·채옥희·홍달아기(1995). 「현대사회와 가정」, 성루: 경춘사.
- 송다영(2004). "부양의식을 통해 본 노인부양지원정책방향성: 기혼여성의 부양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9, 207-233.
- 송다영·김미경(2003). "여성의 취업실태별 노인부양부담과 역할갈등", 한국여성학, 19, 2, 한국여성학회, 145-176
- 신화용(1996). "1980년 이후의 노년기 가족 연구: 성과와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2호, 한국가정관리학회, pp.1-15.
- 신현방(2005). "개혁정책 이후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영자(2008). "농촌노인부부의 삶에 나타난 '생애사적 진행과정 구조'의 재구성". 『한국사회복지학』, 60(1), 127-157.
- 양영자(2007). "손자녀 교육을 위해 이농한 후기 여성노인의 삶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한국노년학』, 21(1), 235-254.
- 유영주(1985). 「신가족 관계학」, 서울: 교문사.
- 왕보현(2004). "사회양로복무의 방향, 문제와 대책의 연구", 『사회과학연구』.
- 왕금성(2000). "거가양로: 중국 성진 노인의 필연적 선택", 『인구학

- 간』.
- 이경아(2004). "중국사회 가족구조의 변화와 현대적 적응", 『중국학 연구』 제332집, p537-568
- 이선화(2012). "중국의 노인복지 관련법제: 양로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 이 옥(2014). 「중국의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위환·권용신(2005). "가족친밀감과 노인인식이 노양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4(2),165-178.
- 이윤로(2004). "노인부양을 위한 가족의 보호노동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여름호), 53-70.
- 이인희(2012). 「현대국가와 복지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이정화(1999). 「부양의식과 형제자매지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농촌며느리의 시부모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원(1999). 「노인복지론」, 서울: 고평출판사.
- 이재열(1998). "사회과학의 질적 연구 방법: 양적 방법과의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 패션마케팅연구회 연구방법론 세미나, 1998. 6. 13.
- _____(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학 8(1), pp.33-67.
- 이재경(2005). "공·사 영역의 변화와 '가족'을 넘어서는 가족정책", 성연구 68, 2005년 1호, 한국여성개발원, 137-164
- 이회옥(1994). "중국의 계층분화와 중국적 중산계층의 통장의 성격과 의미", 서울대학교 지역종합 연구소 주최 1994년 지역연구 학술발표회 논문집.
- _____(2014). <중국의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경희(2002). "노인수발과 가족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회 편, 한국

- 의 여성정책 미래인력연구원, 지식마당, pp.261-284.
- 정경희·오영희·석재은·도세록·김찬우·이윤경·김희경(2005).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장경섭(1992). “핵가족 이데올로기와 복지국가: 가족부양의 정치경제학”, 『경제와사회』 15, 한국산업사회연구회, pp.173-204.
- _____(1993). “가족, 국가, 계급정치: 가족 연구의 거시 사회변동론적 함의”, 한국사회사연구회편, 『한국 근현대 가족의 재조명』,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39집, 문학과지성사, pp.214-39.
- _____(1994). “한국 가족의 이념과 실제: 가족규범의 다중성과 내부모순”, 철학과 현실 22, pp.51-67.
- _____(2001). “압축적 근대성과 노인문제의 재인식: ‘신세대’로서의 노인”, 가족과 문화 13(1), 한국가족학회, pp.1-29.
- 정양양(2013). 「한국과 중국의 노인복지제도 비교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공성(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중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선호(2001). “중국의 도시화 과정과 도시정책”, 『사회과학연구』,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 113-123
- 정희순(2006). “한일 양국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 연구: 노인부양의 관점에서”, 『일어교육』, p 403-425.
- 조명덕(1999). “노인과 주거”,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노인과한국사회』, 한국사회문화연구소, pp.73-107
- 조성남(2001). “노인의 건강과 가족”,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pp.221-268
- _____(2004). 「에이지붐 시대: 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_____(2006). “노인부모부양에 관한 기혼자녀세대의 인식: 초점집단토론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9(3), 한국인구학

- 회, pp.139-157
- 주상애(2006). 「노인부양 스트레스가 가족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행정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 이(2002). “중국농민의 비농화 계층분화와 도시화”, 『사회과학논집』, 제21집.
- 진영혜(2011). 「중국 양로보험에 관한 연구 농촌양로보험을 중심으로」 호송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차홍봉, 최성재, 이가옥(2000). 『고령화 사회의 장기 요양보호』 소화
- 최경석(1982). 『현대사회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최병헌(2008). “중국의 도시화와 도시경쟁력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1호, pp. 411-412.
- 최성재(1999). “장기요양보호노인을 위한 정책과제”, 이가옥 편저, 「노인복지의현황과 과제: 더불어 만드는 삶과 희망」, 나남출판, pp.359-393.
- 최순남(1997).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홍익사.
- _____(1999). 「현대노인복지론」, 경기: 한신대학교출판부.
- 최혜경(2000).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부양의 방향”. 『노인복지연구』, 10(겨울호), 141-164.
- 한혜경(1999).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와 재가복지의 대체관계 분석: OECD 국가와의 비교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pp.361-385.
- 홍숙자(2001). 「노년학 개론」, 도서출판 하우.
- 한국은행 국제경제부(2014). “중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 및 평가”. 『국제경제리뷰』, 2014-25.
- He Huan(2012). 「중국의 노인 의료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기화(2011). 「중국의 양로취업활성화방안에 관한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정희(2015). “중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쟁점”. 『보건복지포럼』, 22-34.

영어 자료

- Abel, Emily K.(1994), "Historical perspectives on caregiving: Documenting women's experiences", Gubrium, J. F., & Sankar, A.(eds.), *Qualitative methods in aging research*, Sage Publications, 227-240
- Arber, Sara & Ginn, Jay(1991), *Gender and later life: A sociological analysis of resources and constraints*, Sage Publications
- Atchley, R.C. & Barusch, A. S.(2004). *Social forces &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pp.44-76). 10th. Eds. Belmont, CA: Wadsworth/Thomson.
- Bettio, Francesca & Plantenga Janneke(2004), "Comparing care regimes in Europe", *Feminist Economics* 10(1), pp.85-113
- Bertram, H.(1997). Getrennt wohnen - solidarisch leben. Die multilokale Mehrgenerationen familie. In A. Lepenies (Ed.), *Alt und Jung: Das Abenteuer der Generationen*(pp. 79-85). Basel; Frankfurt am Main.
- Campbell, Ruth & Ingersoll-Dayton, Berit(2000), "Variations in family caregiving in Japan and the US", Long, Susan Orpett(ed.), *Caring for the elderly in Japan and the US: Practices and policies*, Routledge, 231-247
- Daatland, Svein Olav & Herlofson, Katharina(2003), "'Lost solidarity' or 'changed solidarity' : A comparative European view of normative family solidarity", *Ageing*

- & Society 23, 537-560
- Davis, Kingsley(1965), The Urbanization of the Human Population. SCIENTIFIC AMERICAN. 213(3), pp.3-16. De Beauvoir, S.(1972). *Das Alter*. Reinbek bei Hamburg: Rowohlt.
- Dwyer, Jeffrey W., & Coward, Raymond T.(eds.)(1992a), Gender, families,and elder care, Sage Publications
- Dwyer, Jeffrey W., & Coward, Raymond T.(1992b), "Gender, family, and long-term care of the elderly", Dwyer, Jeffrey W. & Coward, Raymond T.(eds.), Gender, families, and elder care, Sage Publications, 3-17
- Eldridge, Hope Tisdale.(1956), The process of urbanization. Demographic analysis: selected readings.- Glencoe, Ill. : Free Press - 1956, pp.338-343.
- Evers, Adalbert(1993), "The welfare mix approach: Understanding the pluralism of welfare systems, Evers, A., & Svetlik, I.(eds.), Balancing pluralism: New welfare mixes in care for the elderly, Avebury, pp.3-31
- Gubrium, Jaber F. & Holstein, James A.(2002), "The active subject in qualitative gerontology", Rowles, Graham D., & Schoenberg, Nancy E.(eds.), Qualitative gerontology: A contemporary perspective,(2nd ed.), Springer Publishing Company, pp.154-171
- Gubrium, Jaber F. & Wallace, J. Brandon(1990), "Who theorizes age?", Ageing and Society 10, pp.131-149
- Graham, Hilary(1983), "Caring: A labour of love", Finch, Janet & Dulcie Groves(eds.), A Labour of love: Women, work and caring, London:

- Hooyman, Nancy R., & Gonyea, J.(1995), *Feminist perspectives on family care: Policies for gender justice*, Sage Publications
- Hooyman, Nancy R., & Gonyea, J.(1999), "A feminist model of family care: Practice and policy directions", Garner, J. D.(ed.), *Fundamentals of feminist gerontology*, The Haworth Press, 149-69
- Hooyman, Nancy R. & Kiyak, H. Asuman(1996),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4th ed.), University of Washington, Allyn & Bacon
- Ogawa, Naohiro & Retherford, Robert D.(1993), "Care of the elderly in Japan: Changing norms and expect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585-597
- Qureshi, Hazel & Walker, Alan(1989), *The caring relationship: Elderly people and their families*, Temple University Press, Philadelphia
- Thomae, H.(1983). *Alternsstile und Altersschicksale. Ein Beitrag zur differentiellen Gerontologie*. Bern; Stuttgart; Wien: Huber.
- Thomae, H. & Maddox, G. L.(Ed.)(1982). *New perspectives on old age. A message to decision makers*. New York: Springer. Murphy, J. W., & Longino, C. F.(1992), "What is the justification for a qualitative approach to ageing studies?", *Ageing and Society*, 12, pp.143-56
- Phillips, Judith & Bernard, Miriam(1995), "Perspectives on caring", Phillips,
- Ray, Ruth E.(2002), "The search for meaning in old age: Narrative, narrative process, narrativity, and narrative movement in gerontology", *The Gerontologist*, 42(1), pp.131-137

- Rosow, Irving(1974), "Socialization to Old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irth, Luis(1937), The Urban Mode of Life. In: New Horizons in Planning. Chicago, pp.23-30.

중국 자료

- 陳賽權(2000). "中國養老模式研究綜述". 절강대학인구와발전 연구소, 『人口學刊』, 2000년, 제3기
- 程 亮(2014). "老由誰養：養老意願及其影響因素——基於2010年中國綜合社會調查的實證研究". 『蘭州學刊』 2014년, 제7기
- 程 遠(1999). "上海市區老年人養老意願研究". 『市場與人口分析』 1999년, 제4기
- 董 沛(2008). "我國城市養老方式綜述". 『의학연구와 교육』, 2008년 제2기
- 董建軍(2010). "中國養老模式的社會化轉型與社工介入". 산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董華蕾(2012). "城鄉居民養老模式及養老意願調查". 태산의학원, 석사학위논문
- 丁志宏(2014). "我國農村中年獨生子女父母養老意願研究". 중앙재경대학교 사회발전연구학원. 『人口研究』 제38권, 제4기, 2014년7월호
- 丁寧寧(2001). "面對人口老年化的挑戰", 중국 국무원발전연구 사이트
- 李彥博(2009). "隊列效應下的中國城市養老意願影響因素分析". 하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李新霞(2013). "當代社會轉型中農村孝文化的變遷與家庭養老研究——基於河南S村的調查". 절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劉孟芳(2005). "我國農村養老模式研究". 무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林叢(2008). "從養老意願看農村社會養老保險的可持續發展". 화중과학

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陸學藝 (2005). 『當代中國社會階層研究報告』,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02년 1월

姜 瑩(2007). "論我國農村社會養老保險體系的建立和完善". 중남재경
정법대학교 신화금영보험대학, 『時代經貿：下旬』 2007년,
제42기

焦亞波(2010). "上海市老年人養老意願及其影響因素". 남경인구관계간
부학원 인구경제학. 『中國老年學雜誌』. 2010년 10월 제 30
권.

穆光宗(1999). "家庭養老面臨的挑戰以及社會對策問題", 중구학계,
1999년, 제3기

穆光宗(2000). "中國傳統養老方式的變革和展望", 중국인민대학교 학
보.

馬世曉(2012). "城鎮化水平綜合評價方法研究", 관양건축대학교하보,
2014년 7월

孟憲范 (2007). 『改革大潮中的中國女性』, 중국과학기술출판사,
2007

牛喜霞(2013). "城市居民社會化養老意願的調查研究——以淄博張店區
為例." 산둥이공대학교 『蘭州學刊』 2013년 제7기

宋 健(2006). "中國農村人口的收入與養老". 중국인민대학교 인구연구
소, 중국인민대학교 출판사

宋寶安(2006). "老年人口養老意願的社會學分析". 기림대학교 철학사
회학원.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2006년 7월, 제46권 제4기

司馬雲傑(1987). 『文化社會學』, 화하출판사

孫 暢(2015). "青年群體的養老意願及製度回應研究——基於吉林省的調
查". 기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孫曉芹(2011). "上海城市老年人養老生活滿意度及其影響因素研究". 상
하이 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唐勇林(2005). "明天我們拿多少養老金", 중국청년출판사

- 唐利平(2010). "第一代農村獨生子女父母養老意願實證分析——兼論農村養老保險的效用". 수주과학기술대학교 사회학과, 『人口學刊』 2010년 제1기
- 熊躍根(1999). "我國城市居家老年人晚年生活滿意程度研究——對一項調查結果的分析". 기림대학교 인구연구소, 『人口與經濟』 1999년, 제4기
- 王躍生(2006). "當代中國家庭養老結構變動分析", 중국사회과학
- 王國軍(2002). "農村社會養老保險制度的經濟可行性探討".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사회보장연구소, 『首都經濟貿易大學學報』 .2002년, 제4기
- 王武林(2007). "中國人口老齡化與老年人福利的展望", 중국인민대학교 학보, 2007년
- 王新越, 宋颺, 宋斐紅(2014). "山東省新型城鎮化的測度與空間分異研究". 지리과학, 2014, 34 (9) : 1069-1076
- 汪冬梅(2005). 『中國城市化問題研究』, 중국경제출판사, p.21
- 韋雲波(2010). "貴陽市城鄉老年人養老意願及影響因素". 화동사범대학교 인구연구소, 『南京人口管理幹部學院學報』 2010년 6월, 제26권 제2기.
- 吳曉東(2002). "中國農村養老的經濟分析". 서남재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楊善華(2004). "責任倫理與城市居民的家庭養老——以北京市老年人需求調查為例", 북경대학교 사회학과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4년, 제1기
- 楊春榕(2004). "現狀與出路_我國城市社區居家養老模式探析". 기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楊樂樂(2013). "家庭社會資本和市場化對農村居民養老意願的影響". 산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楊 喬(2014). "養老意願及老年人生活質量的調查研究". 산서성의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張劍偉(2009). “現階段我國城市社區養老模式研究”. 암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朱 瓊(2014). “‘空心村’老人機構養老意願及影響因素研究——基於皖南X鎮的調查”. 화둥이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褚湜婧(2010). “影響城市老年人養老意願諸因素分析”. 중국인민대학교 『南京人口管理幹部學院學報』, 2010년 4월, 26권, 제2기
- 張洪芹(2009). “農村家庭養老與子女支持願望——基於對山東部分農村地區的調查”. 산둥교육학원. 『東岳論叢』 2009年9月. 第30卷 第9期.
- 張文娟(2014). “城市老年人的機構養老意願及影響因素研究——以北京市西城區為例”. 중국인민대학교 노년연구소. 『人口與經濟』 2014년 제6기
- 張凱棣·潘金紅·郭平·歐陽錚(2009). 『政府養老定位研究』, 중국사회출판사
- 鄭功成(2006). 『從企業保障到社會保障』, 랑닝인민출판사
- 鄭曉瑛 (1995) . 『中國女性人口問題与發展』, 북경대학교출판사, 1995

통계자료

- 산둥성노년학학회(2009), 『山東省2008-2020年人口老齡化狀況及對策研究』, 출처: <http://www.sdpca.org.cn/>
- 중국통계구(2010), 『中國統計年鑒2009』, 중국재경출판사
- _____ (1996), 『中國統計年鑒1995』, 중국재경출판사
- _____ (2001), 『中國統計年鑒2000』, 중국재경출판사.
- _____ (2010), 『中國2010年人口普查資料-山東省』, 중국통계출판사
- 지파시통계구(2014), 『2014年淄博市統計年鑑』, 지파시통계구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html/jsp/main.jsp>

한국개발연구원(KDI). <http://www.kdi.re.kr/>

Abstract

Senior Support Method and Expectation in Shandong, China

WANG XINYUE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cross section of change of Chinese decrepit guarantee system brought by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fter Chinese Economic Reform through current senior support and expectation and support method of Chinese seniors. This study began with the assumption that family support methods and expectation of Chinese elderly are generally weaken in the process of fast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fter reformation open. Under this assumption,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what influence the senior support method and expectation have and how they change according to population composition, economic structure and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due to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fter Chinese Economic Reform.

As a method for this study,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in 30 old people who live in 4 regions with different levels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Shandong, China.

With the in-depth interview, old age support expectation and method elderly face were examined, and at the same tim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 their residential areas. Through these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s, it was attemp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and regional features on elderly support method and expectation.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and analysi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regional characteristics were created in different ways according to the levels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due to Chinese Economic Reform.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can be described as follow.

First, regarding population composition, the region with the higher level of urbanization, the more the weight of settled population and residence of young people were found. In addition, in rural areas, households of only elderly couple took the major parts, whereas the ratio of children cohabitation was higher in more urbanized areas. Furthermore, as young population from rural areas moved to cities, patterns of nuclearized families tended to be clear.

Second, in the economic structure, rural areas that were based on agriculture had lower income and simple industrial structure, whereas areas in which urbanization was advanced had not only high income but also patterns that develops the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The development of economic structure due to industrialization brought about increased income of town community, which were used to expand a variety of welfare facilities. Therefore, the areas with advance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showed patterns of good welfare

facilities.

Third, in terms of socio-cultural aspects, urbanized regions in which endowment insurance systems were implemented first showed better stability of welfare for seniors than rural areas. Also, rural areas in which town community existed showed more community-oriented tendency in care than urban areas. Therefore, more urbanized regions showed stronger independency and individualized tendency of elderly.

Then,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due to Chinese Economic Reform affect personal as well as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se region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had great effect on the senior support expectation and method.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prior to the Chinese Economic Reform, retirement of seniors were stably guaranteed through welfare system centered on nation-unit, but in the condition in which country was in general poverty, the level of elderly support was very slight. The welfare system after the Chinese Economic Reform, however, as personal burden was expanded, the expectation and methods of senior support showed difference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s. These personal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s they were combined with regional features.

First, in rural areas in which the number of population was small and young people were insufficient, households of senior couples who lived separately from their children. They revealed the pattern preferring family support, but in reality, self-support in which elderly care for themselves physically was the major senior support method. In urban areas in which seniors lived with their children or lived separately but children who lived in a

close distance took much weight, preference for self-support was great and seniors took self-support method in reality. The weight for preference for facility support and living in nursing home were higher than that of rural areas.

Second, economic resources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determines support method. If elderly had economic resources, they preferred self-support regardless of urban or rural areas, and they actually took self-support method. Also, some elderly residing in urbanized areas received economic support as well as physical support from financially rich children. However, the seniors in rural areas whose economic resources were vulnerable preferred family support in financial aspects. However, they relied on self-support methods for both economic and physical support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gap between urban-rural social insurance benefits was severe. The seniors in rural areas had vulnerable endowment insurance and was virtually in a blind spot of welfare, whereas elderly in urban areas relatively enjoyed not only economic abundance but also benefit of social insurance. Therefore, seniors in rural areas had high expectation for children's support, but seniors in urban areas had great expectation for self-support and facility support. In addition, the elderly in rural areas had strong expectation for family support and family community spirit, whereas the urban elderly had strong independency and self-support as their values were changed into individualized ones.

With the above considerations and analysis, it was found that family support in China after the Chinese Economic Reform was growing weak in both cities and rural areas. It was also

identified that the persona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that were changed according to population composition, economic structure and socio-cultural differences in the processes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d great effect on senior support expectation and method.

Keywords: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support method, support expectation, economic support, physical care

Student ID: 2013-23775